세계문화유산
통도사 기념메달
마하몰
www.mahamall.co.kr
에서 만나세요

현대불교

구독 · 후원 상담
02-2004-8212
ARS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520호 HYUNBULNEWS.COM 2025년 2월 26일(음력 1월 29일) 수요일 / 불기 2569년

선명상위원회 활동 박차
'선명상 대중화' 본격화

조계종 미래본부, 선명상위원회 2차 워크숍

청소년 교육 · 글로벌 네트워크 제안
4월1~6일 봉은사서 국제선명상대회
5~9월 지역 확대…10월 컨퍼런스
진우 스님 "선명상으로 불교 중흥"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국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선명상 프로그램 개발 보급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조계종이 워크숍을 개최하고 선명상 대중화를 위해 머리를 맞댔다. '국제선명상대회' '선명상 템플스테이' '선명상 프로그램 개발 보급' '지도자 양성 과정 개발' 등 다양한 사업 계획이 공유됐다.

조계종 미래본부는 2월 17일 서울 진관사 한문화체험관에서 '선명상위원회 제2차 회의 및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비롯해 1월 20일 출범한 선명상위회(위원장 금강 스님) 위원이 대거 참석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2024년 선명상 주요 사업결과 및 2025년 선명상 주요 사업계획에 대한 미래본부의 브리핑, 선명상 템플스테이 1박 2일 프로그램 및 선명상 프로그램 개발 방향 등이 논의됐다.

미래본부는 2025년 주요 선명상 사업으로 △선명상 프로그램 개발(템플스테이, 단계별 프로그램, 지도자 양성 과정, 법회 동영상, 초중고 교재 개발) △선명상 대중화(2025 국제선명상대회, 선명상 템플스테이 시행, 법회 식순 반영, 하루5분선명상 캠페인) △홍보(홈페이지·어플리케이션·유튜브 운영) △선명상 중앙센터 건립 등을 추진한다.

위원회 각 위원들은 선명상 대중화와 국제화 사업에 대한 다양한 제안을 이어갔다. 덕안 스님은 선명상을 국민 정신 행복 운동으로 확장시키기 위해 △108가지 상황별&108가지 종류별 선명상 교재 개발 △108가지 선명상 영상 제작 및 디지털 플랫폼 고도화 △다양한 선명상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전 국민 대상 보급 전략 등을 설명했다.

정도 스님은 표준화된 선명상 공통 교육과정 개발 사업을 위해 △종단 차원의 표준화된 공통 교육과정 적용 및 인증 강화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선명상 교육과정 개발 등을 제안했다.

청소년을 위한 선명상 대중화 사업도 제안됐다. 정혜 스님과 해인 선명상센터는 육바라밀을 기본 핵심실천 덕목으로 청소년에게 실천적 생활명상을 교육시켜 참교육을 실현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학생 지도를 위한 영어 선명상전문가 양성을 강조하며 세계화에 발맞출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준한 스님은 선명상 대중화 및 국제화를 위해 조계종 해외특별교구와 국제전법단이 합심, '글로벌 선명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한편 한류 페스티벌 등에 참가해 한류와 결합한 K-명상 확산과 글로벌 홍보에 나설 것을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워크숍에서는 2025국제선명상대회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공개됐다. 국제선명상대회는 4월 1~6일 서울 봉은사 일대에서 개최된다. 봉은사 전각과 체험 부스에서 간화선, 호흡명상, 선명상 음악회, 미디어 아트, 걷기 명상, 요가 명상, VR 명상 등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선명상 체험프로그램이 진행된다.

국제 컨퍼런스 및 폐막식은 10월 중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공연장 및 조계사에서 열린다. 선명상과 교육, 학교 교과과정 반영 등 대한민국과 국제사회의 현안을 주제로 선정해 선명상의 효과와 기법을 설명하고 토론하는 국제 컨퍼런스다. 한국불교 총본산 조계사와 선명상을 접목한 국화축제 등 문화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5월~9월에는 지역에서 국제선명상대회가 실시된다. 인천과 경기, 강원, 충청,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호남, 제주 등에서 권역별 주요사찰을 선정해 총 8개 사찰에서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선명상 체험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선명상은 총무원장이 되기 전부터 생각해 왔던 것"이라면서 "개인적으로 선명상이 포교 전법의 마지막 길이 아닌가 하는 사명을 갖고 있다. 앞으로 인류는 정신 혁명의 시대로 각 개인이 가진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선명상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 바람"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원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쉽게 선명상에 접근하고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주길 간절히 바란다"면서 "재임기간 안에 선명상이 뿌리 내려, 선명상이 불교 중흥의 바탕이 되고, 이를 통해 모든 사람이 불교를 좋아하고 불자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조계종은 2월 15일 광주 무각사 지장전의 영단에 희생자 영정 30분, 위패 43분을 모시고 합동 49재 천도의식을 봉행했다. 사진은 영단 앞에서 천도 의식이 진행되는 모습.

제주항공 참사 희생자 49재…"영가 극락왕생"

2월 15일 광주 무각사 지장전서
조계종 주최, 호남 교구본사 동참
영가 극락왕생, 유가족 치유 발원

진우 스님 "업장 소멸 후 돌아와
봄 맞이하고 영생의 꽃 피워주길"
비구니회도 14일 천도재로 추모

지난해 12월 29일, 제주항공 여객기가 활주로 사고로 전소하며 탑승자 181명 중 179명이 유명을 달리했다. 국내에서 발발한 항공사고 중 가장 많은 인명을 잃은 안타까운 사고로 전국적인 애도 물결이 흘렀다. 참사 이후 애도문을 발표하며 물적, 인적 지원을 아끼지 않은 조계종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들을 위한 합동 49재를 봉행했다.

조계종(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2월 15일 광주 무각사(주지 청학 스님) 지장전의 영단에 희생자 영정 30분, 위패 43분을 모시고 합동 49재 천도의식을 봉행했다. 현장에는 호남지역 6개 교구본사(금산사, 백양사, 화엄사, 송광사, 대흥사, 선운사)가 동참해 희생자의 극락왕생과 유가족의 치유를 발원했다.

천도의식은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지몽 스님) 고금 스님이 사회를 맡아 조계종 어산종장 덕림 스님이 집전했다. △추모의 타종 5타 △대령 △관욕 △상단불공(천수바라무, 나비무, 화청) △추모사(총무원장 진우 스님) △화엄시식(헌향, 헌화, 헌다) △소전의식 △유가족 인사 등으로 이어졌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총무부장 성화 스님이 대독한 추모사를 통해 "지난해 12월 29일 오전 8시 54분은 하늘과 땅 위 모든 이들이 함께 슬픔에 젖은 날"이라며 "시간이 지나도 황망하게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족들은 슬픔을 덮을 수도 없었고, 일상의 행복은 감히 누릴 수도 없었을 것"이라고 유족들을 위로했다.

이어 스님은 영가들을 위해 "태어나는 것은 허공에 한 조각 구름이 일어나는 것과 같고, 죽는 것은 한 조각 구름이 사라지는 것과 같다"면서 "이제 허망하고 덧없는 육신의 꺼풀을 벗어버렸으니 금강석처럼 견고해 무너지지 않는 본래 성품이 무엇인지 살피고, 생전 업장을 모두 소멸하길 바란다"고 추모했다.

무각사 주지 청학 스님은 극락왕생 발원문에서 "희생영가들은 오늘의 인연공덕을 바탕으로 생전에 못한 공덕이 원만해지고 지은 허물 모두 소멸해 극락정토에 왕생하길 기원한다"고 서원했다.

유가족을 대표한 김무오 영가의 누나 김샤리 씨는 "누나를 비롯한 사랑했던 사람들이 많이 울더라도 너를 위함이니 엄마가 먼저 갔던 그 길로 잘 가라"며 "항상 웃고 사람 잘 챙기며 여행을 좋아했던 동생이 엄마를 먼저 만나러 여행을 간다고 생각하고 잘 견뎌보겠다"고 전했다. 이어 김 씨는 "희생된 모든 이들이 고통없고 아픔없는 곳으로 훨훨 날아가 극락왕생하길 바라고 또 바란다"고 발원했다.

정치권에서도 추모 인사를 전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대신해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제주항공 참사의 진상을 제대로 밝혀 다시는 이런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 후속 대책을 마련하겠다"면서 "유가족들이 일상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온 마음을 다해 돕겠다"고 다짐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대신한 김정현 광주시 당 위원장은 "참사의 진상과 원인 규명을 거쳐 우리 곁의 소중한 사람들이 더 이상 떠나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다.

49재 천도의식은 희생자들의 위패와 영정사진을 태우는 소전의식으로 마무리됐다. 소대의 영단에 위패와 영정을 둔 사부대중은 "나무아미타불"을 정근하며 영가에게 극락세계로 가는 길을 안내했다. 위패와 영정사진, 유품 등은 소대 위에서 사라지며 이생과의 연을 마쳤다.

하루 전날인 2월 14일 조계종 전국비구니회(회장 광용 스님)도 서울 법룡사 만불전에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천도재'를 봉행했다. 천도재는 어산종장이자 중요무형문화유산 영산재 이수자 동환 스님의 집전으로 이뤄졌다.

스님은 염불과 천도의식으로 고인들의 해탈을 기원했고, 의식이 진행되는 동안 스님과 불자들은 영단에 향을 올리며 희생자들의 편안한 안식을 간절히 기도했다. 국가무형문화유산 태평무 이수자 강준영 무용가도 살풀이춤으로 애도의 마음을 전했다.

광용 스님은 "같은 국민을, 같은 동체를 떠나버렸다는 것이 슬프지만, 부처님 염불 공덕으로 희생자들을 품어 바른길로 인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영원할 것 같던 내 몸은 무상하고, 의식체계도 허공과 같다. 극락에 이르는 길은 그대의 마음 속에 있으며, 그 길은 만 갈래로 가득 차 있다"며 "희생자들이 고통없는 극락세계로 나아가고, 나고 죽음이 없는 평안하고 안락한 천상에 이르길 발원한다"고 말했다.

김내영 기자 ·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2025학년도 금정총림 범어사 승가대학 신입생 및 편입생 모집

화엄 종주 의상조사의 창건 이념을 계승한 「화엄경」사상과 경허선사께서 오래 주석 하시면서 비롯된 선풍을 계승한 범어사 승가대학에서는 2025학년도 신입생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모집대상_ 사미, 비구
■ 모집기간_ ~ 2025년 3월 31일까지 (※사전 우편접수 및 방문접수 가능)
■ 제출서류_ 1) 입방지원서 및 신상명세서(본 승가대학 소정양식)
2) 서약서 (본 승가대학 소정양식)
3) 건강진단서 (종합병원 *2025년 사미계 수지자는 생략 가능)
4) 사미증 사본
5) 사진(만의복장, 3×4규격) -3장
■ 준 비 물_ 만의(사미), 장삼
■ 전 형_ 서류심사, 면접(추후 개별 연락)



■ 특 전_
● 강의교재 구입비 및 신입생 최신형 아이패드 지원
● 졸업여행 인도 부처님 성지순례 지원(약 10일) 또는 해외연수비용 지원
● 신입생 입학금 면제, 신입생 및 편입생 매월 최고 수준의 수행비 지원
● 화엄경 특강(화엄경 연구원 대강백 무비큰스님) 및 선지식분들의 특별법문 참여가능
● 학습시간 및 여가시간 보장
● 전학년 경전 강의 및 영어 수업, 염불 수업 진행
● 동국대 병원 MOU체결, 병원비 약품비 지원
● 강원 스타렉스 차량 지원
● 안거 반철 부산지역 사찰순례 지원
● 생활에 필요한 기본 용품 지원
● 부산 도심의 접근성 용이(관공서 및 병원 등)
-셔틀버스 운행 -시내버스 이용 -강원 차량 이용

■ 원서교부 및 접수_ 범어사승가대학 051)508-3127, 종무소 051)508-3122

대한불교조계종 범어사승가대학
방장 여산정여 대종사 · 주지 정오 · 학장 도산

70돌 중앙신도회, 국민 행복 '불자대회' 연다

2월 18일 28대 1차 대의원총회
9~10월 전국 불자 한 자리 결집

선명상 등 한국불교 대중화 나서
70년 역사 톺아보는 기념식 개최
선명상 대중화·청년 포교 활성화
올 신년 사업계획안도 함께 발표

김민재 기자 madeye9711@hyunbul.com


조계종 중앙신도회는 2월 18일 '제28대 1차 대의원총회'를 열고 주요 안건들을 의결했다. 사진은 안건을 의결하는 정원주 중앙신도회장.

조계종 중앙신도회가 올해 창립 70주년을 맞아 전국의 불자들을 한 자리에 결집, 국민 행복을 기원하고 한국불교 대중화를 견인할 '불자대회'를 연다.

조계종 중앙신도회(회장 정원주)는 2월 18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제28대 1차 대의원총회'를 열고 주요 안건들을 의결했다. 주요 안건으로는 △70주년기념사업준비위원회 회의결과 보고의 건 △2025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의 건 △기타안건 등 총 9건의 안건이 상정·가결됐다.

중앙신도회는 오는 9~10월 광화문광장과 우정국로 일대에서 '중앙신도회 창립70주년 불자대회(가칭, 이하 불자대회)'를 개최한다. 70주년기념사업준비위원회(준비위원장 김학규, 직할교구신도회장) 회의결과 보고의 건에 따르면, 국고지원 사회 공헌 사업인 행복바라미 문화대축전과 연계한 이 대회는 전국에서 모인 불자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한국불교의 위상을 끌어올리고 국민 마음 평안을 도모하기 위해 기획됐다. 대회에서는 선명상 수행 실천, 108배 정진, 금강경 독송 정진 등 수행 위주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70주년 기념식'도 올해 5월 12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다. 기념식은 중앙신도회 70년의 역사를 톺아보고 혼란스러운 정국 속 국민통합을 기원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종단 교역직 스님, 국회의원, 타종단·이웃종교 지도자 등 7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김학규 준비위원장은 "기념식에는 70주년 활동 보고 및 비전선포식과 국민통합 실천 퍼포먼스 등이 열릴 예정"이라며 "불자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한국불교의 사회적 역할을 확대하는 여법한 자리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2025년 신년 사업계획안도 확정됐다. △선명상 대중화 △열암곡 마애부처님 바로 모시기 △청년불자 포교 △불교 사회공동선 구현이 주요 사업으로 제시됐다. 특히 중앙신도회는 종단 주력 사업인 '선명상 대중화'를 위해 지역 교구신도회 중심으로 체계적인 선명상 콘텐츠 보급 및 확산을 추진한다. 선명상 세미나, 템플스테이는 물론 포교원이 개발한 순례길 코스를 활용한 수행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이다.

청년 포교 확대에도 적극 나선다. 중앙신도회는 대불련, 대불청 등 청년 신도조직과 함께 '청년 불자 포교 활성화를 위한 TF팀'을 구성, 청년 불자 현황 파악과 효과적인 포교방안을 모색한다.

앞서 정원주 회장은 인사말에서 "올해 중앙신도회가 창립 70주년이라는 역사적 순간을 맞이하게 됐다. 이에 '70주년 특별준비위원회'를 구성해 기념식과 행사를 여법하게 진행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며 "또한 청년 포교, '열암곡 마애부처님 바로 모시기' 등 올해 주요 사업을 강단있게 추진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제28대 집행부의 고문, 지도위원이 위촉됐다. 상임고문에는 김의정, 이기흥 씨가, 고문에는 강창일 외 18명, 지도위원에는 강민국 외 70명이 위촉됐다.

조계종 종헌종법특위, '총림법' 개정 추진

추천직 임회위원 대신 선출직으로
방장스님 권한 축소 우려 목소리도



추천직 총림 임회위원 대신 교구종회에서 임원을 선출하고 총림 주지 추천도 임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총림법 개정안'이 논의에 올랐다. 법이 개정되면 총림 방장스님의 권한이 축소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조계종 중앙종회 종헌개정및종법제개정 특별위원회는 2월 18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분과회의실에서 제6차 회의를 개최하고 총림 추천직 임회의원을 선출직으로, 임회 관장사항을 변경하는 등의 총림법 개정안을 논의했다.〈사진〉

현행 총림법에 따르면 총림의 여법한 운영을 위해 당연직위원과 추천직위원으로 구성하는 임회를 둔다. 개정안에는 추천직위원 대신 선출직위원으로의 변경이 담겼다. 이와 함께 현행 주지가 추천한 국장급 이상의 교역직종무원 3인을 삭제한다. 대신 선출직 임회위원은 교구종회에서 선출한 법계 종덕 이상의 재적승 13인으로 한다고 개정한다.

임회의 관장 사항을 '심의'에서 '심의 의결'로 확대하는 방안도 개정안에 담겼다. 총림의 주지 추천을 비롯해 예결산, 회칙(정규) 제개정, 중요한 불사 또는 사업 계획, 재산처분과 운영 등을 임회에서 심의가 아닌 의결하도록 하는 것이다.

'총림법 개정안'을 제안한 선광 스님은 "현행 총림법에 따라 임회를 구성할 경우, 방장스님의 성향에 영향을 받는 위원이 과반수를 넘게 돼 총림운영이 합리적으로 운영되기 힘들다"면서 "대중의 공의를 반영하고 균형과 견제를 위해 임회 위원 구성을 추천직에서 선출직으로 개정하고자 한다"고 제안했다.

개정안이 확정될 경우 방장스님이 임회 의결이 없으면 총림주지 추천을 행사할 수 없게 되고 권한이 상대적으로 축소될 수 있다. 이에 총림마다 특성이 다른 만큼 총림법 개정안은 총림 스님들과 먼저 논의한 다음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조계총림 송광사 중앙종회의원인 일화 스님은 "현재 종헌종법특위 위원 스님 중 총림에 속한 스님이 2명 밖에 없다. 총림 관련 부분을 섣불리 다루기 어렵다"면서 "각 총림마다 고유 분위기와 상황이 있는 만큼, 다른 총림의 종회의원 스님들과도 충분히 논의 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종헌특위는 개정안에 대해 총림에 속한 종회의원스님들의 의견을 수렴해 추후 재논의키로 했다.

7차 회의는 3월 4일 오후 3시 열린다. 임은호 기자

화엄사 주지 선출을 위한 산중총회 개최

3월 20일 오후 1시 화엄원

제19교구 본사 화엄사(주지 덕문 스님)가 본사 주지 후보자 선출을 위한 산중총회를 3월 20일 오후 1시 경내 화엄원에서 개최한다.

후보자 등록은 3월 8일부터 3월 10일 오후 5시까지 교구 선관위(화엄사 종무소)에 접수하며, 겸직 금지에 해당하는 종무직을 가진 경우 3월 7일까지 해당 종무직을 사직해야 한다. 거주승 신고 기간은 2월 25일부터 3월 3일까지다.

본사 주지 입후보 자격은 법계 종덕 이상, 연령 만 70세 미만의 비구 중에서 △중앙종무기관 부·실장급 이상 종무원 2년 이상 재직 경력 △말사 주지 8년 이상 재직 경력 △중앙종회의원 4년 이상 재직 경력 △교구본사 국장급 이상 종무원 4년 이상 재직 경력 △선원법에 의해 규정된 전문선원에서 20안거 이상 성만 △교육법 47조에 해당하는 교육기관 교육교역자로 10년 이상 재직하는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충청 답사로 사찰 유물 소유권 확보 나선다

매장특위, 1차 회의 활동 논의

조계종 사찰 소유 토지에서 유물이 발견됐을 경우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는 '조계종 중앙종회 사찰매장문화재관리를위한 특별위원회(매장문화재특위)'가 올해는 충청지역을 시작으로 활동을 시작한다.

제18대 중앙종회 후반기 매장문화재특위(위원장 호암 스님)는 2월 17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분과회의실에서 제1차 회의를 열고 전반기 활동 성과와 향후 활동 계획을 논의했다.

위원장 호암 스님은 "땅속에서 오랜 세월을 보내다 발굴된 각종 성보가 소유권 문제를 이유로 다시 수장고로 들어가야 하는 실정"이라며 "사찰에서 나온 유물은 해당 사찰 또는 인근 사찰로 돌아가 예경의 대상으로 존중받아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매장문화재특위는 올해 충청지역을 현장 답사하고, 사찰에서 출토된 불상을 중심으로 본래 역할을 되찾을 수 있도록 그 가치와 중요성을 확인할 방침이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관련 법 제정의 기반 마련에도 힘쓸 계획이다.

매장문화재특위는 전반기에도 사찰 문화유산 환수를 위한 실태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지난해 7월 8~9일 양주 회암사지, 양양 진전사지, 국립춘천박물관을 답사하며 사지(寺址) 출토 유물 현황을 점검했다. 특히, 양양군이 관리하는 도의국사탑의 경우 운영의 비효율성이 지적됐다. 이에 따라 도의국사탑을 진전사가 직접 관리하는 방안을 양양군과 적극 협의할 예정이다. 김내영 기자

조계종 직할교구, 2025년 사업 예산 확정

진우 스님 "역동적 불교" 당부

조계종 직할교구 불기2569(2025)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이 확정됐다.

조계종 직할교구는 2월 19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 공연장에서 제1차 직할교구종회를 개최했다. 이날 직할교구는 △불기 2568(2024)년도 직할교구 사업보고 및 결산 심의의 건 △불기 2569(2025)년도 직할교구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의 건 △직할교구 상임위원 선출의 건 등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올해 직할교구 예산은 분담금회계 예산 18억8220만원, 경상회계 예산 4억2065만원, 특별회계 예산 38억4355만원으로 확정됐다.

회의에 앞서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개회사를 통해 "유기적이고 신속한 행정으로 현장의 민원을 적극 해결하고 신도들과 함께하는 역동적인 불교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젊은 세대와 함께하는 국제불교박람회, 마음의 평안을 찾는 국제선명상대회,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연등회가 열리는 4월부터 5월까지 '불교의 달'로 지정해 종단의 역량을 총결집해 한국불교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할 것"이라며 "아울러 지난해 국민 행복을 위해 종단이 제안했던 선명상 대중화를 위해 국민운동으로 확대 보급하겠다"고 강조했다.

신중일 기자

대한불교조계종 인증
승려연수과정

2025년 승려연수교육

현대인을 위한 생활 수행과 포교

▶ 생활수행과 현대적 포교방안
• 화엄세계 : 수행과 담선
• 생활 속의 마음공부 – 치유와 공감
• 현대적 생활 수행과 포교 방안
• 커뮤니케이션과 포교
• 대승기신론과 한마음

*지금 바로 신청해 주세요!
소중한 인연에 감사합니다.

▶ 연수 개요
• 연수인증 : 조계종승려연수과정 (30점)
• 기 간 : 2024년 7월 17일(수) ~ 19일(금) (2박 3일)
• 장 소 : 경주 황룡원 (경북 경주시 엑스포로 40)
• 강 사 진 : 승단 전문강사진 – 청동스님 (동국대 불교학 박사 수료) 등
재 가 교 수 진 – 이화행 교수 (동명대), 황수경 교수 (동국대) 등
• 교 육 비 : 20만원 (국민은행 292-01-0033-316 (재)한마음선원 한마음과학원)
• 인 원 : 40명 (선착순 마감)
• 문 의 : 031-470-3200/3201 (일, 월 휴무)
• 웹사이트: http://hansi.org

QR코드를 스캔 하시면
바로 신청 접수 가능합니다.

(재)한마음선원
한마음과학원

군종교구, "군승 희망 동국대 학생, 출가 혜택"

동국대 불교학과 · 막학기 학생
행자 교육 축소, 취업계 도입
군불자 DB 시스템 확대 추진
장병 위한 '선명상 앱' 개발도

김민재 기자 madeye9711@hyunbul.com

조계종 군종특별교구가 군승 감소 극복을 위해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선다. 군승을 희망하는 동국대 불교학과 졸업생은 행자 교육 축소를, 동대 4학년 2학기 학생은 취업계 인정 제도를 도입해, 안정적인 군승 수급으로 군포교 활성화를 도모한다.

조계종 군종특별교구(교구장 법원 스님)는 2월 14일 서울 국방부 원광사 3층 접견실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2025년 군종특별교구 핵심사업'을 발표했다. 핵심사업에는 △군불자 관리 시스템 체계화 △군승 홍보 및 수급 △군 전법활동의 확산 △군종교구 운영시스템 안정화 총 4가지다.

이날 교구장 법원 스님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승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적 개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최근 출가자 감소의 여파가 군승 수급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군불교를 이끌 군승들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제도를 효율적으로 변경, 출가 문턱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법원 스님에 따르면, 군종특별교구는 군승 희망자에 한해 동국대 불교학과 졸업생은 행자 기간 6개월을 면제해 주고 바로 행자교육원 입방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학과와 상관없이 동국대 4학년 2학기 재학생은 취업계를 인정해 주는 제도도 마련한다.

군종특별교구는 이를 올해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종단의 출가장려특위와 종립학교인 동국대와 활발한 논의 중에 있다. 다만 혜택만 받고 군승으로 임관하지 않는 악용 사례에 대비해 대책 마련에도 만전을 기한다. 종립학교인 동국대를 졸업하고, 불교교리와 불교문화를 습득한 학생에게 문호를 적극 개방해, 군승 수급율을 끌어올리자는 게 스님의 설명이다.

이외에도 홍보국 신설, 군종병 연수, 불교박람회, 불교 종립 중·고등학생 선연프로그램과 밀리스테이 연계 등을 통해 다방면으로 군승 수급에 나선다.



조계종 군종특별교구장 법원 스님.

군종특별교구는 장성으로 거듭날 수 있는 영·위관급 불자 데이터 구축 및 관리에도 나선다. 군종특별교구는 2024년부터 군불자 관리 시스템을 추진해왔다. 데이터 구축 후 장성불자들과 지속적인 소통과 관리에 나선 결과, 2024년 초 20여 명에 불과했던 장성 불자가 현재 108명으로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에 올해도 육군교육사령부 자운사, 상무대 무각사, 학생군사학교 학림사, 각 군 사관학교 법당 등 장교 양성 교육부대 법당과 긴밀한 소통을 진행, 불자 장교 관리에 힘쓴다. 또한 준부사관·군무원·장병 불자까지 각 계층, 단위별 불자 관리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군장병을 불교로 유입시키기 위한 전법 활동도 강화한다. 군종특별교구는 2024년에 육군 전법 활성화에 힘썼다면, 올해는 해군 전법에 진력할 계획이다. 격무로 지친 군장병들을 위로하기 위해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진해 해군기지, 해군사관학교에 초청, '선명상 특강'을 개최한다. 또한 '통신 보안' 등 군내 불교문화 체험 프로그램 개발·확산을 추진하고, 종단 선명상 앱에 군장병 부문을 신설해 군 전법 활성화에 박차를 가한다.

특히 출범 20주년을 맞은 군종특별교구는 조직 안정화로 내실 다지기에도 진력한다.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군종특별교구법을 재정비하고 군종특별교구 상임위원 사찰의 정례화된 후원으로 교구 재정 규모를 안정화하고 확대한다. 더불어 군종특별교구 출범 20주년 행사는 군승의 날과 연계, 군종특별교구의 발자취를 톺아보고 군포교의 중요성을 홍보하는 자리로 진행된다. 또한 군종특별교구가 주관했던 '호국위령영령대재'를 종단 차원 행사로 격상, 호국불교의 의미를 되새기고 조직의 위상을 강화한다.



진우 스님과 대불련 소임자들이 기념 '셀카'를 찍으며 즐거워하고 있다. **사진제공=조계종**

"마음 평화 전하는 대학생 불자 되길"

진우 스님, 2월 17일 대불련 소임자 예방서 당부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주요 소임자들의 예방을 받고 "마음 평화를 주변에 전하는 대학생 불자로 거듭나달라"고 당부했다.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중앙회장 유주연, 이하 대불련)는 2월 17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했다.

진우 스님은 "수행으로 스스로의 마음을 조절할 수 있다는 점이 불교의 힘"이라며 "선명상으로 자신의 마음을 평안케 한 다음, 주변의 친구들에게 마음 평화를 전하는 '전법'에 힘을 기울여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각 대학마다 학생들이 대불련에 가입하게 하려면 전법 환경이 잘 조성되어야 한다"며 "지역사찰과의 연계, 종단적 차원의 지원으로 대불련 활동에 부족함이 없게 돕겠다"고 말했다.

유주연 63년차 대불련 중앙회장은 "'재미있는 불교, 즐거운 대불련'이 이번 대불련의 슬로건이다"면서 "누워서 명상할 수 있는 와선명상대회 등 법우들이 쉽고 재밌게 불교를 접할 수 있도록 더욱 고민하고 매진하겠다"고 화답했다.

김민재 기자

비구니회, 돌봄부터 장례까지 '입적토탈케어' 추진

전국비구니회원장 · 49재 봉행 등
승가공동체 결속 강화가 목표
"올 6월에는 본격 시행 가능"

노비구니 스님들이 수행자로서 마지막 순간까지 존엄을 지킬 수 있도록 돌봄부터 장례까지 지원하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한평생 수행과 전법에 매진해온 비구니 스님들이 승가공동체 안에서 편안한 임종을 맞을 수 있도록 돕겠다는 계획이다.

전국비구니회(회장 광용 스님)는 2월 19일 전국비구니회관 메따공연장에서 열린 제37차 운영위원회에서 취지문과 시행규칙(안)을 공유하고 '입적토탈케어 사업'의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실제 문중과 인연이 끊어지거나 상좌가 없이 홀로 수행하는 스님들의 경우 경제적·신체적 어려움으로 수행자로서의 위의를 지키기조차 쉽지 않은 현실에 놓여 있다. 생을 마감하는 순간조차 홀로 준비해야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때문에 노비구니 스님들의 수행과 임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전국비구니회는 2월 19일 제37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입적토탈케어 사업' 시행 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입적토탈케어 사업은 노비구니 스님들을 위한 종합 돌봄 지원 체계다. 시행규칙(안)에 따르면 △정기적인 생활 돌봄(전화·방문) △입적 시 '전국비구니회원장' 지원 △49재 봉행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를 통해 비구니 스님의 위의를 지키고, 승가공동체의 결속을 강화하는 것이 목표다.

입적토탈케어 대상은 요양원에서 지내거나 사찰에 홀로 거주하는 스님, 입적 관련 문제를 직접 해결하고자 하는 스님, 기금관리위원회에서 대상자로 선정된 스님들이 포함된다.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입적토탈케어기금'도 설치한다. 기금은 신청 당사자 기탁금과 스님 및 불자들의 후원금, 승려 유언장에 의한 자산 등으로 조성된다. 주요 사용처는 사업비, 사례비, 인건비로 명목으로 제한해 투명성을 높인다. 특히 기금 관리와 운영의 공정성을 위해 전국비구니회와 별도로 기금관리위원회를 구성해 관리할 예정이다.

회장 광용 스님은 취지문을 통해 "전국비구니회는 그동안 비구니 스님들이 인천의 사표로서 위의를 갖고 여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정진해 왔다"며 "비구니 스님들이 수행과 전법에 매진하면서 존중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이 사업이 성취되는데 많은 성원과 격려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비구니회 총회는 3월 20일로 예정됐다.

김내영 기자

탄자니아 보리가람 법인처장 선정 스님

"한국불교 지평 넓힐 것"



재단법인 아름다운동행 이사장 진우 스님(조계종 총무원장·사진)은 2월 20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아름다운동행 탄자니아 지부 법인처장에 선정 스님을 임명했다.

선정 스님은 3월 1일부터 △보리가람농업기술대학 운영 △초등학교 영양급식 지원 사업 'HAPPY CORN' △세종학당 △보리수아동센터 △보리사 사찰 운영 등의 소임을 맡는다. 올해 3월 12일 탄자니아로 떠나 현지 상황을 살필 계획이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많은 세계인들이 불교의 세계일화 정신을 알게 되는 시작점이 탄자니아가 될 수 있다"면서 "탄자니아가 아프리카의 불교 중심지로 거듭나게끔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선정 스님은 "처음 출가했을 때 마음가짐으로 정진하며 탄자니아 지부의 업무를 맡을 예정"이라며 "탄자니아 현지 법인 직원들의 도움을 받으며 아프리카 전법을 이끌어 한국불교의 지평을 넓히겠다"고 다짐했다.

무상 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선정 스님은 2013년 직지사에서 혜원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 2018년 성우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김가령 기자

대행선연구원 불교 학술 진흥사업 안내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부설 대행선연구원은 묘공당 대행 선사의 사상과 교화행을 이어받아 그 가르침을 널리 선양하기 위해 다양한 불교 학술 진흥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불교학 발전과 대행선 사상의 연구 진작을 위해 불교학 관련 연구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 및 서류 제출처
▶ 모든 서류는 E-mail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E-mail** : myogong@daehaeng.org
▶ **홈페이지** www.daehaeng.re.kr
▶ **전화** 031)470-3277
▶ **주소** (13908)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 1282-10 대행선연구원

제8회 묘공학술상 공모
- **공모분야** : - 한마음선원 및 대행 선사와 관련된 역사, 사상, 수행, 문화, 포교, 계율 등의 분야
  - 선학 또는 불교학과 관련된 역사, 사상, 수행, 문화, 포교, 계율 등의 분야
- **응모자격** : 선학 또는 불교학 및 불교 관련 박사학위 소지자
- **선정분야** : 대상 1명 / 1,000만원의 상금과 상패
  우수상 2명/ 각 700만원의 상금과 상패
- **공모기간** : **2025년 3월 1일(토)~31일(월)**

※ 공모 신청 방법과 일정은 대행선연구원 홈페이지 참고

제7회 묘공학술장학생 공모
- **응모자격** : 불교학 및 대행선 관련 주제를 연구하거나 논문(학위 논문 포함) 작성을 계획 중인 대학원 재학생(통합과정 포함) 및 박사과정 수료 후 3년 이내인 대학원생
- **선발인원** : 0명(스님은 별도 전형)
- **공모기간** : **2025년 3월 1일(토)~31일(월)**

※ 공모 신청 방법과 일정은 대행선연구원 홈페이지 참고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한마음연구』 원고모집
- **발간시기** : 연 2회(2월 28일, 8월31일)
- **투고분야** : - 한마음선원 및 대행선 관련 주제
  - 선학 또는 불교학 관련 주제
- **투고시기** : 연중 접수
- **투고자격** : 박사과정 이상의 선학, 불교학 및 불교 관련 인문학, 이공학, 의학 등의 연구자
- **투고방법** : 온라인 논문투고시스템에 회원가입 후 투고 (www.dbpiaone.com/dh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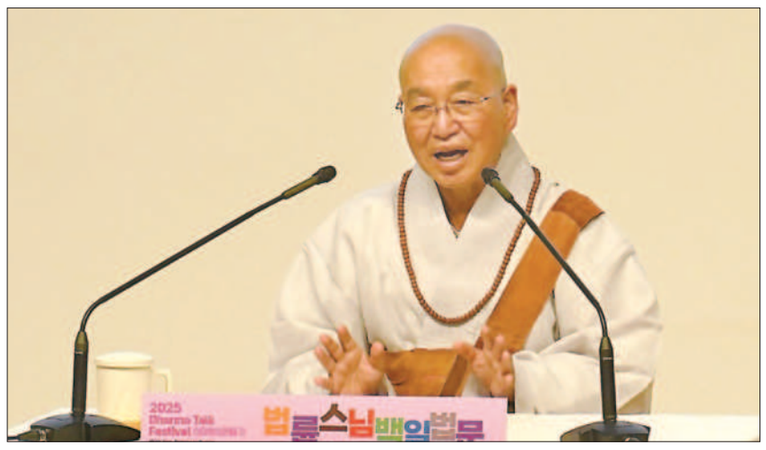
※『한마음연구』 논문투고 요령 및 심사규정은 대행선연구원 홈페이지 참고
※『한마음연구』 게재 완료시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합니다. 『한마음연구』는 연회비와 심사비, 게재료, 연구지원기관 표시비를 받지 않습니다.

대행선연구원

법륜 스님 백일법문 입재…“행복의 100일”

2월 16일, 정토사회문화회관서
2025년 ‘특별정진의 해’ 지정
첫 100일 ‘백일법문’으로 시작
경전, 수행법, 사회이슈 등 강의
“세상을 정화할 힘 얻어가길”

김가령 기자 gugoose66@hyunbul.com



불교 수행공동체 정토회가 2025년을 특별정진 기간으로 정하고 정토사회문화회관에서 100일간 개최하는 ‘법륜스님의 백일법문’이 2월 16일 입재를 맞았다. 사진은 입재법문 중인 법륜 스님.

“모든 정토행자, 불자, 그리고 의식 있는 시민 여러분. 세상이 어지럽고 힘들어도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어지러운 진흙에서 피어나는 연꽃처럼 아름답고 행복한 세상을 일구기 위한 100일간의 정진을 함께 해나가봅시다.”

불교 수행공동체 정토회(대표 전해종)가 2025년을 특별정진 기간으로 정하고 정토사회문화회관에서 100일간 개최하는 ‘법륜스님의 백일법문’이 2월 16일 입재를 맞았다. 이번 백일법문은 1차 만일결사를 회향한 정토회가 2025년 한해를 특별정진의 해로 정하고 2차 만일결사에 돌입하며 개최되는 첫 100일 정진법회다.

입재식에는 정토회 지도법사 법륜 스님과 정토회 특별정진·백일법문특별위원회 위원장 유수 스님을 비롯해 단기출가생과 정토회원 등 대중 1000여 명이 참석했다.

백일법문은 2월 17일부터 5월 31일까지 이어진다. 3월 9일까지는 본 강의에 앞선 열린법회가 예정돼 있다. 열린법회에서는 불·법·승 삼보의 예불문, 수행자의 참회수행법, 영가 천도의식, 소심경과 법성게 강의 등 예불의식, 경전과 수행 방법 등 다양한 주제를 아우르는 법문이 진행된다.

이후 본 강의에서는 매일 오전 9시 예불을 시작으로 매일 경전강의, 정토불교대학, 불교사회대학, 즉문즉설, 1080배 정진, 명상 등의 프로그램이 이어진다. 정토불교대학은 불교 입문자들을 대상으로 한 과정으로 오전과 저녁 시간에 불교 기초 상식을 강의한다. 불교사회대학은 인공지능, 종교갈등, 기후위기 등 사회사안을 불교적 관점에서 바라본 해석과 법륜 스님의 실천불교 경험을 전한다.

입재법문에서 정토회 지도법사이자 (재)평화재단 이사장 법륜 스님은 2025년을 특별정진으로 정한 이유가 혼란스러운 미래를 대비하는 개인의 능력을 키우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법륜 스님은 “미래에 대해 불확실성이 커지면 예측이 곤란해져 저절로 혼란스러움을 느끼게 된다”며 “혼란스러운 마음을 안정시키고, 불안정한 미래를 대비해 행복을 일굴 수 있는 내적 능력을 키우고자 2025년을 특별정진의 해로 정하고 첫 100일 동안 백일법문을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법륜 스님은 “이번 백일법문에서는 ‘불교사회대학’이 생겨 AI 등 사회에서 화두로 떠오르는 것들을 불교적 관점에서 어떻게 볼 수 있는지 알아갈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어떻게 세상을 바라봐야 하는지, 내 마음은 어떻게 다스릴 수 있는지 힌트를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마무리에서 스님은 “이번 백일법문을 통해 정토회원뿐만 아니라 많은 불자와 시민들이 내 마음을 정화시키며 행복으로 세상을 정화시킬 힘을 키울 수 있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정토회 특별정진·백일법문특별위원회 위원장 유수 스님은 백일법문의 의의를 짚었다. 유수 스님은 “이번 백일법문은 정토회원은 물론, 한국과 전 세계의 시민들이 괴로움에서 벗어나 행복한 사람이 돼 세상에 보탬이 되는 삶을 일궈나가길 기원하며 열린다”면서 “많은 사람들이 100일간의 여정을 거치며 우리 사회와 지구, 인류의 삶에 도움을 베풀 수 있는 첫걸음을 뗄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조미라 특별정진위원회 경전강의 팀장이 대표로 대중 발원문을 낭독했다. 대중은 “백일 동안 이어지는 법륜 스님의 법문이 고뇌하는 이들의 희망이 되길 발원한다”고 서원했다.

신임 동국대 의료원장에 이해원 교수 선임

제359회 이사회서 만장일치로…신임 감사엔 이재석 회계사



동국대 의료원장에 이해원 동국대 일산병원 비뇨의학과 교수〈사진〉가 선임됐다.

학교법인 동국대(이사장 돈관 스님)는 2월 18일 본관 로터스홀에서 제359회 이사회를 열고 신임 의료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하고 이해원 교수의 선임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이해원 교수는 서울대 의과대학을 졸업했으며, 서울대 의과대학 대학원에서 의학 석·박사를 취득했다. 서울대병원 비교기과 전공의·전임의 과정을 수료했으며 단국대병원에서 조교수를 역임했다.

2005년 4월 동국대 의과대학 및 동국대 일산병원 부교수로 부임한 이래 동국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육부학장, 동국대 의료원 기획처장, 동국대 일산병원장을 지냈다.

신임 의료원장 선임 후 이사장 돈관 스님은 정년퇴임을 맞은 채석래 의료원장에게 공로패와 꽃다발을 전달했다.

채석래 의료원장은 “지난해 의료대란으로 인해 레지던트들이 100명이 사직하고, 학생 300명이 이탈해 동국대 의료원이 많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소임을 내려놓게 돼 마음이 무겁다”면서 “새로 오시는 이해원 의료원장이 능력이 출중하신 만큼 동국대 의료원을 더 잘 이끌어 주실 것이라 믿는다. 이사장스님과 이사님들이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사회는 5월 12일 임기가 만료되는 김정훈 감사의 후임으로 이재석 신한회계법인 이사를 선임했으며, 임기 만료 예정인 전수미·손강숙·강소연 징계위원회 외부위원의 후임으로 한샘이 법률사무소 세호 대표변호사·이영숙 전 동국대 사범대학 부속 중학교 교장·김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이버조사과장을 각각 선임했다.

또한 이사회는 안건으로 상정된 △교원 인사에 관한 사항 △2024회계연도 법인산하학교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에 관한 사항 △2025회계연도 각 급기관 예산(안) 승인에 관한 사항 △학과·대학 신설과 폐지 및 학생정원 조정에 관한 사항 △불용자산 폐기 승인에 관한 사항 △의료미수금 대손상각 승인에 관한 사항 등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안건 의결에 앞서 이사회는 로터스관 신축사업 변경 추진 계획과 2024학년도 WISE캠퍼스 기금 모금 현황을 보고 받았다.

이사장 돈관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절기로는 우수인데, 이 시기의 학교는 졸업식과 입학식으로 분주한 시기다. 방학 동안에도 불교동아리 확대와 내실화를 위해 각 캠퍼스 총장과 지도법사, 지도교수들이 많은 노력을 해왔다”며 “새 학기부터는 전법특임교수 제도가 신설된다. 대학생 전법의 새로운 활력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신중일 기자

종로노인종합복지관, 전 세대가 함께 한 ‘장 담그는 날’

‘종로&장금이 장독분양사업’
어린이, 청·장년 등 40여 명 참여
전통장 강의, 장 담그기 체험 ‘다양’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산하 종로노인종합복지관은 2월 18일, 관내에서 ‘장독분양사업, 장 담그는 날’을 개최했다. 이날 체험행사에는 남녀노소 40여 명의 장금이들이 참여했다.

지난해 12월 한국의 ‘장(醬) 담그기’가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되며 ‘장’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커졌다. 이에 종로노인종합복지관이 매년 인기리에 개최하는 ‘종로&장금이 장독분양사업’도 다시금 주목받았다. 올해 개최된 장독분양사업에는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다양한 세대가 어우러져 장을 담가 훈훈한 모습을 보여줬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산하 종로노인종합복지관(관장 정관 스님)은 2월 18일, 관내에서 ‘장독분양사업, 장 담그는 날’을 개최했다. 이날 체험행사에는 남녀노소 40여 명의 장금이들이 참여했다.

장 만들기 체험에 앞서 관내 4층 강당에서는 ‘전통 장 강의’가 진행됐다. 종로노인종합복지관 관장 정관 스님이 직접 연사로 나서 참여자들에게 장이 가진 의미와 좋은 재료 고르는 법, 주의사항 등을 설명했다.

이날 스님은 “2018년에 ‘장 담그기’가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되며 더욱 많은 이들에게 나누고자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한 장독분양사업의 문을 열었다”면서 “지난해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되며 ‘장 담그기’의 의미가 커져 앞으로도 활발하게 사업을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강의를 마친 뒤, 참가자들은 5층 장마당으로 이동해 본격적인 장 담그기를 시작했다. 조별로 배정받은 장독과 메주 앞에 선 참가자들은 설렘 반, 긴장 반의 얼굴로 위생모와 위생장갑을 착용했다. 혜화어린이집에서 온 어린이들은 메주와 재료들을 보며 “이 벽돌이 먹는 거예요?” “이 메주가 더 예쁘게 생겼어요” 등 저마다 한마디씩 소감을 남겼다.

참가자들의 장 담그기에 앞서 선배 장금이들의 장 담그기 시연도 진행됐다. 김홍덕 1세대 장금이와 박수빈 2세대 장금이는 순서에 맞춰 장독을 닦는 법, 재료를 넣는 법 등을 설명했다. 시연을 마친 뒤에는 ‘장 담그기’가 가진 의식의 의미와 역사성을 되새기는 명상이 진행됐다.

이후 진행된 장 담그기 체험에서 참가자들은 정성스럽게 닦은 장독에 메주를 짜임새 있게 넣고 그 위에 소금물을 부었다. 마침내 모든 팀들이 고추와 숯 등 띄움재료를 넣고 뚜껑을 봉하면서 마무리 짓자 박수들이 터져나왔다.

할머니와 할아버지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장을 담근 백지원(11, 서울제동초) 어린이는 “된장 하나를 위해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걸 알게 돼 앞으로 어른들이 만들어주는 음식을 잘 먹을 수 있을 것 같다”면서 “오늘 체험한 장 담그기 행사를 친구들에게 어서 빨리 자랑하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가령 기자

육사 졸업 법회, “호국불교 전통 이을 것”

2월 17일 화랑호국사서



4년간의 학업과 훈련을 회향하고 장교의 길로 나아가는 육군사관학교 불자 생도들이 호국불교의 정신으로 국가를 수호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육군사관학교 화랑호국사(주지 현혜 권기태 법사)가 2월 17일 경내 화랑호국선원에서 ‘육군사관학교 제81기 졸업 및 임관 축하법회’를 봉행했다.〈사진〉 이날 법회에는 제25교구본사 봉선사 교구장 호산 스님, 군종특별교구장 법원 스님, 진각종 포교부장 원영 정사, 우경석 군국불교총신도회 사무총장, 이영주 국군예비역불자연합회장을 비롯해 육군사관학교 불자 생도 60여 명이 동참했다.

이날 법석에 오른 호산 스님은 법문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혼돈과 혼란의 세계를 불교에서는 ‘사바세계’라고 하고, 더 깊게 들어가면 부처님 가르침이 열여진 말법시대라고 한다”며 “사바세계, 그것도 말법시대에 우리가 평안하게 살아가려면 잠시 생각을 내려놓고 쉴 수 있는 ‘멈춤의 미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스님은 “상월결사 인도 성지순례 당시, 많은 고초가 있었다. 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순례를 여법하게 회향했다”며 “군인정신도 마찬가지다. 지휘관이 될 여러분들은 앞으로 자신의 마음을 돌아볼 수 있는 수행을 통해 무엇이든 포기하지 않는 정신을 갖추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민재 기자

20돌 ‘달마배 스노보드’, 청소년 캠프로

2월 12~14일, 평창 용평스키장



스노보드 국가대표를 대거 양성한 ‘달마배 스노보드대회’가 올해는 주니어 선수들의 꿈을 응원하는 캠프를 개최했다.

사단법인 이웃을돕는사람들(대표 호산 스님·봉선사 주지)은 2월 12~14일 2박 3일간 평창 용평스키장에서 ‘제20회 달마배 스노보드대회’를 개최했다. 캠프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전국 초·중·고등학생 50여 명이 동참했다. 전 스노보드 국가대표를 비롯해 프로 선수들의 지도를 받으며 실력을 훌쩍 향상시키는 시간을 가졌다.

벌써 올해로 20회를 맞은 달마배 스노보드대회는 스노보드 유망주 발굴과 함께 청년 포교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며 스포츠 포교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는 평가다.

달마배 스노보드대회를 이끌고 있는 봉선사 주지 호산 스님은 대회에 대해 “국가대표 스노보드 선수 중 대다수가 불자가 되는 스포츠 포교의 롤모델”이라며 “주니어 선수들이 선배선수들과 함께하며 실력도 늘고 불심도 생기며 불교와 더욱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은호 기자

불교환경연대, 2025년 정기총회 개최

2월 19일, 관내 교육장서

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법만 스님)는 2월 19일 관내 교육장에서 ‘불교환경연대 2025년 정기총회’를 개최, 올해 사업 계획을 공유하고 예산안을 승인했다.

불교환경연대는 올해 사업을 △생명살림 △소욕지족 △기후·에너지 전환 세 부문으로 나눠 진행한다. 생명 가치 확산을 위한 ‘생명살림’ 사업에는 환경보살 1000인 조직화, 4대강 생명살림순례(낙동강), 생태방생운동, 숲해설가 교육, 어린이 생태프로그램 운영 등이 계획됐다.

순환하는 생활양식을 일구는 ‘소욕지족’ 사업은 ‘녹색도량 실천운동’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지난해 하반기까지 66개의 사찰이 녹색사찰 협약을 맺었는데, 불교환경연대는 이 협약을 세간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복지관, 어린이집 등 시설들을 ‘녹색도량’으로 지정해 불교환경연대 주도의 환경 사업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기후·에너지 전환’ 사업 부문에서는 기후 위기와 에너지 사용 담론 확장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종단 간담회 등이 진행된다. 이를 통해 불교계에서 에너지 인식을 깨우고 변화를 추동할 방침이다.

김가령 기자

아름다운동행·KB국민카드, 학용품 전달

2월 20일, 어린이 2124명에



재단법인 아름다운동행과 KB국민카드가 내달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저소득 가정 어린이 2124명에 책가방·학용품 세트를 선물했다.

김재관 KB국민카드 사장은 2월 20일 서울 한국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아름다운동행 이사장 진우 스님(조계종 총무원장)을 예방하고 ‘예비 초등학생 책가방 보내기, 너의 입학을 축하해’ 기금 2억원을 전달했다.

진우 스님은 “매년 아름다운동행을 통한 소외계층 돕기에 나서줘 감사하다”면서 “나눔을 실천하기 어려운 시절인 만큼 베풀어준 자비심이 더욱 귀하다. 아이들에게 잘 전해 기쁨을 나누겠다”고 전했다.

김 사장은 “더욱 많은 아이들에게 배우는 기쁨을 전하고 싶어 매년 책가방·학용품 세트 선물 사업을 진행중”이라며 “아름다운동행과 함께하는 ‘책가방 보내기’ 사업은 KB국민카드에서 하는 가장 큰 사업인 만큼 앞으로도 더욱 활발히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선물 세트는 이달 중 복지관 등을 통해 지역 저소득 가정 어린이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김가령 기자

“부처님 자비·나눔 가치 세계 알리겠다”

생명나눔, 새로운 시작

2. 일면 스님 국제구호 후원 권선문

생명나눔, 지난해 이어 국제구호
캄보디아 20억 상당 물품 지원
의료 · 복지 실천으로 복 쌓아
세계시민 후원의 디딤돌 돼주길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일면 스님은 “생명나눔 가치가 사회 구석구석 퍼질 수 있도록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이웃을 후원하는 디딤돌이 돼 줄 것”을 당부했다.

불교 유일 정부 지정 장기기증 희망등록 단체인 생명나눔실천본부는 지난해 창립 30주년은 맞아 국제구호활동의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2021년 ‘글로벌 생명나눔’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의료 인프라가 부족하고 의약품 접근이 어려운 국가를 대상으로 물품 지원 사업을 추진해 온 생명나눔실천본부는 지난해 캄보디아를 대상으로 20억 상당의 의료물품 지원 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했습니다. 4월 선적식에 이어 8월에는 현지에 직접 방문해 의료물품을 전달했고, 고아원 방문과 스님들 교육시설 등에서 다양한 자비나눔을 실시했습니다.

2022년 기준 1인당 국민소득이 1700달러 수준으로 저개발국에 속하는 캄보디아는 프랑스 식민 지배, 국민 3분의 1이 희생된 킬링필드 등 수십 년간 전쟁과 내란으로 힘든 시절을 보냈습니다. 내전과 학살로 300여만 명이 사망했고 지금 현재도 매설된 지뢰와 불발탄으로 장애를 얻거나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것은, 최근 몇 년 사이 빠른 경제성장률을 보이며 중하위 소득 국가로 성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픔이 서린 캄보디아 땅에 희망이 꿈틀대고 있습니다. 생명나눔실천본부가 캄보디아를 첫 국제구호활동 국가로 선정한 이유입니다.

2025년에는 국제구호활동을 더욱 확대하려고 합니다. 지난해 8월, 현지를 방문해 보육원 등을 방문하며 아동들의 생활 및 교육여건을 눈으로 직접 본 후, 아동 교육복지를 위한 지원을 서원했습니다. 이에 올해는 물품지원과 함께 문화 교류 프로그램도 신설합니다. 생명나눔실천본부 산하 단체인 마하무용단과 협력해 진행할 문화 교류 프로그램은 한국 전통무용 교육과 공연을 병행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전통문화를 전파하는 한편, 청소년 대상의 문화 교류 활동을 병행함으로써 나눔과 연대의 가치를 심화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지난해 8월, 캄보디아 쯔바몬 보육원에 노트북 등 후원물품을 전달했다.


캄보디아 따께오주와 교류 협력 활동을 위한 업무협약식 모습.

캄보디아는 근대 전쟁으로 고통을 겪었습니다. 한국 또한 1950년 한국전쟁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지만 국가와 국민들의 노력으로 지금은 선진국 반열에 올랐습니다. 우리는 부처님 일불제자로서 다 함께 세계평화에 기여하고 국민들의 평화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지난 31년간 생명나눔실천본부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 살리기와 생명나눔 홍보, 장기기증 희망등록 권선을 위해 달려왔습니다.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이 열악했던 시절, 많은 분들이 모인 장소라면 어디든지 달려갔고 생명나눔 문화 확산을 목표로 환자치료비 지원, 청소년 자살예방 교육, 불우이웃돕기 등을 전개하며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1200여 환자들에게 45억여 원의 치료비를 전달하며 부처님 자비를 실천해서 25만이 넘는 회원이 함께하는 불교계 유일한 최대 사회단체로 성장, 발전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따뜻한 배려와 도움의 손길이 있어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제는 해외로 눈을 돌려 어려움에 처한 세계 이웃에게 따뜻한 손길을 전달하려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후원이 절실합니다.

사회적 지위가 높고 가진 것이 많아야 이웃을 도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나눔실천본부의 후원자들은 실제로 경제적 형편이 넉넉하신 분들보다는 우리 주변의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돈이 많다고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부족한 가운데서도, 빠듯한 살림살이에서도 남을 도우며 복을 짓고 있습니다. 봉사활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많아 봉사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쁜 시간을 쪼개서 남을 위해 헌신하는 것입니다.

후원과 봉사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걸으셨던 자비심의 길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세존께서 설하신 이 보은경을 믿고, 알고, 실천하며 부모님께 효도하고 죄지은 자를 용서하고 사랑하며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한 나눔운동에 적극 동참해 주십시오. 다른 사람들을 위해 복을 많이 지으십시오. 복은 반드시 나 자신에게도 돌아올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나눔으로부터 희망이 만들어지고 그 희망으로부터 우리들은 행복해집니다. 행복한 사람은 또 다른 사람에게, 그리고 온 세상에 행복을 나눠주고 더해줍니다. 생명나눔으로 걸어온 행복 여정 31년. 미래의 31년도 희망찬 행복과 감동이 묻어나는 나눔을 세상에 전하겠습니다. 사회적 약자의 꺼져가는 희망불씨를 되살리는 활동에 함께해 주십시오. 마음을 후원해주십시오. 생명나눔의 가치가 사회 구석구석까지 퍼질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당신의 약속이 희망이 됩니다.
당신의 나눔이 기적이 됩니다.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이웃을 후원하는 디딤돌이 되어 주세요.

2025년에도 캄보디아 의료취약계층 지원 이어진다

4월 19일, 20억 상당 의료물품 선적
6월 9~14일 시엠립 현지 지원 활동

생명나눔실천본부는 2024년, 창립 30주년을 맞아 국내를 넘어 국외로까지 자비나눔을 실천하며 활용 영역을 넓혔다.

부처님 자비와 나눔의 가치를 세계에 알리겠다는 목표로 의료 인프라가 미흡한 국가들을 대상으로 의료물품을 지원한 것이다. 이에 생명나눔실천본부는 첫 국가로 캄보디아를 선정하고 지난해 4월, 글로벌생명나눔과 협업해 20억원 상당의 의료물품을 캄보디아에 전달했다.

캄보디아 의료물품 시장은 매우 작은 규모로, 제약산업 기반이 취약해 수요의 상당 부분을 수입품에 의존하고 있는 상태다. 캄보디아는 호흡기 질환과 혈액 내분비, 신생아 장애 등에 의한 비전염성 질병으로 인한 사망률이 매우 높은 상황으로 기본 의료물품 등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지만 조달이 원활하지 않아 특히 저소득층은 생명에 위협을 받는 상태로까지 치닫는 경우가 상당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생명나눔실천본부는 올해도 캄보디아 주민의 건강 증진과 의료 환경 개선을 목표로 20억원 상당의 의료물품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양국 간 인도적 협력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의료 지원 체계도 구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선적식은 4월 19일 오전 10시 30분, 안산 제1물류창고에서 진행된다.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일면 스님은 6월 중순, 캄보디아 시엠립주에 직접 방문해 이날 선적한 의료물품을 직접 인수받아 앙코르톰 구를 통해 지역주민에게 배포할 예정이다.

생명나눔실천본부는 앞으로 미얀마, 라오스, 우즈베키스탄 등 지원 대상 국가도 점차 늘려갈 계획이다. 또한 지속적인 의료 지원 체계가 빠른 시간 안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후원 프로그램도 병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사장 일면 스님은 “전쟁과 경제적 어려움 등 재난이 국가에 닥치게 되면 어린이, 청소년, 노약자 등 취약계층이 제일 먼저 고통을 받게 된다”면서 “국제적으로 어려운 국가에 부처님의 손길을 내밀겠다는 뜻으로 이번에 캄보디아에 의료물품을 지원하게 됐다. 앞으로도 세계일화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생명나눔실천본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캄보디아 의료취약계층을 지원한다. 4월 19일 선적식을 갖고 6월 9일 시엠립주를 방문, 물품을 직접 전달할 계획이다. 사진은 2024년 캄보디아에 전달될 의료물품을 선적하는 모습.



현대불교신문사 사단법인 생명나눔실천본부

2025 해외지원사업 공동 모금 캠페인

“스님, 저는 맘껏히 공부하고 싶어요”

농협은행 301-0110-2407-41 생명나눔실천본부

낡은 나무 책상 위, 고사리 손에 쥐어진 몽당연필
닮는 연필과 공책을 걱정하지 않고, 자유롭게 공부하고 싶은 아이들의 작은 소원
지금 우리가 내미는 작은 손길이 아이들에게 큰 희망이 될 것입니다.
자비로운 마음으로 아이들의 배움의 길을 함께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원 물품 학용품, 가방, 신발 등
후원 방법 계좌후원 (농협은행 301-0110-2407-41 생명나눔)
통화후원 (한통화 5천원 / 060-703-1133)
후원 문의 02-734-8059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 95 대성스카이렉스 101-406)

천진불들 합창, 佛都 부산 장엄하다

2월 16일 제6회 천진불어린이연합합창제

다채로운 무대로 관객 매료
전국 13개 합창단으로 참가
아이들 맑은 울림 극장 채워
찬불가 합창 통한 포교 눈길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천진불어린이합창단연합회는 2월 16일 부산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에서 '제6회 천진불어린이연합합창제'를 개최했다.

천진불이 부르는 아름다운 화음의 찬불가가 포교의 결실이 되어 울려 퍼졌다.

천진불어린이합창단연합회(회장 영산 스님)는 2월 16일 부산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에서 '제6회 천진불어린이연합합창제'를 개최했다.

불교음악을 통한 어린이·청소년 포교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이번 합창제는 올해 여섯 번째를 맞아 더욱 다채로운 무대로 관객들을 사로잡았다.

행사에는 총재 지현 스님(관음사 회주), BBS부산불교방송 이사장 수불 스님, BBS부산불교방송 사장 원허 스님, 사단법인 동련 이사장 정무 스님을 비롯해 동련 부총재 덕진 스님, 회장 영산 스님, 동련이사 신공 스님, 신제주불교대학 보리왓 주지 성원 스님, 황룡사 주지 황산 스님, 서암정사 주지 금산 스님 등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천진불어린이합창단연합회는 2016년 4개 어린이합창단이 모여 창립된 이후 현재 전국 사찰 소속 13개의 합창단이 활동 중이다. 불교의 가르침을 음악으로 배우고 전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 매년 연합합창제를 열어왔다. 이번 연합합창제에서는 부산, 울산, 제주, 경남 지역의 다양한 합창단이 참여해 더욱 풍성한 무대를 선보였다.

특히, 부산 관음사의 '선혜단이슬합창단', 제주 약천사의 '리틀붓다어린이합창단', 울산 황룡사의 '나모라어린이청소년합창단' 등 각 지역을 대표하는 어린이·청소년 합창단이 출연해 다양한 불교음악을 선보였다. 아이들의 순수한 목소리가 연극장을 가득 채우며, 참석자들에게 깊은 울림을 선사했다.

이날 합창제 주제는 '마음 다해 부르는 노래'로, 단원들은 '부처님 되자' '연꽃법당' '넌 나의 참 좋은 날' 등 찬불가를 부르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노래로 표현했다.

아울러 천진불어린이연합합창제에 참여한 사찰 및 후원 사찰 10곳에 감사 인증패를 수여했으며 최미선 사무국장에게 공로상을 수여해 격려했다.

총재 지현 스님은 격려사에서 "아이들은 때 묻지 않은 부처님이다. 그래서 천진불이라 한다"며 "천진불이 천진불답게 자라날 수 있도록 고운 심성과 올바른 정신을 심어주는 불사는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세상을 밝고 따뜻하게 마음을 맑고 향기롭게 가꾸어가는 대작불사"라고 강조했다.

천진불어린이합창단연합회 회장 영산 스님은 "올해로 여섯 번째 무대에 올려질 이번 합창제의 주제는 '마음 다해 부르는 노래'이다"며 "우리 어른들이 아이들을 위해 할 일은 아낌없는 사랑이며 지켜봐 주는 일이라는 생각한다. 우리 소중한 아이들을 지켜봐 주시고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 주시면 감사겠다"고 환영사를 전했다.

원허 스님은 축사에서 "저출산으로 인해 어린이와 청소년이 줄어들고 있는 현실에서 천진불 합창제는 더할 나위 없는 환희로운 법석이다. 오늘의 주인공이자 미래의 주역인 천진불들이 피워내는 미묘하고 청아한 소리는 세상을 맑히는 수청주와도 같다"며 "오늘 이 아이들의 순수한 음성은 한 송이의 연꽃이 되어 세상을 밝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자비와 평화의 씨앗을 심어주는 큰 울림이 되어주리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날 공연은 BBS부산불교방송을 비롯한 조계종 교육원 등 여러 단체의 후원으로 진행됐다. 대중공양과 자모회 후원금 등을 통해 마련된 무대는 아이들에게 값진 경험을 선사하며, 불자 가정과 지역 사회의 따뜻한 지지를 확인하는 시간이 됐다.

한편, 천진불어린이합창단연합회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더욱 다양한 연합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내년 제7회 합창제에서는 더욱 많은 합창단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고, 불교음악 경연대회 및 합창 캠프 등의 추가 프로그램을 추진할 예정이다.

"동국인 위상 품고 사회로 나아가길"

동국대 WISE캠퍼스 졸업식
2월 14일 100주년기념관서
총 1208명에게 학위 수여



동국대 WISE캠퍼스는 2월 14일 교내 100주년기념관 대강당에서 '2025년 봄 학위수여식'을 거행했다.

동국대 WISE캠퍼스(총장 류완하)는 2월 14일 교내 100주년기념관 대강당에서 '2025년 봄 학위수여식'을 거행했다.

이번 학위수여식에서는 학사 1136명, 석사 65명, 박사 7명 등 총 1208명이 학위를 받았다.

학위수여식은 개식, 삼귀의례, 국민의례, 학사보고, 식사, 치사, 환송사, 축사, 학위수여, 공로상 및 공로패 수여, 교가제창, 사홍서원 순으로 진행됐다.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장 돈관 스님은 치사를 통해 "사랑하는 졸업생 여러분은 이제 새로운 출발에 서 있으며, 동국인의 위상을 가슴에 품고 굴하지 않는 용기, 분노하지 않는 자의 식, 그리고 자신을 믿는 신념으로 앞으로 나아가길 바란다"며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우리 사회를 밝히는 등불이 되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격려했다.

류완하 동국대 WISE캠퍼스 총장은 환송사를 통해 "오늘의 졸업이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임을 항상 기억하고, 여러분은 동국대학교 WISE캠퍼스가 길러낸 자랑스러운 글로컬 인재로서 사회를 이끌어 가는 주도적 역할을 다해 주길 바란다"며 "동국대 WISE캠퍼스는 여러분의 자랑스러운 모교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재웅 동국대 총장은 졸업식사를 통해 "동국대 선배이신 만해 한용운 선생께서는 '다른 사람을 염려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청년들에게 하셨다. 동국인 여러분은 자기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 자기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다른 사람들까지 도와줄 수 있는 씩씩한 동국인이 되길 바란다"며 졸업생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문선배 동국대 총동창회장은 축사를 통해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는 여러분의 졸업을 축하하며, 개교 118주년의 역사와 전통, 35만 동문을 가진 동국대 출신이라는 자부심을 늘 가져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동국대 WISE캠퍼스는 학위수여식을 맞아 교내 곳곳에 포토존을 설치했으며, 졸업생들은 학위복을 입고 가족, 친구들과 기념사진을 찍으며 졸업의 기쁨을 나눴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업과 삶의 순환, 화폭에 담다

전등사 서운갤러리, 이유지 작가 개인전

3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예술 통한 치유 경험 공유
"선업 실천의 길 고민해보길"


루시드 드림2,162 X 130cm, 캔버스에 유화, 2023.

더 넓은 예술계로 도약을 꿈꾸는 청년작가들의 발판이 된 전등사 서운갤러리가 예술을 통한 치유를 만드는 이유지 작가의 개인전을 개최한다.

강화도 전등사(주지 여암 스님) 무설전 서운갤러리는 오는 3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이유지 작가의 개인전 'KARMADAISE'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올해 7회를 맞은 '무설전 서운갤러리 청년작가 전시지원 공모'를 통해 열린다.

전시제목인 'KARMADAISE'는 'Karma(업, 인과)'와 'Paradise(낙원)'의 합성어로 '업과 삶의 순환'이 함축된 단어다. 이번 전시는 현대미술을 통해 인생과 업, 치유의 의미에 대해 새롭게 생각해보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열린다.

이 작가는 누구나 감추고 싶은 내면의 상처, 삶과 죽음의 관계, 잃어버린 신념을 되찾는 마음 등 복합적인 감정들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작업을 진행해왔다. 특히 작품들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실과 중첩된 붓질은 수행의 과정을 보여준다. 한 개인의 기억과 경험, 감정이 쌓이고 쌓여 하나의 형태로 드러남을 표현한 것. 이 작가는 주술적 상징과 여러 이미지들이 결합한 경험의 형태를 통해 작품을 보는 관람객들이 부정적 감정을 거르거나 재조합해 치유된 상태로 거듭나길 바라고 있다.

전등사 주지 여암 스님은 관람객들이 이번 전시를 감상하며 예술을 통한 정서 치유를 경험하고 긍정적인 카르마를 쌓는 여정에 동참하길 기대했다. 여암 스님은 "'카르마'는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으로 스스로의 태도와 마음을 돌아보고 선한 카르마를 쌓는 방법에 대해 생각하게 한다"면서 "전등사 무설전 서운갤러리를 찾는 많은 관람객들이 이번 전시를 통해 '카르마'에 대해 고민해보며 작가가 이야기하는 'Karmadaise'가 무엇인지, 내가 나아갈 치유와 선한 카르마(선업)의 길이 어디인지 고민해보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전등사 무설전 서운갤러리는 매년 청년작가 선발 공모를 열어 실험적이고 창의적인 현대미술을 조명하고 있다. 지난해 열린 공모에서는 이유지 작가와 함께 설진화 작가가 선정됐다. 설 작가의 전시는 올해 9월 개최가 예정돼 있다.

김가령 기자



한마음선원, 대행장학회 장학금 수여식

2월 16일 26명에 장학금
"참된 사람이 되길" 당부

재단법인 한마음선원(이사장 혜수 스님)은 2월 16일 안양본원 5층 법당에서 '제20회 대행장학회 장학금 및 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사진〉

대행장학회는 "이 세상에 큰 일꾼이 될 꿈나무들에게 좋은 거름이 되고 울타리가 되어주라"는 대행 선사의 유지를 받들어 발족한 장학회다. 한마음선원 본원과 지원에 소속된 신도로 청년회, 학생회, 어린이회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대학생 중 학업 성적이 우수한 이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

이날 장학금은 대행장학생(대학) 9명, 한마음장학생 17명(대학원생) 등 총 29명의 학생에게 전달됐다.

수여식에서 이사장 혜수 스님은 "오늘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은 엄격한 심사절차를 거쳐 검증된 우수한 학생인 만큼 자긍심을 가져야 한다"면서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여 참된 사람이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신중일 기자

미소원 청년회, 환경 정화 플로깅

2월 15일 삼락생태공원서


회원들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이번 활동의 취지"라며, "앞으로도 환경과 공익을 생각하는 다양한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사단법인 미소원 청년회(회장 이다겸)가 2월 15일 부산 삼락생태공원에서 환경 정화 플로깅 활동을 진행했다.〈사진〉

이날 미소원 청년들은 시계탑을 출발해 성인야구장, 가족공원을 지나 시계탑으로 돌아오는 3.7km 코스를 따라 플로깅을 진행했다.

이다겸 청년회장은 "환경 정화 활동을 통해 자연을 보호하고, 동시에

"불교 연기로 '지속가능한 삶' 고민해야"

한마음과학원, 김태원 교수 강연



(재)한마음선원 산하 한마음과학원(원장 혜수 스님)은 2월 16일 한마음과학원 3층 국제회의실에서 '한마음 특별강연 프로그램'을 개최했다.〈사진〉 강사로 나선 김태원 인하대 해양과학과 교수는 '지구환경과 불교'를 주제로 생태학과 불교적 관점에서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한편, 한마음과학원은 회원 역량 강화와 학문 간 융합을 위해 연간 3회 외부 전문가를 초빙하는 특별강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김민재 기자

원파당 혜정 대종사 열반 14주기 다례재

2월 17일 법주사서 봉행


났지만 그 가르침은 여전히 우리 가슴에 남아있다"며 "우리 제자들이 더욱 수행하고 정진해 은사스님의 가르침에 보답하겠다"고 다짐했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전법과 포교에 앞장섰던 원파당 혜정 대종사의 열반을 추모하는 행사가 열렸다.

충북 보은 법주사(주지 정덕 스님)는 2월 17일 경내 대웅보전에서 '원파당 혜정 대종사 열반 14주기 추모 다례재'를 봉행했다.〈사진〉

문도 대표 조실 지명 대종사는 "혜정 대종사께서 열반한 지 14년이 지

마곡사 불교대학 7기 졸업식

2월 15일 관음전서


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배운 지식을 토대로 원력과 기도의 실천을 새롭게 다짐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마곡사 불교대학(학장 취성 원경 스님)은 2월 15일 경내 관음전에서 '마곡사 불교대학 총동문회장 취임식·제7기 졸업식'을 봉행했다.〈사진〉

올해 졸업식에는 1년간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고 수행을 다져온 10명의 졸업생과 3명의 수료자가 나왔다.

마곡사 주지 원경 스님은 치사에서 "배운 부처님의 가르침을 삶 속에

해인사 영산회상도 국보지정 기념식

해인사, 2월 18일 성보박물관서
"영산회상도, 조선 전기와 후기
불화 전통 아우르는 주요 작품"

성낙두 경남지사장


최응천 국가유산청장이 해인사 주지 혜일 스님에게 국보지정서를 전달했다.

1997년 국가유산 보물로 지정된 후 30여 년만에 국보로 승격된 '합천 해인사 영산회상도'의 국보지정 기념행사가 열렸다.

법보종찰 합천 해인사(주지 혜일 스님)는 2월 18일 해인사 성보박물관에서 '합천 해인사 영산회상도' 국보지정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해인사 주지 혜일 스님, 해인사 성보박물관장 현석 스님과 최응천 국가유산청장, 신성범 국회의원, 최만림 경상남도 행정부지사, 김성희 경상남도 경찰청장, 김윤철 합천군수 등 지역 주민들과 불자들이 참석했다.

2024년 12월 국가유산 국보로 승격된 '합천 해인사 영산회상도'는 1729년에 제작된 것으로, 조선 영조 5년의 화승인 의겸을 비롯해 여러 화승이 참여했다. 특히, 의겸은 18세기 조계산과 지리산을 거점으로 왕성하게 활동한 화승으로, 그의 뛰어난 기량이 엿보이는 작품이다. 영산회상도는 석가모니가 제자들에게 법화경을 설법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으며, 비단 바탕에 채색으로 그려져 있다.

이날 기념식은 개회, 삼귀의, 반야심경, 해인사 주지 혜일 스님의 헌향, 신성범 국회의원의 헌다, 최응천 국가유산청장의 헌화, 대중헌화, 내빈소개, 인사말, 축사, 국보지정서 전달, 공지사항, 사홍서원, 폐회,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해인사 주지 혜일 스님은 "해인사 영산회상도는 조선 전기와 후기의 불화 전통을 아우르는 중요한 작품으로 가치를 인정받아 국보로 지정됐다"며 "이는 단순한 문화유산 지정이 아니라, 불교의 교리와 회화적 전통이 어우러져 더욱 빛을 발하는 중요한 순간임을 뜻한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이어 "영산회상도가 앞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고, 그 가치를 후대에 고스란히 전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최응천 국가유산청장은 "2022년 이곳 해인사에서 두 비로자나 부처님 불상의 국보 지정을 축하해 드렸는데 이번에 국가유산청장으로 석가모니 부처님을 담은 불화의 국보 지정을 축하하기 위해 한 번 더 오게 돼 더 기쁘다"며 "조사해야 할 내용이 많아 시간이 오래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해인사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 청장은 "이번에 지정되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영산회상도를 비롯하여 해인사에 가득한 귀중한 국보와 보물들을 향후에도 잘 보존하고, 관리해주실 것을 믿고 국가유산청도 힘껏 돕겠다"며 "국보지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신 합천군과 경상남도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다양한 학술연구를 통해 국보의 가치를 밝혀주신 학계의 전문가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해인사와 국가유산청은 이번 국보지정 기념행사를 통해 '합천 해인사 영산회상도'가 국보로 지정되었음을 널리 알리고,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落火로 재앙은 소멸되고 복 오길"

세종 영평사가 정월 대보름을 맞아 부정을 물리치고 복을 기원하는 낙화법을 설행했다.

세종 영평사(주지 광원 환성 스님)는 2월 15일 경내 앞마당에서 '제10회 낙화법(落火法, 불꽃놀이)'과 산사음악회를 진행했다. 낙화법은 숯, 향, 소금을 한지에 만 낙화봉지를 나무에 매단 후, 불을 붙여 재앙을 소멸하고 올 한해의 안녕과 복을 발원하는 불교 전통의식이다. 특히 영평사 낙화법은 세종시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될 만큼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사부대중 2만여 명 이상이 방문해 성황을 이뤘다. 저녁 6시 낙화법 시연이 시작되자, 대중들은 흩날리는 불꽃이 밤하늘을 수놓는 광경을 보며 각자 마음 속 소원이 이뤄지길 두 손 모았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화엄사, 제5회 홍매화 사진 콘테스트 개최

3월 10~30일 21일간 공모
작품성 · 활용성 · 독창성 평가

조계종 제19교구본사 지리산 대화엄사(주지 덕문 스님)가 오는 3월 10일부터 30일까지 '화엄! 홍매화의 향기를 머금고'를 슬로건으로 '제5회 구례 화엄사 화엄매 홍매화·들매화 프로사진 및 휴대폰 카메라 사진 콘테스트'를 개최한다.

콘테스트에 앞서 화엄사 주지 덕문 스님은 "화엄사는 신라와 백제의 경계에 위치해 1500년의 역사를 이어온 사찰로, 역사적·문화적 의미를 가진다"며 "신라인과 백제인의 민심을 하나로 모은 화엄사에서 홍매화를 바라보며 현재의 행복을 담고 힐링하는 시간을 가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올해 촬영된 홍매화·들매화 사진만 출품 가능하며 화엄사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참가자는 개인당 최대 2장의 사진을 제출할 수 있다. 만약 드론 촬영을 원하는 경우 관람객의 안전과 국가유산 보호를 위해 화엄사 측에게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촬영한 드론 사진은 인정되지 않는다.

심사는 프로 전문가 부문과 휴대폰 카메라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기준은 △작품성(30점) △활용성(30점) △적합성(20점) △독창성(20점) 등 총 100점 만점으로 평가된다. 동점일 경우 작품성과 활용성 점수를 우선 고려해 최종 수상작을 결정한다. 출품작과 수상작의 저작권은 화엄사와 구례군에 귀속돼 개인이 사용할 경우 사전 허락을 받아야 한다.

수상작은 4월 21일 오전 9시 화엄사 홈페이지 및 BBS불교방송 '좋은 아침, 성전입니다'에서 발표된다. 시상식은 5월 5일 부처님오신날 오전 10시 화엄사 각황전에서 열린다.

한편, 홍매화 개회식은 3월 22일 오후 1시 30분 각황전 앞마당에서 개최된다. 이와 함께 현중순 시인의 〈홍매화〉 시 동판 제막식도 진행할 예정이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화엄사, 지리산 화엄문도 합동추모재

2월 13일, 경내 각황전서
역대 선사 추모, 정진 다짐



조계종 제19교구본사 화엄사(주지 덕문 스님)가 2월 13일 경내 각황전에서 '불기 2569년 을사년 지리산 화엄문도 합동추모재'를 봉행했다.〈사진〉

지난해 화엄사는 근래 입적한 문도스님 합동부도탑을 조성하고 매년 정초에 추모재를 봉행하고 있다. 이번 합동추모재는 화엄사의 발전과 선대스님들의 뜻을 이어가는 의미가 담겼다.

화엄사 문장 종국 스님은 "합동추모재는 화엄문도의 화합에 큰 의미가 있다. 모두 수행정진에 힘쓰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화엄사 회주 종열 스님은 "우리 문중은 역대 조사스님들과 큰 본사에 의지해 사는 것이 행복한 사람들"이라며 "후배들을 양성하겠다는 마음을 갖고 더욱 열심히 정진하라"고 전했다.

주지 덕문 스님은 인사말에서 지난 8년여의 임기를 회향하며 "여러 어른 스님들과 대중스님들의 지도와 격려로 무사히 회향할 수 있었다"며 "화엄사의 가풍인 화합과 자비, 인욕을 바탕으로 올해에도 수행정진에 진력하자"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도선사, 정월방생법회…자비실천의 현장

2월 15일 보은 법주사서
메기 2천여 마리 방생해



서울 도선사 사부대중이 정월 대보름을 맞아 생명존중의 가치를 되새기고 부처님 자비를 실천하는 방생법회를 봉행했다.〈사진〉

서울 삼각산 도선사(주지 태원 스님)는 2월 15일 충북 보은 법주사(주지 정덕 스님) 일원에서 '도선사 정월대보름 방생법회와 합동천도재'를 설행했다.

이날 방생 법회에는 도선사 신도 900여 명이 동참, 도선사 신도회(회장 김학규)가 준비한 메기 2000여 마리를 방생했다.

도선사 주지 태원 스님은 "추운 한겨울에도 고귀한 생명을 살리는 불자들의 마음이 가득한 오늘, 이 공덕으로 우리 사회가 더 따뜻해지길 바란다"며 "방생은 모든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생에 참여한 한 신도는 "추운 날씨에도 많은 불자가 한마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공덕을 쌓을 수 있어 기쁘다"고 밝혔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귀신사, 사경특별법회서 수행담 나눠

2월 16일, 경내 대적광전서
지역 대학생에 장학금 전달도



김제 귀신사(주지 무여 스님)가 2월 16일 경내 대적광전에서 사경특별법회를 봉행했다.〈사진〉

사경법회를 지도한 무여 스님은 "현재 사경법회에 동참한 84명을 비롯한 불자들은 단체대화방을 만들어 사진을 올리는 등 서로 사경 정진을 독려해왔다"며 "사경 수행만으로도 큰 공덕을 이루는 것이니, 지금부터라도 동참을 권한다"고 전했다.

이날 무여 스님은 이종민 학생 등 대학생 5명에게 각각 1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전북불교환경연대에도 100만원의 후원금을 전하며 활동을 응원했다. 전달된 장학금과 후원금은 입춘기도에 동참한 신도들의 기도비로 마련됐다.

법회 후 동참 사부대중은 설법전으로 자리를 이동해 사경 수행에 대한 수행담을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한국불교조계종 을사년 신년하례법회 봉행



한국불교조계종(총무원장 대봉스님)이 을사년 신년을 맞아 2월 16일 문경 성보촌에서 신년하례법회를 봉행했다.〈사진〉

한국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대봉스님은 "모든 중생은 진실한 우주 참 진리와 행복의 실체를 깨우침으로써 진정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불교의 궁극적인 목표인 성불을 위해 자기 깨달음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중생을 이롭게 하는 이타행으로 대승불교의 핵심 가치인 보살행을 실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창원불교연합회 을사년 신년하례회 봉행



창원불교연합회가 을사년 새해를 맞아 '을사년 신년하례회'를 봉행했다.〈사진〉

2월 18일 창원컨벤션센터 1층 연회장에서 봉행된 신년하례회는 창원불교연합회 법안 스님(성주사 주지)을 비롯한 지역 사찰 스님들과 이상연 창원불교연합회 총신도회장, 홍남표 창원시장 등 불교계 내외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특히 이날 신년인사에 앞서 열린 창원불교연합회 총회에서는 성주사 법안 스님이 차기 회장으로 선출되어 연임이 확정됐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전북불교대, 불교학과 및 법사과 졸업식 봉행



사단법인 부처님세상(이사장 백준기) 부설 전북불교대학(학장 이창구)이 2월 16일 교내 4층 큰법당에서 '제37회 불교학과 및 제32회 법사과 졸업식'을 봉행했다.〈사진〉

이번 졸업식에서는 권순호 불교학과 37기 학인을 포함한 44명과 김석철 법사과 32기 학인을 포함한 17명, 총 61명이 졸업장을 받았다.

이창구 학장은 "졸업이 단순한 학업의 마무리가 아니라 마음을 마무리 짓는 과정이 되길 바란다"며 "'인격을 불격으로'라는 학훈을 되새기며 부처님 법을 실천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지장정사 불교대학 5기 졸업식 개최



대한불교조계종 지장정사 불교대학(학장 현우 스님)이 2월 19일 경내 2층 대법당에서 제5기 졸업식을 개최했다.〈사진〉

이번 5기 졸업생은 총 7명이며, 졸업생들은 운영된 교육과정을 성실히 이수하며 불교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는 길로 나아가는 중요한 이정표로 삼았다.

학장 현우 스님은 "졸업은 끝이 아니라 실천의 시작이다. 배운 가르침을 일상에서 적용하며 부처님의 법이 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전주 수현사 불교대학 7기 졸업식 봉행



금산사의 전주혁신도시 포교당 수현불교대학(학장 응묵 스님)이 2월 16일 관내 3층 큰 법당에서 7기 졸업식을 봉행했다.〈사진〉 이날 남준희 불자를 비롯한 24명이 불교대학을 졸업하고 걸음마 불교학당의 조형준 불자 등 5명이 수료했다.

수현불교대학 학장 응묵 스님은 졸업식사를 통해 "지난 7년을 돌아보면 우여곡절의 시간이었다"며 "수현사가 앞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학장을 맡았다. 앞으로 교구 발전을 위해 고민하고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한국노인복지회 독거어르신 위한 나눔 잔치



한국노인장애인복지봉사회 전북지회 전주시지회(회장 정인 스님)가 주최하고 JG그룹이 후원한 '설날맞이 나눔의 잔치'가 2월 13일 JG그룹 사무실에서 개최됐다.〈사진〉

행사에서는 암 환자, 홀몸 어르신, 장애인 등 취약계층 100여 명에게 4500만원 상당의 물품이 전달됐다. △특차스코 침향단 △산양산삼 △보호대 세트 △쌀 △라면 △프로폴리스 치약 △숯 칫솔 △기념수건 △스마트 인삼파스 △천년초 등이다.

정인 스님은 "봉사자와 후원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인사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美 뉴욕 사찰 대형 화재…스님 등 인명 피해

가연성 물질서 화재 시작
불법 주차로 대응 지연돼
사찰 재건 모금 운동 시작

김민재 객원기자


뉴욕 브롱크스 태국계 불교 사원이 화염에 휩싸여 있다. 사진출처=WABC-TV

미국 뉴욕시 브롱크스 트레몬트 지역의 태국불교 사찰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스님을 포함한 2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는 비극이 발생했다.

지난 2월 13일, 해외언론 'AP통신'은 뉴욕시 소방국(NYFD)의 발표를 인용하며 12일 오전 6시경 발생한 화재로 인해 사찰과 인접한 두 주거건물이 전소했다고 보도했다.

브롱크스의 2층짜리 타운하우스 내부에 자리했던 사찰에서 시작한 화재는 인근 주거건물 두 채를 집어삼켰다. WABC-TV가 촬영한 영상에 따르면 소방관들은 불길에 휩싸인 사원 주변에서 대피 명령을 내렸고, 건물은 이미 전소된 상태였다.

소방국은 X(구 트위터)를 통해 실내에서 가동 중이던 난방기 인근의 가연성 물질에서 불이 시작됐다고 발표했다.

존 에스포지토 뉴욕시 소방국 부서장은 기자회견에서 "두 건물이 화염에 휩싸였으며, 100명 이상의 소방관이 출동해 2시간 넘게 화재 진화에 나섰다"고 전했다. 존 부서장은 "안타깝게도 스님 등 2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태에 빠졌다"며 "희생자들의 신원을 가족들에게 통보하기 전까지 대중에게 신원을 공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뉴욕시 소방국은 소화전 앞에 불법 주차됐던 차량으로 인해 소방차의 신속한 대응이 늦어졌다고 지적했다. 존 부서장은 "소화전 앞 불법주차는 화재 대응 시간을 치명적으로 늦춘다"면서 "지난 일주일간 비슷한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최근 뉴욕시에서 발생한 여러 화재 사건에서도 불법 주차된 차량에 막혀 소방차의 진입이 늦어지며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바 있다. 뉴욕시 소방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불법 주차 단속을 강화하고, 소방 안전 캠페인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전했다.

마유리 스리피롬 사찰 재무관은 "당시 많은 신도가 사찰 내부에서 자고 있었으며, 난방기 근처의 옷에 불이 붙으면서 화재가 시작됐다"며 "새벽 예불 중이던 스님들이 불이 난 것을 알고 대피시켰으나, 불이 삽시간에 번져 주거건물을 태웠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이번 화재로 인해 사찰의 노령 스님이 입적해 충격을 금치 못 하는 중"이라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브롱크스 지역 태국 공동체는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행사를 열며 사찰 재건을 위한 모금 운동을 시작했다. 마유리 스피리롬 재무관은 "이 사찰은 단순한 예배 공간을 넘어 태국 공동체의 유대와 문화를 이어주는 소중한 공간"이라며 "많은 이들의 힘을 얻어 하루빨리 사찰을 재건할 수 있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베트남 죽림선 불교 유물 전시회 성료

연례 문화관광주간 맞아 개최
대표 종단 '죽림선' 조명 전시


관람객들이 '죽림선(竹林禪) 법맥의 길' 전시회에서 유물을 관람하며 설명을 듣고있다. 사진출처=베트남 뉴스

지난 2월 14일, 베트남 일간지 '베트남뉴스'는 베트남 북부 산악지역 박장성에서 개최된 불교 유물 전시회 성료 소식을 전했다.

쭉럼 옌뜨 문화센터에서 개최된 '죽림선(竹林禪) 법맥의 길'이라는 전시회는 2월 8~13일 개최됐다. 베트남 리 왕조부터 쩐 왕조를 걸친 시기(1400~1900년)에 조성된 불교 유물 100여 점과 쭉럼 옌뜨(Trúc Lâm Yên Tử, 竹林安子) 선원 사진 50여 점이 선보여졌다.

이번 전시회는 박장성 문화유산을 홍보하고 지역 문화를 널리 알리기 위해 기획됐다. 연례 문화관광주간의 일환으로 진행돼 타이 옌뜨 봄맞이 축제 등 다양한 행사가 함께 열렸다.

'죽림선'은 현재 베트남의 대표적인 불교 종단이다. 민족정신과 수행의 중요성을 강조해 베트남 불교 발전에 큰 영향을 끼친 죽림선은 13세기 쩐 왕조의 인종황제가 출가한 뒤 옌뜨 산에서 개산했다. 전시회를 연 쭉럼 옌뜨 문화센터는 13세기 쩐 왕조 시기 건축 양식의 집성체로 2018년 열린 '베트남의 혼, 쩐 왕조와 죽림선의 정신' 전시를 모티브로 지어졌다.

응우옌 시 감 문화체육관광부 부국장은 개회식에서 "죽림선 전성기 동안 쭉럼 옌뜨는 베트남인에게 종교 생활의 중심지이자 문화 정체성의 중추적 역할을 했다. 죽림선의 법맥이 이어지는 이곳에서 의미있는 전시회를 준비하게 됐다"며 "도내 11개 고고학 발굴지에서 엄선한 유물들을 보며 죽림선의 역사적 중요성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전시회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그는 "유물의 미적 요소뿐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역사와 문화 등 풍부한 이야기를 감상하며 다양한 관점에서 전시를 탐험할 수 있다"면서 "유물, 사진을 보며 관람객들은 역사와 문화, 수행의 관계를 살펴보게 된다. 관람객들이 박장성의 속성에 대해 잘 알게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현지 주민들은 "전시회를 통해 내수 경제가 활성화됐고 고용 창출이 증대됐다. 앞으로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향성이 기대된다"며 "관광객들이 우리 문화와 역사의 중요성에 주목해 전시된 유물과 유산을 감상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이번 전시회는 과거를 기리고 미래 세대에 전하겠다는 의지와 박장성 발전을 촉진하는 움직임의 한 걸음에 불과하다"면서 "앞으로도 박장성은 불교의 생생한 역사를 선보이기 위해 문화 참여와 학습의 장으로 변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박장성은 '부처님의 발자취를 따라, 떠이 옌뜨 성지로'라는 관광 브랜드를 운영 중이다.

김민재 객원기자

中, 티베트불교 사찰서 스님 대규모 추방

지난해 12월부터 라룽가르 사찰서
요사채 철거, 스님 1000여 명 추방


세계 최대 불교연구센터 라룽가르 사원 전경. 사진출처=티베탄리뷰

중국에 위치한 세계 최대 불교연구센터 '라룽가르 사찰(吳明佛學院, 오명불학원)'이 중국 정부로부터 철퇴를 맞았다.

지난 2월 13일 인도 월간지 '티베탄리뷰'는 중국의 라룽가르 사찰에서 벌어진 대규모 스님 강제 추방 소식을 보도했다.

쓰촨성(四川省) 티베트 자치주 써다(色達)현의 라룽가르 사찰에서 1000여 명의 비구와 비구니스님들이 추방됐다. 이번 조치는 중국의 지속적인 티베트불교 압박과 통제 중 하나로 국제사회의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정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라룽가르 사찰 내 거주 인원은 최대 5000명, 최대 거주 기간은 15년으로 제한됐다. 거주자들은 중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런 조치라면 사찰 내 수행자 수가 1000명 이하로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지난해 인도 다람살라에서 중앙티베트 행정부는 "12월 20일 중국이 라룽가르 사찰에 약 400여 무장병력을 배치해 요사채를 강제 철거했다"며 "이는 요사채를 5000채로 제한하는 국가 명령을 시행하는 조치였다. 이후 감시 헬기를 동원해 스님들의 동태를 파악 중"이라고 발표했다.

영국 런던에 소재한 '자유 티베트'의 모니터링 그룹 '티베트 워치'는 "추방된 스님들은 대부분 마지막 대규모 추방이 발생한 2016~2017년 이후 이주한 스님들"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말부터 12월까지 진행된 요사채 강제 철거 작업은 이어질 전망이다. 중국 정부는 "최대 거주 인원을 초과하는 사찰 내 모든 요사채를 철거할 계획"이라고 단언했다. 김민재 객원기자

캐나다 주정부, 대만 불교단체 토지 조사

지역 내 대규모 토지 소유
"농지 보호 위한 관리 필요"

캐나다 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PEI)주 정부가 대만계 불교단체 두 곳의 토지 소유 현황을 조사한다. 지난 2월 13일 캐나다 지역 언론사 '코스트 리포터'는 캐나다 주정부의 대만계 불교단체 두 곳의 토지 소유 현황 조사 소식을 보도했다.

스티븐 마이어스 주택부 장관은 2월 12일 발표에서 "주민들이 대만계 불교단체 '대지혜불교연구소(Great Wisdom Buddhist Institute Inc)'와 '대각불교연구회(Great Enlightenment Buddhist Institute Society)'의 토지 소유와 사용 방식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며 "두 단체는 사원과 분원을 중심으로 PEI 동부 지역에 대규모 토지를 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PEI의 토지는 인구 증가, 농지 보호, 기후 변화 대응 등 장기적인 이익을 위해 관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주 규제 및 항소위원회가 '토지보호법(Lands Protection Act)'을 바탕으로 토지 소유 현황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마이어스 장관은 비거주자의 토지 소유 감독 강화를 위해 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매튜 맥팔레인 PEI주 녹색당 의원은 "두 단체 출·재가자가 10여 년 전부터 주 동부 지역에서 수백만 평방미터의 토지를 매입해 왔다. 조직적으로 연결된 단체들이 소유 한도를 초과해 토지를 확보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지역사회에서는 주택 공급과 농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외국인 토지 소유 문제를 둘러싼 불만과 의심이 커져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대지혜불교연구소'는 브루데넬에 위치한 비구니 승가로, 약 500명의 대만 출신의 스님이 사원과 인근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리틀 샌즈와 헤더데일에 분원을 둔 '대각불교연구회'는 약 600명의 대만 출신 비구 스님이 거주한다.

김민재 객원기자



사찰 편백나무 맞춤가구 전문점

스님 건강, '편백가구'로 지킨다

편백(히노끼)나무 효능

편백나무는 항균효과가 뛰어나 세균번식에
가장 취약한 목욕 욕조를 비롯하여
인테리어 용품, 주거용 목재, 침대 등 가구소재로 주로 사용된다.
특유의 향으로 인해 정신을 맑게 하는데 이는 피톤치드 때문이다.
편백나무는 일반나무보다 5.5배 가량 피톤치드가 많아
삼림욕을 하면 심신이 안정된다.

편백 온열 그래핀보료

신체 기(氣, Energy)를 충전하고 균형을 바로 잡는 초장파 에너지

건강하고 오래사는 것은 인류의 오랜 소망
지친 몸과 스트레스를 수면과 함께 깔끔하게 해결하세요.

- 피로 회복
- 근육 결림 해결
- 혈액 순환 개선
- 신경통, 근육통 완화
- 만성 피로 해소



편백침대





숙면이 보약
편백 숯침대



FINE TERRA



규조토 비누
'FINE TERRA'
절찬 판매
판촉용 대량구매시
70% 할인
향긋함과 함께~
기다려지는 세안~~~
알파토 규조토 soap
민감성 피부에 도움

그린에너지 GREEN ENERGY COMPANY
제품문의 031-542-2735 010-3576-6802
계 좌 : 농협 1186-02-058581
예금주 : 그린에너지(이도연)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봉리 319-16 (무봉로 15)
전제품 국내산

“퇴근 후에는 만화 그리고 주말에는 불화 그려요”

인터뷰 불화뱀 ‘사바세계 불화공방’ 작가

현실 벽에 회사원+‘N잡러’ 활동
어머니 따라간 사찰서 진행 중인 단청 작업 현장보고 불화에 관심
친숙하게 불화 알리려 웹툰 선택
밈 활용 젊고 힙한 표현 돋보여
블로그 등 연재…전업 작가 목표

김내영 기자 rlasodud0994@naver.com



불화뱀 오너캐 이미지.

낮에는 회사원, 밤에는 작가. 불화를 그리고 이를 웹툰으로 풀어내며 자신만의 창작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30대 중반의 ‘N잡러(2개 이상의 직업을 가진 사람)’가 있다. 본업은 미술과 무관한 회사원이지만, 퇴근 후와 주말엔 붓을 잡고 대중과 소통하는 ‘불화뱀’이 그 주인공이다. 신원 공개는 원치 않아 필명으로 이름을 대체한다. 7일간 폭풍 속에서 똬리를 틀어 부처님을 지켜준 용왕(코브라) 무찰린다 설화를 좋아해 필명도 ‘불화+뱀’을 합친 ‘불화뱀’이라 지었다.

그는 원래 불화나 단청 작업을 주로 해왔다. 그러나 여러 이유로 2016년부터 직장생활을 시작했고, 현재는 회사에서 중간 관리자로 일하고 있다. 다행히 워라밸이 좋은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어 새벽에는 운동을 하고, 낮에는 업무에 집중하며, 저녁과 주말에는 웹툰과 불화를 그릴 수 있는 환경을 유지하고 있다.

웹툰은 대체로 1주에서 3주 주기로 업로드된다. 내용으로는 ‘달마도’ ‘수월관음도’ 등 그간 자신이 그렸던 불화의 완성 과정이 담겨 있다. 최근에는 법난의 존재를 모르는 이들을 위해 외전으로 ‘10·27 법난’ 편도 제작됐다. 그의 웹툰에는 불화라는 전통적 소재를 다루지만, 인터넷 용어나 밈(Meme, 온라인 유행 콘텐츠)을 적극 활용한 젊고 힙한 표현들이 돋보인다. 특히 대중성 있는 애니메이션의 명장면을 패러디한 장면도 종종 등장한다. 직장과 창작을 병행하다 보니 일정한 주기를 맞추기 쉽지 않지만, 꾸준한 노력으로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있다.

“시간 관리가 가장 어렵습니다. 불화는 정성이 많이 들어가는 작업이라 집중하다 보면 두세 시간이 훌쩍 지나가요. 직장이 워라밸이 좋긴 하지만, 가끔 변수가 생겨 퇴근이 늦어지면 그림을 그리지 못하는 날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참 많이 아쉽습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죠.”

그가 불화를 접하게 된 계기는 어머니였다. 어린 시절부터 신심 깊은 어머니를 따라 사찰을 자주 찾았다. 어머니가 대웅전에서 향을 올리고 있을 때, 공양물로 올려진 과일을 몰래 집어 들었던 기억도 있다. 그때 스님은 꾸짖기는 커녕 환하게 웃었고 오히려 과일과 떡을 더 챙겨줬다. 그렇게 불교는 자연스럽게 그의 일상으로 스며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다니던 사찰에서 진행하고 있던 단청 작업 현장을 본 게 전환점이 됐다.

“스케치북에 크레파스로 그림을 그리는 게 다인 줄 알았던 제게 단청을 그리는 모습은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어디 공장에서 찍어낸 것을 조립해 사찰이 만들어지는 줄 알았는데, 사다리를 타고 올라간 사람들이 직접 문양을 하나하나 그리고 있더라고요.”

이 경험은 불교미술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고, 그는 대학에서 불화를 전공한 후 본격적인 불화작업을 시작했다. 그러나 현실적인 문제로 전업은 포기해야 했다. 가장 큰 문제는 생계였다. 불화는 신앙과 예술이 결합된 영역이라, 오로지 불심만으로 작업을 지속하기엔 현실적인 어려움이 컸다. 게다가 값싼 수입 불화의 유입도 불화 작가들의 입지를 더욱 좁히는 요인 중 하나였다.

직장생활을 선택했지만, 불화에 대한 열정은 여전히 식지 않았다. 대중의 관심에 비해 불화를 다룬 미디어가 부족하다는 점이 늘 아쉬웠던 그는 새롭고 친숙한 방식으로 불화를 알리고 싶었다.

“불화를 졸업 작품으로 제작한 영상이 조회수 수백만을 기록한 적이 있었어요. 그걸 보면서 ‘대중들은 불화를 좋아하지만,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모르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때부터 그는 불화를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기 위해 웹툰이라는 형식으로 선보였다. 자신이 단청 현장을 보고 불교미술에 첫발을 들였듯, 웹툰이 누군가에게는 불화를 접하는 계기가 되길 바랐다.

현재 그는 블로그와 네이버 도전만화 등에서 작품을 연재하고 있다. 그리고 언젠가는 전업 작가로 활동하며 더 많은 사람과 소통하길 꿈꾼다.

“불화뿐만 아니라 불교미술 전반을 다루고 싶어요. 반가사유상, 성덕대왕신종, 백제금동대향로 같은 소재도 매력적이죠. 단순한 학습만화가 아니라, 전문가도 볼 수 있을 만큼 깊이 있는 만화를 그리고 싶습니다.”

한때 사찰 공양물로 올려진 과일을 몰래 먹던 어린아이는 이제 붓을 들어 불화를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길을 걷고 있다. 나아가 빛이 바랜 사찰의 등 1000개를 복원하는 재능 보시도 실천했다.

그의 목표는 단순하다. 불화를 더 많은 사람에게 알리고, 누군가에게는 작은 인연을 심어주는 것이다.

“어릴 적 손댔던 그 과일이 인연이 된 건지 아니면 업장이 된 건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지금도 열심히 불화를 그리면서 그 빚을 갚고 있습니다. 제가 가진 것이 많지 않지만, 항상 정성으로 작품을 그리고 있습니다. ‘빈자일등(貧者一燈)’이라는 경구처럼, 작지만 오래도록 빛을 발하는 작품을 남기고 싶습니다.”

오직 필선만으로 빚어낸 부처님을 만나다

갤러리 한옥, 최학 작가 초대전 ‘초발심–初發心’

3월 4일까지…15점 전시
전통 선묘불화 기법 사용

(사)한국미술사연구소 부설 갤러리 한옥이 2월 21일부터 3월 4일까지 최학 작가 초대전 ‘초발심-初發心’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전통 불교회화의 핵심 요소인 필선(筆線)과 선묘(線描)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불교회화의 원형을 충실히 재현하면서도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한 작품들로 구성됐다.

전시에서는 고려·조선시대 선묘불화 기법을 기반으로 한 전통 불교회화 15점을 만나볼 수 있다. 선묘불화는 전통 불교회화 기법 중 하나로, 필선만으로 불상을 표현하는 방식이다. 주로 진한 갈색·흑색·적색 배경 위에 금색 선으로 부처님 형상을 그려낸 것이 특징이다. 최학 작가는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지속적으로 발전해온 이 기법을 통해 불교회화의 근본적인 아름다움과 정신성을 대중에 전달하고자 한다.

특히 과거 조선시대 불교회화 초본(밑그림)을 선묘불화 기법으로 재현한 작품들이 주목할 만하다. ‘42수 관세음보살도’는 통도사 성보박물관에서 전해지는 ‘42수 관세음보살 초본’을 바탕으로 완성했고, ‘해수관세음보살도’는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관세음보살 밑그림’을 선묘불화로 재해석 해냈다.


해수관세음보살도. 97×98, 2024년 작.

‘아미타여래강림도’는 일반인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조선시대 불교 도상을 현대적으로 풀어낸 선묘불화다.

최학 작가는 전통 불교미술이 단순한 복원에 그치지 않고, 현대와 소통할 수 있는 예술로 발전할 수 있음을 제시했다. 최 작가는 “이번 전시는 불교회와의 근본 요소인 ‘선(線)’의 아름다움을 재조명하고 전통불화 기법의 대중적 재평가를 시도하는 자리”라며 “고전을 현대에 재해석 함으로써, 불교미술이 단순히 과거 유산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의미 있는 예술로 존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최학 작가는 동국대 예술대학에서 불교미술을 전공으로 학사·석사·박사를 마쳤다. 조계종 총무원에서 주최한 제32회 불교미술대전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그는 김천 직지사, 서울 국제선센터, 삼각산 도선사, 의왕 청계사 등 주요 사찰에 불화를 봉안하며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또 서울 동국대 불교미술전공 강사로 재직하며 후학 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김내영 기자

비구니스님 독립운동 이야기 뮤지컬로

비구니회 주최 · 승가연구소 주관
2월 28일~3월 2일까지 6회 공연

비구니스님들의 독립운동을 조명하는 다큐 뮤지컬이 무대에 오른다.

조계종 전국비구니회(회장 광용 스님)가 주최하고 한국비구니승가연구소(소장 심원 스님) 주관하는 다큐 뮤지컬 ‘비구니스님들의 독립운동 이야기(비·스·독)’가 2월 28일부터 3월 2일까지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공연장에서 열린다. 이번 공연은 뮤지컬 극단 야성이 제작을 맡아 비구니스님들의 숨겨진 독립운동사를 옴니버스 형식으로 풀어낸다.

공연은 3일 동안 오후 3시와 7시, 총 6회에 걸쳐 진행된다. 감수에는 본각·광용·수경·심원·혜달·부헌, 대원 스님과 전영숙 박사가 참여했다.

‘비·스·독’에서는 독립을 위해 소리 없이 헌신한 비구니스님들의 이야기가 펼쳐진다.

국채보상운동에 앞장선 옥수동 미타사의 비구니스님 40인을 비롯해 △제주불교 중흥과 독립운동에 힘쓴 봉려관 스님 △봉려관 스님 상좌로 드러내지 않고 은사를 도운 성해 스님 △민족대표 33인의 불교계 인사들을 배후에서 지원한 상근 스님 △유관순 열사와 함께 3·1 만세 운동에 참여하고, 상해임시정부에서 활약한 보각 스님 △독립운동가들의 자금 조달과 연락책을 맡고, 안창호 선생의 옥바라지를 한 옥봉 스님의 활동상이 담겼다. 010-6247-4608

김내영 기자

사찰 연등 및 전선 법당용, 외곽용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공단연등(고리용)
노랑(오렌지) 진분홍 백색 연분홍 금색

제등행렬용품
일자A형 S형 T분리형 LED바A형 LED홀더B형 건전지 초

전선간격
22cm, 25cm, 28cm, 30cm, 40cm, 50cm, 1m, 2m, 3m, 5m, 8m, 10m, 기타주문

LED태양광 솔라
(국산정품)

LED전구 국산인증
고추구 12E 인지구 26E

도량(만월등)조립식 프레임(간편한 설치 및 높낮이 조절)





안전인증 ISO9001 ISO1400 특허청

정직과 신뢰의 불자기업
불제대원산업
BULJE DAEWON CO.LTD

구 입 문 의 031-986-0277~8, 02-2266-2634
032-582-6235~6, 02-2263-2638
문의핸드폰 010-3630-7092
http://www.bulje.co.kr 본사·공장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모산로 17-1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2/19~2/25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요가디피카(아헹가요가시리즈1) 육체의 한계를 넘어	아헹가/현천 역	선요가	6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삼국유사	일연	보물창고
2	부처님의 생애(종단본)	교육원 편찬위	조계종출판사	7	무비스님 신금강경 강의(어플경전강의01) 큰 글자책	무비 스님	불광출판사
3	불교입문(조계종신도교재/입문)	조계종 포교원	조계종출판사	8	니까야강독1(초기불전005) 출가자의 길	각묵,대림 스님 옮김	초기불전연구원
4	불교사의 이해(조계종신도교재3)역사	이만 외	조계종출판사	9	행복한 삶을 위한 부처님 말씀(1)	이철현 엮음	오색필통
5	불교개설(조계종신도교재) 부처님의 가르침 불자의 실천	조계종 포교원	조계종출판사	10	불멸(3) 아무래도 아무렇지 않은	이각	지혜의눈

책세상

‘수호신 3일 기도’ 이렇게 하면 늘 부처님 가피



수호신 기도
묘장 스님 편저
민족사 / 1만원

신중기도 풀이한 ‘수호신 3일 기도’
남녀노소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구성
신중기도 내용 · 의미 · 이유 알림 취지
기도문과 상세한 설명 실천 팁 수록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오늘부터 저와 함께 사랑하는 사람을 보호하는 3일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부처님과 수호신들의 가피를 가장 잘 받을 수 있도록 제가 기도의 시작부터 끝까지 동행하며 기도하는 길을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불교계의 대표적 사회복지 및 국제구호 활동가인 묘장 스님〈사진〉이 〈수호신 기도〉를 출간했다. 책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수호신의 보호를 간청하는 방법과 평온, 행복, 대자유를 성취할 수 있는 3일 기도 수행의 과정을 소개한다. 이번 책은 단순히 불교의 경전적 가르침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현대인의 삶에서 실천 가능한 기도 방식과 수행의 가치를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묘장 스님의 수호신 3일 기도는 부처님 앞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겠다는 큰 서원을 세운 수호신(신중)들의 보호를 받는 기도라서 성취가 더욱 빠른 기도다. 이런 묘장 스님의 3일 기도는 불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기도 중의 하나인 신중기도를 풀이한 것으로, 책은 불자들에게 신중기도의 의미와 이유를 제대로 알리는 데 취지가 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이자 국제구호협력기구 더프라미스 이사장을 맡고 있는 묘장 스님은 이미 〈나는 절로〉 시리즈를 통해 많은 독자들에게 깊은 울림을 전한 바 있다. 이번 저서는 그 연장선상에서 불교의 전통적 수행법과 현대적 실천 방식을 조화롭게 결합해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책은 자신 또는 기도해 줄 사람의 이름을 적고 사진을 붙이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기도해주고 싶은 사람의 이름과 사진을 보고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 정성을 다해 간절히 기도하면 성취가 빠르기 때문이다.

1장 ‘사랑하는 사람을 보호하는 3일 수호신 기도를 시작하며…’에서는 ‘기도의 육하원칙’을 소개한다. 나를 위한 기도, 남을 위한 기도, 언제 기도할 것인가?, 어디서 기도할 것인가?, 무엇을?, 어떻게?, 왜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한다.

2장 ‘나 홀로 셀프 기도’에서는 여섯 개의 코스에서 수호신 기도를 안내한다. 1코스 ‘부처님의 자비심 닮기’에서는 기도의 시작이 ‘자비심’에 있음을 설명하고, 마음속을 자비심으로 가득 채우기 위해 자비심을 일으키고 늘어나게 해 주는 〈자비경〉을 읽는다.

2코스 ‘수호신들이 보호해 주는 경 읽기’에서는 〈과거칠불보호경〉을 읽는다. 〈과거칠불보호경〉이 어떤 경전인지, 읽는 방법과 기도의 가피에 대해서도 소개한다. 〈과거칠불보호경〉은 석가모니 부처님 이전의 과거 여섯 부처님과 석가모니 부처님을 포함해 모두 일곱 부처님께 귀의하고 그 공덕을 찬탄하는 내용의 경전이다. 부처님들 곁에서 부처님과 불자들을 보호하겠다고 다짐한 수호신들(신중 또는 화엄성중)이 내려와 듣는 경전이기 때문에 신중기도 때 독송하면 좋은 경전이다.

3코스 ‘마음을 닦고 공덕을 기르는 경전 독송하기’에서는 오랫동안 한국불교의 수호경으로 전승되어온 〈천수경〉을 독송한다. 지금 이 순간 기도해줄 이를 위해 칠불과 수호신들을 찬탄하고 예경한 공덕만으로도 기도는 이루어질 수 있지만 더 큰 성취를 위해, 아니 늘 부처님 가피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본격적으로 경전을 독송해야 한다. 그 시작이 〈천수경〉이다.

4코스 ‘수호신을 모시고 공양 올리는 기도’에서는 수호신을 모시고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기도를 한다. 이 기도는 절에 가서 스님과 함께해야 하지만 집에서 해야 한다면 책의 안내를 따르면 된다. 수호신(신중)들을 떠올리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진언과 화엄경 약찬게, 반야심경을 독송한 후에 불설소재길상다라니와 마무리 진언을 하고, 화엄성중을 부르는 것이 수호신 기도의 핵심이다. 수호신 기도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수호신들이 우리를 보호해 주고,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주신다는 절대적인 믿음이다.

5코스 ‘공양 공덕 회향하기’에서는 회향의 의미와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회향문’을 읽는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더욱 지혜롭고 자비롭게 새롭게 태어날 수 있다. 나만 혼자 새롭게 태어나는 게 아니라 나의 기도공덕으로 다른 사람들도 지혜롭고 자비로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회향하는 것이야말로 불자의 바른 자세라고 강조한다.

마지막 6코스 ‘기도는 이루질 때까지, 선택이 아닌 필수’에서는 회향의 공덕을 이야기하고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한다.

〈수호신 기도〉는 일종의 워크북으로, 기도를 시작하는 대중도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구성했으며, 직접 자신이 쓰면서 할 수 있는 것이 책의 또 다른 특징이다.

책의 중심에는 ‘3일 기도’라는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수행법이 자리 잡고 있다. 책은 3일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특히 기도를 통해 가족, 친구, 연인 등 소중한 이들을 수호신의 보호 아래 둘 수 있는 가르침을 전한다. 이를 통해 독자는 기도와 수행이 단순한 개인적 명상의 차원을 넘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욱 깊고 조화롭게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음을 알게 된다.

묘장 스님은 “기도는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수행의 첫걸음이며, 스스로와 사랑하는 이들을 보호하고 행복으로 이끄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수호신 기도’는 그 시작을 돕기 위해 집필된 책입니다”라고 설명했다.

책은, 불자는 물론 수행 경험이 없는 일반인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기도문과 함께 상세한 설명과 실천 팁을 수록했다. 특히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 사회 속에서 불안과 스트레스를 느끼는 사람들에게 내면의 평온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실질적인 가이드라고 할 수 있다. 〈수호신 기도〉의 가장 큰 힘은 그 상세한 설명과 실천 팁으로 인해 기도하는 동안 점점 기도 성취에 대한 믿음이 커진다는 것이다.

묘장 스님은 실제 수행 경험과 많은 사람들과의 상담을 바탕으로, 기도가 주는 긍정적 효과를 구체적 사례를 통해 설명하며, 독자에게 공감과 희망을 전한다.

일본 선승이 쓴 한국불교사



한국선교사
누카리야 카이텐 지음
호경 스님 역
민족사 / 7만8천원

일본 조동종 선승인 누카리야 카이텐이 1930년 출간한 〈한국선교사(원저명:조선선교사)〉는 한국 불교사를 서술하고 있는 책 중에서 몇 안 되는 명저로 알려진 책이다. 한국어로는 1978년 정호경 스님의 번역으로 출간됐으며, 1977년 정호경 스님으로부터 전강을 받은 일초 스님이 학은에 보답하는 의미로 이번에 다시 발간했다.

저자인 누카리야 카이텐(1867~1934)은 고마자와대학 학장을 지냈다. 이후 그는 1929년 이 책을 쓰기 위해 우리나라에 머물면서 많은 자료를 모았다. 그 자료를 바탕으로 고마자와대학에서 한국불교사를 강의했고, 그 결과로 〈한국선교사〉가 출간됐다.

책은 삼국시대부터 근대 초기까지 비문 등 모든 자료를 모아 서술한 통사적 성격의 책이다. 선승과 교학승들을 총망라하여 서술한 인물사 중심의 한국불교사로, 특히 한국 선사상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

책은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했다. 제1편에서는 해동불교의 기원을 밝히고, 삼국의 불교를 비교해 적고 있다.

제2편에서는 해동에서 선종이 시작되고 전개되는 과정과 주요 인물·선풍을 조명한다.

‘선교 병립의 시대’라고 크게 적고 있는 제3편에서는 고려의 불교를 자세하게 기술한다. 선교 병행의 시대적 양상 속에서 전개된 국사·왕사 제도, 문교의 흥행, 간화선, 그리고 망국적 불사 등 고려 불교의 흥망을 촘촘하게 적고 있다.

제4편에서 적고 있는 것은 배불의 시대인 조선의 불교다. 선교 쇠퇴의 시대라고 요약한 조선의 불교를 적고 있는데, 책의 끝에서는 “멸하는 것 같으면서도 멸하지 않았고, 쓰러질 듯하면서도 쓰러지지 않은 조선불교”라고 적고 있다. 박재완 기자

화제의 신간

사랑하는 사람을 보호하는 3일 기도

3일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삶의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책!
실천 가능한 기도의 방식과, 수행의 가치를 알기 쉽게 설명한 책!



“기도는 마음을 변화시키고 행복으로 이끄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기도는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수행의 첫걸음입니다.
‘수호신 기도’는 그 시작을 돕기 위해 집필된 책입니다”



수호신 기도
사랑하는 사람을 보호하는 3일 기도
묘장 편저 | 112쪽 | 10,000원

현재 연화사 주지. 국제구호단체 더프라미스 이사장,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 이사, 불교신문 논설위원. 아이티 대지진, 동일본 대지진, 태국 대홍수, 네팔 대지진, 포항 지진, 모로코 지진에 재난구호활동과 우크라이나 전쟁난민 지원 활동을 하였다.
저서로 『도표로 읽는 부처님 생애』가 있으며, 나는 절로 초계종사회복지재단 대통령상 수상(2024), 조선일보 ‘아이가 행복입니다’ 어워즈 대상을 수상(2024)하였다.

민족사 02)732-2403~4 | www.minjoksa.org

불교적으로 재구성한 '공생적 ESG 경영'



붓다 경영
선지 스님 지음
담앤북스 / 1만8천원



ESG 경영 궁극은 지속가능 사회 유지
불교경영 · ESG경영 이론적 종합 시도
공생적 ESG 구체적 실천방안 제시
"종합적 노력의 공생적 ESG 경영이 지구촌 지속가능한 발전 바탕 될 것"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전 세계가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ESG 경영에 주목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날 불교계가 추구해야 할 미래 또한 다르지 않음을 직시해야 한다."

미래, 인류의 미래, 그 미래의 지속성을 의심한다는 것, 언제부터인가 인류의 (밝은) 미래는 그렇게 '숙제'가 되었다. 인류의 '미래'는 더 이상 당연한 '시간의 문제'가 아닌, 노력하고 극복해야 맞이할 수 있는 추구의 차원인 것이다.

책 〈붓다 경영〉은 세계적인 흐름이 된 ESG 경영을 불교적 관점에서 이해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그 사상적 근거를 살핀 '공생적 ESG 경영'을 제안한다. ESG 경영의 궁극적 목적은 지속가능한 사회를 유지하는 데 있다.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환경(Environment), 사회적 책임(Social), 지배 구조(Governance)이며, 이를 실천하는 방법이 바로 '공생적 ESG 경영'이다. '공생(共生)'이라는 말은 부처님께서 설하신 연기법의 원리에 따라 모든 존재가 서로 의지하고 관계를 맺고 있음을 뜻한다.

책에서는 불교적인 ESG 경영 이론을 도출하기 위해 불교의 경영 이론과 ESG 경영 이론을 검토하고 이론적 종합을 시도한다. 이어 한국 불교와 이웃 종교의 ESG 경영활동 실태를 점검해 각 종교들이 어떤 문제의식과 가치로 운영되고 있는지 살핀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 불교가 공생적 ESG 경영을 도입하고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저자인 선지 스님〈사진〉은 공생적 ESG 경영이 사회의 이익 증가와 행복 증진을 위한 종합적인 노력으로, 불교뿐만 아니라 지구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바탕이 될 것이라고 강조한다.

ESG는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 구조(Governance)의 약자로 기업의 비재무적 성과를 측정하는 지표이다. 오늘날 기후위기와 사회 양극화가 심화함에 따라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향하는 ESG 경영이 전 세계적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유럽연합(EU)과 미국 등은 기업의 ESG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등 관련 규제를 강화하고, 주요 신용평가회사들도 ESG 경영 여부를 기업 가치 평가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지난해 국내 기업 중 자산 총액 2조원 이상의 법인 63%가 ESG 경영의 일환으로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공시했고, 업체들은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기 위해 경쟁적으로 ESG 경영을 내세운다. 이제 ESG 경영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대학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ESG 경영이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인 것이다.

이런 세계적 흐름에서 한국 불교계는 한 발 비켜 있어도 되는 것일까? 〈붓다 경영〉은 불교적 관점에서 ESG 경영을 이해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그 사상적 근거를 살펴 '공생적 ESG 경영'을 제안하는 책이다. '공생(共生)'은 부처님께서 설하신 연기법의 원리에 따라 모든 존재가 서로 의지하고 관계를 맺고 있음을 뜻한다. 따라서 '공생적 ESG 경영'은 연기법을 바탕으로 인류의 공존과 번영,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자는 불교적 경영 개념이다.

저자는 "ESG 경영 원리가 기업을 넘어 다양한 사회 조직의 운영 원리로 수용되고, 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가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며 "불교계 역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ESG 경영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제안한다.

책은 크게 △불교적 ESG 경영 이론 도출 △한국 불교의 ESG 경영 실태 점검 △공생적 ESG 경영 방안 모색, 세 부분으로 나뉜다.

△먼저 '불교적인 ESG 경영 이론 도출'에서는 주요 경전에 나타나는 경영관과 현대적 관점의 불교적 경영관을 검토해 ESG 경영 이론을 불교적 맥락에서 재구성한다. 〈대지도론〉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공생 사상을 체계화하고, 슈마허와 미야사카 유요 등의 저술에서 불교 경영관의 실천 원리를 찾는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공생적 ESG 경영 이론'을 정립하고, 이를 실제 불교 조직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를 검토한다.

△'한국 불교의 ESG 경영 실태 점검'에서는 한국 불교 각 종단과 단체, 대만 자제공덕회 등의 ESG 경영 활동 사례를 발굴, 분석해 그 의의와 한계를 살핀다. 또 한국 천주교와 개신교의 ESG 경영 활동을 점검하고 비교해 과제를 도출한다.

△'공생적 ESG 경영 방안 모색'에서는 한국 불교 종단 차원에서 공생적 ESG 경영을 도입하고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한다. 환경 분야에서 자연환경과 수행환경 유지, 사회 분야에서는 동반성장과 다양성 및 양성평등 지향·지역사회 봉사, 지배 구조 분야에서는 윤리 경영 준수·사찰운영위원회 활성화·신도의 사찰 운영 참여 확대 등을 제안한다. 이어 불교계의 공생적 ESG 경영을 평가하고 점검하기 위한 지표를 제시해 실행을 뒷받침한다.

저자는 "공생적 ESG 경영은 환경운동, 대사회적 관계 형성, 갈마법과 대중공사의 원리를 바탕으로 사찰 운영의 투명성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보살 사상의 현대적 실천이라 할 수 있다"며 "불교계의 공생적 ESG 경영 선언과 실천은 지속가능한 환경 유지와 사회적 불평등 완화, 사회구성원들의 상생과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불교계뿐만 아니라 지구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한다.

선불교 앞서 천태교학이…



천태불교의 이론과 실천
브룩 지포린 지음, 정천구 옮김
운주사 / 3만원

천태불교는 인도의 전통과 중국의 전통이 만나 일궈낸 것으로, 독창적이고 혁신적인 철학이다. 책 〈천태불교의 이론과 실천〉(대원불교 학술총서 26)은 선불교에 앞서 인도불교를 중국불교로 정착시키고 토착화한 천태불교의 교학체계와 수행체계 전반을 서구 철학자의 안목으로 조명한 책이다.

중국 불교의 독창성을 이야기할 때, 선종 또는 선불교가 먼저 거론된다. 중국에서 가장 오래 번성한 종파가 선종이고, 근대 이후에 서구에 먼저 알려지고 연구 대상이 된 것이 선불교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엄밀하게는 선종 이전에 천태종이, 선불교에 앞서서는 천태교학이 먼저 중국적이면서 독창적인 철학을 마련하고 체계화했다고 해야 맞을 것이다. 책은 바로 그 점을 입증하고자 탐구한 결과물이다.

책은 모두 10개의 장으로 구성됐다. 천태불교의 존재론, 형이상학, 인식론, 윤리학들에 대한 해석을 제시한다. 이 이론들은 불교의 일반적인 개념들, 즉 괴로움, 연기법, 무아, 욕망, 공, 본각, 불성 등을 천태종 전통에서 독창적으로 적용한 결과물이다. 그리고 그 이론들은 〈법화경〉의 서사적 혁신에 의해 근본적으로 재조정된 것들인데, 천태종 전통에서 그렇게 한 방식에 대한 해석도 제시한다.

책에서는 난해하게 여겨질 수도 있는 천태종의 주요한 관념들과 선례들을 일반인들에게도 생소하지 않은 용어들로 설명하고 했다.

박재완 기자

관음신앙의 진면모를 본다



관음신앙 경전 연구
김방울 지음
운주사 / 2만3천원

〈관음신앙 경전 연구〉는 '한국에서 가장 보편적이면서도 민중적인 불교신앙은 무엇일까?'라는 질문에서 출발한 책이다.

책은 그 답이 관음신앙이라고 보고 불자들이 가장 널리 신앙하고 있는 관음신앙의 전개 과정을 경전 성립의 맥락을 통해 입체적으로 고찰한다.

부처님은 열반 직전, 제자들에게 스스로를 등불 삼고, 진리를 등불 삼아 정진하라고 부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대중은 마음의 의지처, 신앙의 대상을 찾기 시작했다. 그 대상은 부처님에서 여러 보살로 확대됐으며, 그 보살들은 각기 자신의 영역과 영험을 소유하게 되었다. 그 중 대승불교에서 신앙의 대상으로 가장 폭넓은 영역과 강력한 영험을 소유하고 있는 보살이 바로 관음보살이다. 특히 한국불교의 경우, 고려시대에서 조선시대로 갈수록 관음신앙의 확산 또는 관음신앙에로의 수렴 현상이 나타난다.

이는 수많은 관음보살상과 관음보살도의 제작 그리고 사찰 건축에서 관음사, 관음전, 원통전의 건립을 통해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관음신앙 현상을 뒷받침하는 그 실체는 어디에 있는가?

책은 관음신앙의 원천은 불교경전에 근거를 두고 있음에 주목하여 관음신앙을 표방하는 경전들을 시대별로 추출하여 이들을 면밀히 분석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먼저, 관음신앙의 형성과 전개에 어떤 경전들이 영향을 미쳤는지 고찰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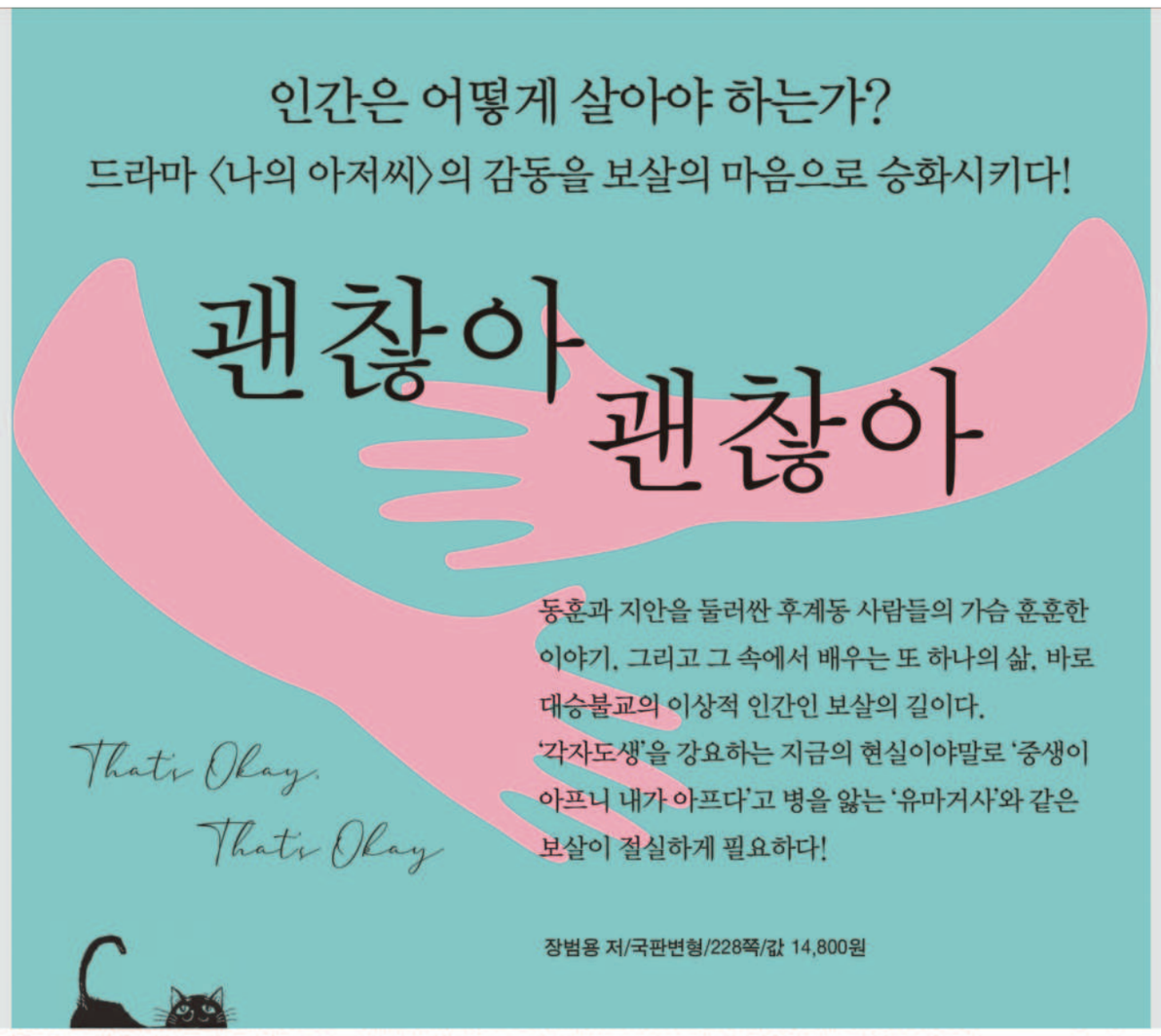
이어서 관음신앙의 전개과정에 대해 고찰한다. 사바와 극락에 두루 머무르며 모든 중생의 고민과 고난을 해결해 준다는 관음보살의 위신과 권능은 무한대에 이르나, 그것이 역사적 표면에 드러난 모습은 일정한 양상을 보인다. 따라서 관음신앙이 실제 간행된 경전들에서는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 경전들에 나타난 관음보살의 모습을 중심으로 관음신앙이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지 고찰한다.

마지막으로, 어떠한 역사적 과정을 거쳐 관음신앙이 대다수 민중들의 보편적 신앙의 대상으로 모습을 갖추게 되었는지를 고찰한다. 관음신앙에 관심 있는 독자들에게 반가울 책이다.

박재완 기자



한국 관음신앙의 뿌리를 찾아서
관음신앙 경전 연구
불자들이 가장 널리 신앙하고 있는 관음신앙이 고려와 조선시대에 어떤 과정을 거쳐 형성되고 전개되어 갔는지를 경전 성립의 역사적 맥락을 통해 입체적으로 고찰하였다.
김방울 저/신국판/양장/320쪽/값 23,000원





이것이 천태불교의 핵심이다!
천태불교의 이해와 실천
인도불교를 중국불교로 최초로 정착시키고 토착화시킨 천태불교의 교학체계와 수행체계 전반을 서구 철학자의 안목으로 알기 쉽게 조명한 역작이다!
브룩 지포린 지음/정천구 옮김/520쪽/값 30,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 자유문고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전화 (02) 926-8361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총무원장 진우 스님의 Weekly 선명상 ⑧ 변화의 모습을 보라



▶한줄 요약
쉘패스 명상은 스스로를 괴롭히는 분별심을 잠시 멈추고, 오직 현재의 순간에 집중하는 연습입니다. 하루 몇 분 동안 눈을 감고 깊게 호흡하며, 내 앞에 나타나는 모든 것을 분별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습을 해 보십시오.

분별심 없이 살아가는 곳이 '정토'

[오늘의 명상]
밝은 낮은 옳고 어두운 밤은 그르던가.
싹 트는 봄은 좋고 열매 맺는 가을은 싫다던가.
상대의 말과 행동을 옳고 그름으로 보지 말고
낮과 밤, 계절을 보듯 변화의 모습으로 볼지라.



해당 삽화는 진우 스님의 한글 게송을 생성형 AI에 입력해 제작했습니다.

세상(사바세계)은 상대적인 두 가지의 모습이라 했습니다.

세상을 대하는 마음도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마음이 현현(顯現)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마음에 드는 것만 선택하려 합니다. 당연히 문제가 생깁니다.

옳은 것을 주장하면 할수록 그른 것이 더 잘 보이게 되고, 좋은 것을 취하려 하면 할수록 안 좋은 것이 더욱 더 두드러지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상반되는 이 두 가지는 손등과 손바닥의 관계처럼 어느 하나만을 취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이 두 가지를 두고 갈등하는 한, 늘 힘들고 괴로운 마음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우선 분별하는 마음을 잘 살펴서 순간순간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옳고 그름이나 좋고 나쁘다는 분별된 마음을 갖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어떤 말이나 행동을 했을 때 감정을 내지 말고 그대로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합니다. 굳이 좋다 나쁘다, 옳다 그르다 분별하게 되면 감정이 생기게 되고, 그 감정은 걷잡을 수 없이 부풀게 되어 어지러운 감정의 마음은 끊임없이 반복될 것입니다.

낮과 밤, 또는 봄, 가을을 분명히 구분을 하되, 어느 것이 더 좋다 나쁘다, 옳다 그르다는 감정을 얹는다면 이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이 될 것입니까.

사람의 말과 생각, 행동 역시 낮과 밤처럼 그저 변화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일 뿐이니, 봄 같은 말을 하는구나, 가을 같은 생각을 하는구나, 낮이나 밤과 같은 행동을 하는구나 하고 구분하는 마음을 가지되, 좋다 나쁘다, 또는 옳다 그르다 라는 감정으로 분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물을 대하는 마음도 이와 같으니, 더 크고 작거나, 높고 낮거나, 넓고 좁거나, 길고 짧거나, 를 분명히 구분은 하되, 상대적으로 분별심을 내어 어느 것이 좋고 나쁘다는 감정을 얹지 않아야 합니다.

감정이란 좋은 감정이 생기면 나쁜 감정도 똑같이 생기게 되어, 끊임없는 분별심으로 인하여 스스로 괴로움을 자초할 수밖에 없으니, 마음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분별하는 감정을 없애는 것이 일생 최대의 과제라 할 것입니다.

세상에 무엇이 더 좋고 나쁜 것이 있을 것입니까. 해 뜨는 동녘은 찬란한 희망의 햇빛이 있어 좋고, 해 지는 저녁은 아름다운 노을이 있어 좋고, 어두운 밤은 고요한 별빛이 있어 좋지 않겠습니까.

나타나는 모든 현상은 두 가지의 변화된 인연의 모습으로 볼 줄 아는 지혜를 가져야 할 것이니, 굳이 좋고 싫거나, 옳고 그름의 분별된 마음으로 스스로를 힘들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 **옳은 것 주장하면 그른 것만 보여**
> **선악 구분 분별하지 않게 노력을**
> **분별 가지면 감정에 끄달리기 마련**
> **'쉘패스 명상'으로 분별심 멈추길**

모든 사람이 분별하지 않는 감정으로 서로를 대한다면 곧 바로 정토(淨土)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갖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 쉘패스 명상입니다. 쉘패스 명상은 스스로를 괴롭히는 분별심을 잠시 멈추고, 오직 현재의 순간에 집중하는 연습입니다. 하루 몇 분 동안 눈을 감고 깊게 호흡하며, 내 앞에 나타나는 모든 것을 분별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습을 해 보십시오. 분별하지 않는 연습이 쌓이면 여여(如如)한 마음을 갖게 되고, 스스로 정토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분별심이 사라진 여여(如如)한 마음을 갖고자 한다면 기도가 해결해 줄 것입니다.

[오늘의 명상]
시간이 가는 것은 고통의 기억을 사라지게 함이요,
시간이 오는 것은 기쁨의 희망을 품기 위함 이네.
가는 시간 잡지 말고 오는 시간 막지 않으면
시간은 항상 즐거운 마음에 멈추어 있으리.

시간이란 때를 말하는 것으로서, 지나가면 과거가 되고 다가오지 않은 시간은 미래가 됩니다. 그리고 현재를 지금이라 하며, 이 세 가지 종류의 시간을 삼세(三世)라 합니다.

금강경의 대가인 덕산 스님께서 남방의 용담 스님을 찾아가는 길에, 길가에서 떡을 파는 노파를 보고 "점심때가 되었으니 떡을 좀 파시오" 라고 말합니다.

노파가 대꾸합니다. "점심은 마음에 점을 찍는다는 뜻인데, 금강경에 '과거심불가득' '현재심불가득' '미래심불가득' 이라 했으니, 만약 스님께서 마음에 점을 찍기만 한다면 돈을 받지 않고 떡을 드리리다"라고 말합니다.

과거의 시간은 이미 지나갔으니 잡을 수 없고, 미래의 시간은 아직 오지 않았으니 잡을 수 없고, 현재의 시간을 잡으려 하니 이미 지나가 버리고,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어느 시간에도 점을 찍을 수 없었으니, 덕산 스님은 노파에게 창피를 당한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덕산 스님이 중얼거렸습니다. "떡 파는 노파가 이 정도이니 용담스님께서는 얼마나 훌륭할 것인가"라며 그날 점심은 쫄쫄 굶을 수밖에 없었다는 유명한 일화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시간의 실체는 본래 없으나, 관념(觀念)의 망상(妄想)이 만들어낸 업(業)의 모양에 불과한 허상입니다.

그러나 마음의 모양에 따라 때로는 길게, 때로는 짧게,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것이 또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시간은 즐거움과 괴로움의 감정을 반복하여 실어다 주는 인과의 수레에 해당합니다. 각자의 업에 따라 원인과 결과를 가져다주는 마음의 수레가 시간입니다.

따라서 어차피 즐거움의 시간과 괴로움의 시간은 똑같은 질량(質量)으로 번갈아 다가오게 되어 있으므로 그 어떤 누구라도 시간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피할 수 없는 시간이라면 괴로움의 시간은 과거로 빨리 털어 보내버리고, 미래의 시간은 아직 다가오지 않아 미리 걱정하는 마음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늘 편안한 마음을 유지하는 이가 진정 현명인이라 할 것입니다.

쉘패스 명상은 시간의 흐름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실천은 간단합니다. 잠시 멈추어 호흡에 집중하고, 지금 이 순간의 소리와 감각을 느끼며, 지나가는 모든 것을 자연스럽게 흘려보내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 명상은 우리가 시간을 억지로 붙잡거나 걱정하지 않게 하며, 현재의 평화로 이끄는 길을 열어줍니다.

그러므로 시간을 잘만 사용한다면 모두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묘술(妙術)이 될 것입니다. 이를 구하려면 기도가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시간을 복된 마음으로 맞이하며, 염불하고 베풀며 평화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2016년 시작해 10년 만에 회향한 역경 대작불사

『화엄경소론찬요華嚴經疏論纂要』
전 26권 완간

오늘날 최고의 『화엄경』 주석서,
『화엄경소론찬요』!
혜거 스님의 군더더기 없는
직역으로 만나다!



혜거 편저 | 각 권 25,000~35,000원

인류사에서 가장 위대한 『화엄경』의 가르침

『화엄경』은 부처님 세계에 대한 참모습을 밝히며
'진정한 삶이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준다.
우리는 누구이며, 이 세계는 어떤 곳이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해답이
바로 이 『화엄경소론찬요』에 명쾌하게 펼쳐져 있다.

편저 혜거 스님 _ 탄허 스님을 은사로 득도. 평생 공부와 참선을 통해 자기 수행을 강조해온 스님은 경전 번역에 매진하는 한편, 1988년 서울 강남에 금강선원을 개원했다. 금강선원 선원장을 비롯해 한국전통불교연구원 원장, 탄허기념박물관 관장, 동국역경원 원장 등을 역임했다. 생전 저술과 번역, 강론을 통해 불법을 홍포하는 자비보시행을 실천해온 스님은 2024년 11월 4일 금강선원에서 세연을 거두고 입적했다.



불광출판사 전화 02) 420-3200 | www.bulkwang.co.kr | 불광미디어

교구자치시대, 24교구본사를 가다 ❷ 조계종 제4교구본사 월정사

“현 시대 해법은 ‘화엄’…세상에 ‘화엄선’ 전하겠다”

오대산, 불교신앙 · 인문학 등의 성지
명상 · 박물관 마을 조성, 사격 ‘일신’
聖殿 중심 아닌 사람 중심 불사 지향
문화–수행–보살행 연계된 도량 추구



퇴우 정념 스님은…만화 희찬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80년 5월 월정사에서 일타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85년 9월 범어사에서 자운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1980년 5월 월정사 수선안거 이래 58안거를 성만했다. 조계종 제11~13대 중앙종회의원과 재단법인 나눔의집 이사, 지구촌공생회 이사,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등을 역임하고, 2004년부터 월정사 주지를 맡고 있다.

대담=한명우 대표이사 · 정리=신중일 기자

고려시대 고승 일연 스님이 쓴 〈삼국유사〉에 가장 많이 기록된 사찰은 어디일까? 바로 조계종 제4교구본사 오대산 월정사(주지 퇴우 정념 스님)이다. 〈삼국유사〉에서는 월정사를 일컬어 ‘유일한 명당’ ‘불교가 길이 번성할 터전’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만큼 상서로운 곳이라는 것이다.

실제, 〈삼국유사〉에 따르면 동대 만월산(滿月山)에는 1만 관세음보살, 남대 기린산(麒麟山)에는 8대 보살과 1만 지장보살, 서대 장령산(長嶺山)에는 무량수여래(아미타불)와 1만 대세지보살, 북대 상왕산(象王山)에는 석가여래와 500 아라한, 중앙 풍로산(風爐山)에는 비로자나불과 1만 문수보살이 항상 머문다.

오대산이 피워낸 고찰 월정사는 불교·인문학과 명상 치유 문화의 성지로 발돋움하고 있다. 2023년 11월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이 개관하며 ‘화룡점정’을 한 박물관 마을에는 월정사성보박물관, 한강시원지체험관 등 3곳의 박물관이 모여있다.

박물관 마을 맞은편에는 국내 최고 명상 힐링 공간으로 평가받는 ‘오대산 자연명상마을(Odaesan Meditation Village, 이하 옴뷔)’이 있다. 2018년 개관한 옴뷔는 100실 규모의 거대 명상마을로 참선뿐만 아니라 선요가, 경청명상, 걷기명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월정사의 사격이 일신을 이룬 데에는 주지 퇴우 정념 스님의 공이 크다. 2004년 첫 주지 소임을 맡은 이래 6번 연임한 퇴우 정념 스님은 월정사 변화의 중심에 있었다. 2월 17일 경내 접견실에서 진행된 퇴우 정념 스님과 한명우 현대불교신문 대표이사의 대담을 정리했다.

Q 지난 2월 12일에 갑진년 동안거를 마치셨습니다. 마치신 소감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주지 소임을 보며 안거에 임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도 참선 수행이라는 것이 중독성이 있어서 안하면 이빨 하나가 빠진 것 같아요. 공부도 때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젊었을 때에는 선원에 방부를 들여 안거를 나는 것이 마음을 쉬어간다는 느낌도 있었는데, 지금은 앉아 있는 것 자체도 쉬운 것은 아닙니다. 이제는 대단한 공부를 해야겠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덤덤하게 안거를 결제하고 또 해제하고 있습니다.

Q 월정사 주지를 맡으신 후 월정사의 사격은 ‘일신했다’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월정사의 사격을 변화시킨 불사의 기조와 목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월정사는 창건 이래 세 번의 전소와 복원이 있었습니다. 고려시대 충렬왕 33년(1307년) 화재로 절 전체가 타버린 것을 다시 재건했고, 조선 순조 33년(1833년) 또 다시 다 타버린 것을 헌종 10년(1844년)에 다시 중건했습니다. 6.25한국전쟁 당시 국군이 청야전술의 일환으로 월정사를 불태웠습니다.

만화 희찬 스님께서는 상원사 주지와 월정사 주지를 지내며 탄허 스님을 모시고 오대산 가람을 일신하셨습니다. 당시에는 전소된 전각을 복원하며 전통사찰로서의 사격을 만드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앞으로 종교는 ‘성전(聖殿) 중심’이 아니라 ‘교육과 수행’ 중심으로 변화할 것입니다. 월정사는 가람 불사는 이런 변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앞으로의 도량은 사람이 살며 교육받고 수행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기실 오대산은 불교·인문학·정신문화의 성지입니다. 풍수적으로는 맹호출림(猛虎出林)의 터로 임금이 오고, 큰 인물이 나오는 땅이라고 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신미·사명 대사 등이 오대산에 계셨고, 나옹 스님이 북대에 주석하시며 법을 설하셨습니다. 유생들도 오대산에 와서 유랑기 같은 시문을 쓰곤 했습니다.

신앙적으로는 자장율사가 개산 이후 보천·효명 태자가 오대산에서 수행했고, 효명 태자가 왕위를 이어받은 후에도 보천 태자는 이곳에서 수행을 이어갔다. 신라 왕실에서 오대를 지원하며 명실상부한 수행처가 됐습니다. 이렇게 보면 오대산은 최초의 신앙결사 도량이자 최소의 성산(聖山)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불교신앙·인문학을 바탕한 정신문화가 오대산에 풍부하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 것이 월정사의 중요한 자산입니다.

Q 월정사 하면, 지역과 함께하는 사찰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무엇보다 오대산 문화축전은 평창 진부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축제가 됐습니다. 이 같은 문화포교에 매진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신지요.

A. 종교는 문화를 창달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이제 종교는 문화 창달 능력이 없으면 한계에 직면하게 됩니다. 세상에 영향을 줄 수 없으면 종교는 화석이 되어버리고 말죠. 오대산 산중에 내려오는 전통성을 이 시대에 새롭게 재해석해 대중에게 전하는 것이 문화적 창달이라고 봅니다. 오대산 문화축전은 이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지역과 함께하는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의 복지 사각지대를 찾아 사회실천사업을 전개하고 청소년 인성함양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것도 지역 발전을 위한 노력입니다. 실제 월정사는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담당하는 법인체들이 많습니다.

앞으로 해야 할 일도 무궁무진합니다. 오는 5월 정식 개관하는 조선왕조실록박물관에는 미디어 아트 등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생깁니다. 이를 통해 우리 역사를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박물관을 그냥 두면 전시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찰-민간-지자체가 함께 하는 선양회를 구성해 본격적인 문화 연계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올해 중으로 국제청소년명상센터가 개원하면 청소년 명상 문화의 허브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지난해 아이비리그 학생들이 단기출가학교에 참여했는데, 이 같은 교류사업들을 다각도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오대산에 내려오는 사상적 담론이나 미래적인 방향성을 정리하고 연구하는 ‘화엄선연구소’를 새롭게 개원했습니다. 이를 통해 새로운 정신문화 패러다임을 창출하려고 합니다.

Q 방금 말씀주신 ‘화엄선연구소’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A. 현대사회의 문제는 파편화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중중무진한 법계 연기적 관점에서 세상을 설명하는 ‘화엄’은 현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사상입니다. 실제 기후위기, 평등, 양극화, 기술혁명의 문제들은 연결된 현상 속에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기후위기 문제는 우리 공동의 문제입니다. 나의 행위가 기후 위기 극복에 얼마나 부적합한가, 그런 일이 사회에 일어나고 있지 않는가를 성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것이 나와 연결되는 문제임을 알게 하고, 이 힘을 키워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힘을 키워주는 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화엄선’은 모든 것이 나와 연결돼 있음을 아는 인식 전환을 통해 세계가 나와 둘이 아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존재에게 자비심을 갖는 긍정의 패러다임으로 인식을 전환하고, 이를 바탕으로 모든 존재들에게 자비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보살행을 실천하는 ‘시민보살’이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누군가 그랬습니다. ‘100채의 건물보다 사람 한 명을 길러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문화로 불교에 접근하고, 교육과 수행을 통해 인식을 전환하며 나아가 보살행을 실천하는 불교인을 배출하는 것, 그것이 월정사가 궁극적으로 표방하는 ‘불사’입니다.

Q 월정사는 단기출가학교가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이제는 20살이 넘은 단기출가학교는 현대사회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A. 출가는 불교 정신을 구현하는 일입니다. 행자로서 살아보면서 불교적 소양을 실제로 배워보는 체험교육프로그램입니다. 몸은 잠깐 동안 와서 출가하지만, 심(心) 출가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학교를 마치고 세간으로 돌아가도 출가정신을 기반으로 살아가는 ‘보살행자’가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삶의 현장을 도량으로 삼고, 생활과 수행이 유리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 수행자의 길임을 아는 것입니다.

(실제, 퇴우 정념 스님이 선보인 단기출가학교는 월정사를 대중에게 알리는 계기가 될 정도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고, 남녀노소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학교에 입학했다. 약 3500여 명이 출가학교에 입학해 수행했으며, 이중 350명은 사문(沙門)의 길로 나아갔다. 최근 졸업한 68기에서도 3명이 출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Q 사회가 혼란합니다. 불자와 국민들에게 당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불교적으로 보면 현 상황은 공업(共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문제는 우리가 함께 세상을 일궈 오면서 누적돼서 나타납니다. 그렇게 보면 너나 나나 책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잘못한 것이 뭐가 있냐, 저 사람이 문제지’라고 쏘아붙이죠. 그러면 문제가 해결이 안됩니다. 도리어 상대방을 증오하게 되죠.

이 같은 분노, 증오의 불길을 끄는 것은 자기성찰입니다. 스스로를 깊게 돌아보고, 스스로에 평정심을 갖는 것입니다.

이제 입춘이 왔습니다. 입춘이 오려면 소한과 대한을 거쳐야 됩니다. 가장 어둡고 난 다음, 광명이 찾아옵니다. ‘물극필반(物極必反)’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물이 극에 달하면 원위치로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을사년을 자비의 마음으로 지혜롭게 보낸다면 새로운 희망의 빛은 머지않아 우리를 비출 것입니다.



지난해 열린 미국 우든피쉬재단이 참여한 출가학교에서 퇴우 정념 스님이 외국인 학생에게 삭발을 해주고 있다.



지난 2월 2일 열린 을사년 신년하례법회에서 퇴우 정념 스님과 법회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명우 본지 대표이사가 퇴우 정념 스님에게 질문하고 있다.

자비 24시 ❸ 사회복지법인 연화원


연화원 책꽂이에는 점자 서적이 가득했다. 〈점자 불교성전〉은 올해 상반기 6권이 발간된다.


종이 위 흰 점들은 이웃들이 불법을 읽을 수 있는 길을 밝히고 있었다.


사회복지법인 연화원은 매주 일요일, 시각장애인들이 동참하는 법회가 열린다. 제각기 읽을 수 있는 경전을 든 불자들은 반야심경을 독송했다. 현대불교 자료사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만드는 사회

서울 광림사 산하 복지법인
장애인 교육 · 복지, 전법 시설
신도 중심 장애인 활동 '활발'
장애인 인식 개선 사업도 ↑
〈점자 불교성전 6〉 발간 앞둬
"장애인 문화시설 설립하겠다"

김가령 기자 gugoose66@hyunbul.com

"기자님, 등산 좋아하세요?"

"등산이요? 글쎄요…."

슬쩍 다가와 '등산 좋아하느냐'는 질문을 꺼낸 거사님. 대답을 뜸 들이는 모습을 보더니 자신의 핸드폰 사진첩을 보여줬다.

"제가 매주 등산을 다니거든요? 연화원 식구들끼리 가는 건데 전국 곳곳의 산이란 산은 다 찾아다녀요."

신이 나 말하는 거사님의 핸드폰 사진첩에는 여러 사람이 산 정상에서 플래카드를 들고 웃는 모습 등 여러 장면이 담겨 있었다. 그 사이 흥미로운 사진이 눈에 들어왔다. 한 보살님이 거사님 등산 가방에 묶인 끈을 잡고 산을 오르는 사진이었다.

"가방에 끈을 달아두셨네요?"

"끈을 잡으신 분은 시각장애를 가진 불자님이세요! 비장애인 봉사자의 가방에 잡고 따를 수 있는 끈을 매서 안전한 길로 산을 오를 수 있는 거예요. 연화산악회는 장애인, 비장애인 분들 다 함께 산을 오르면서 서로를 이해하고 친밀해지는 모임이죠."

조계종 광림사 산하 사회복지법인 연화원(이사장 해성 스님, 광림사 주지)의 원년봉사 멤버 신광욱(74) 연화산악회 회장은 등산모임 홍보에 여념이 없었다. 7년째 이어온 연화산악회는 지리산, 태백산, 함백산 등 전국에서 안 가 본 산이 없을 정도. 더욱 놀라운 것은 회원 중 절반이 시각장애인으로 이들은 빠짐없이 등산에 참여하고 있었다. 비장애인 봉사자들이 이들의 눈과 발이 돼 함께 산을 오르내리는 것이었다.

신 회장은 지체장애인들과 전국 사찰을 순례하는 '법륜회'를 만들기도 했는데, 여기에는 연화원 이사장 해성 스님의 지원이 뒷받침됐다. 모임 소식을 들은 해성 스님은 직접 이름을 지어주고 소정의 활동비까지 지원했다. 이 덕분에 불자, 비불자 지체장애인과 그 가족들 모두가 함께하는 추억을 만들 수 있었다.

함께 어우러져 취미 활동하는 모습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구분은 없었다. 단지 서로의 편의를 위한 배려와 도움만이 있을 뿐이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살기 위해 어떤 마음가짐이 필요한지 묻자 해성 스님은 연화원에 있었던 한 사례를 이야기해줬다. 후천적 청각장애인과 그 가족의 이야기였다.

연화원에 열심히 출석하며 수화를 배우던 한 청각장애인 이용자가 어느 날부터 발길을 끊자 스님은 무슨 일인지 걱정했다. 가족에게 연락해 방문한 집에서 다시 만난 이용자는 다행히 건강했으나, 가족들이 그의 야외활동을 막은 이유가 궁금해졌다.

"청각장애인은 후천성인 경우가 많아요. 그 가족들은 갑자기 청각장애인이 된 가족 일원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거죠. 비장애인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길면 장애를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큰 목소리로 말을 거는 행동을 반복했던 거예요. 결과적으로 청각장애인 분의 생활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가족이 장애를 얻어 예전과 다른 모습이 된다면 적응하기 어려울 수 있다. 해성 스님은 "장애인은 장애인으로서 삶을 꾸려나갈 권리가 있다"고 가족들을 설득했다. 스님의 진심어린 설득에 감화된 가족들은 이용자를 다시 연화원에 데려다주기 시작했다.

해성 스님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행복하려면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한 사람을 보고 '이상해' 같은 생각을 하는 것은 판단이고 분별심"이라며 "판단분별을 버려야 남을 보는 내 마음에도 걸림이 없어 모두가 평화로워진다"고 설명했다.

연화원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우러진 세상을 만들기 위해 문을 열었다. 2003년 사회복지법인으로 출범하기 전인 1993년 2월부터 연화원은 장애인의 권익 향상을 위한 활동을 이어왔다. 장애인 배움터 '연화 복지학원', 장애인 전법을 위한 '불교수화 용어집' 발간, '청각장애인 운전교육 비디오' 제작…. 장애인을 위한 사회적 인프라가 미비했던 시절, 연화원은 장애인 복지의 선도기관이었다.

장애·비장애인이 상생하는 사회를 위한 인식 개선 사업을 펼치는 연화원은 장애인 스스로의 인식 개선을 위해서도 노력 중이다. 사회의 부정적 시각들을 느낀 장애인들은 자신의 존재를 비하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연화원은 장애인 역시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서 권리를 갖는다는 자신감을 심어주고자 했다.

장애인들이 주인공으로 무대에 오르는 '수어사랑음악회'는 그 대표적인 예다. 매년 연말 개최하는 음악회는 장애인들에게 불교문화 공연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 비장애인들은 장애인들과 함께 공연을 즐기며 하나됨을 느끼고, 장애인들은 다른 장애인들에게 또 다른 삶의 지평을 보여준다.

올해 연화원은 부처님오신날에 앞서 〈점자 불교성전〉 6권을 발간한다. 시각장애인들의 여법한 법회 참여를 위해 2013년부터 제작되어 온 점자 불교성전은 불자 뿐만 아니라 비불자 시각장애인들도 오매불망 기다리는 책이다.

강태봉 한국시각장애인불자회 회장은 점자 불교성전이 시각장애인들이 자유롭게 읽을 수 있는 책 중 한 권이라고 말했다. 강 회장은 "불자라면 기본적인 교리 교육을 받아야하는데, 장애인을 위한 교재나 교육이 미비한 상태에서 점자 불교성전은 크나큰 도움이 됐다"며 "비불자 시각장애인들도 점자 불교성전 발간을 반기며 '다음 권은 언제 나오냐' 등 기대감을 보여줬다"고 밝혔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다름없이 살아가는 삶을 위한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연화원은 앞으로도 장애인 문화 증진과 신행 활동의 전당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하나의 건물을 장애인 문화시설로 만들고 싶다는 게 해성 스님의 바람.

"장애인들이 주체가 되는 문화시설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한 공간에 장애인 카페, 시각장애인 안마소 등 장애인들이 제공하고 누리는 서비스가 한 데 집약된다면 장애인 복지도 크게 증가하고 사회 평등도 실현될 겁니다. 장애인도 이웃처럼 생각하는 많은 분들의 동참이 이어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해성 스님 사회복지법인 연화원 이사장



Q. 사회복지를 시작하신 계기가 있나요?

A. 수화를 배우면서 듣고, 말하고, 볼 수 있는 게 굉장히 감사한 일이란 걸 깨달았어요. 그 감사함을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고 싶어 시작하게 됐습니다.

Q. 연화원의 주요 목표가 무엇인가요?

A. 장애인도 사회의 일원으로서 활동할 기회를 제공하는 게 주요 목표예요. 이를 위해 연화원에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거나, 장애인이 주인공이 되는 활동을 꾸려나가고 있어요.

Q. 복지현장에서 되새기는 부처님 가르침이 있으신지.

A. 〈잡보장경〉의 "태산같은 자부심을 갖고 누운 풀처럼 자신을 낮추어라"라는 말을 언제나 되새기고 있어요. 나를 낮추는 '하심(下心)'이 있어야 자만심이 사라져 상대방과 화합할 수 있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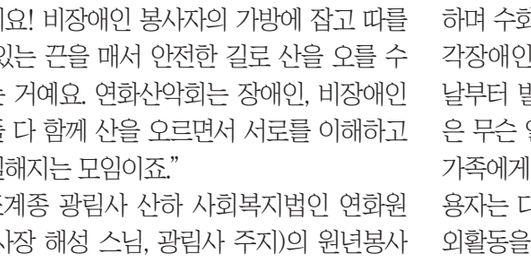
Q. 불교사회복지는 어디로 나아가야할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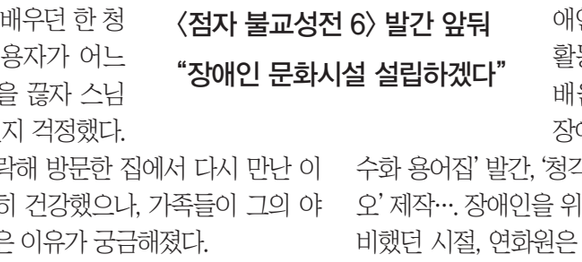
A. 불교계가 장애인들의 신행 활동에 도움이 될 환경을 구축해주길 바라고 있어요. 30년 전에 비하면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만, 아직 나아갈 길은 열려 있다고 생각해요. 장애인 법회, 장애인 템플스테이 등 사찰에서 장애인들이 즐길 수 있는 게 많아지면 불교에 대한 관심도 더더욱 커지지 않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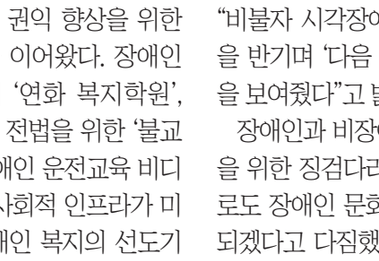
Q. 사회복지계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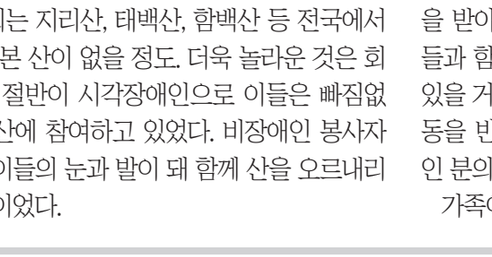
A. 사회가 선진화 될수록 집계되는 장애인 수가 늘어나는데, 이것은 장애인을 돌볼 인프라가 늘어나고 있다는 증거와 같아요. 장애인을 낯설게 생각하지 않고 평범한 이웃이자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함께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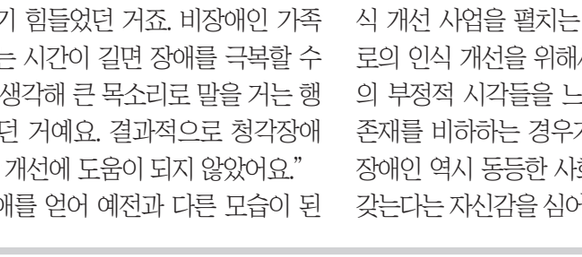
해광산업
해광양초는 특별한 양초로 양초에 정성과 향을 담습니다
"자연친화적향의 향기가 법당에 스며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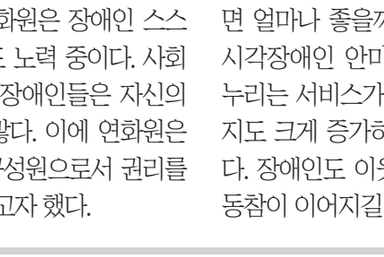
침향향을 담은 양초

육각 원기둥 돈타레 밀대 1호

약쑥향을 담은 양초 (강화도 사자발 약쑥)

원기둥 돈타레 밀대 1호 2호 3호

PC 팜 원통초

대 중 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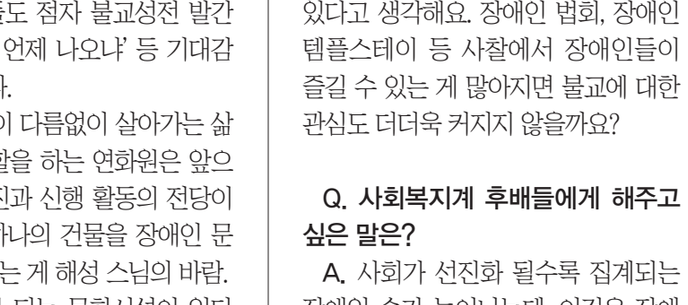
연꽃향을 담은 양초

육각 원기둥(중) 원기중(소) 1호

밀랍향을 담은 양초

원기둥 돈타레 밀대 1호 2호 3호

밀납향을 담은 초

대 중 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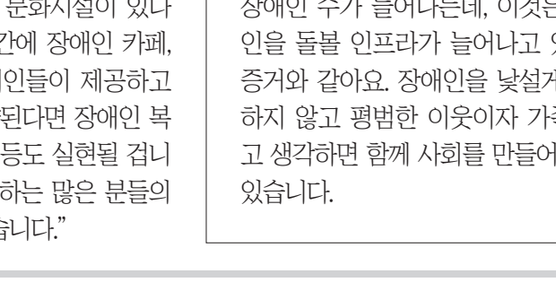
해광산업 주문전화번호 031-333-0242, 010-5848-0189

(구)삼환양초가
중국 대련에서 40년 기술 노하우를
현지 공장에 전수하여 관리 생산한
최고급 중국산 대련양초를 자신있게 소개합니다.



WWW.SHCANDLE.COM

NAVER 삼환양초


원기둥 돈타레 밀대 쌍대

*유통 마진 없이 소비자 여러분께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삼환양초 주문전화번호
031-337-0243, 010-2308-0189

2025년 2월 26일 수요일 | 불기 2569년

접 수 문자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이메일 hyunbul1994@naver.com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10-4648-8200

가 격 ◆가로 6㎝: 5만원/회 ◆가로 12㎝: 10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불자정보

1520호 | 15 | 전면광고

도에 가까우면 이름이 드러나서 높은 산의 눈과 같고, 도에서 멀면 지혜에 어두워서 밤에 화살을 쏘는 것과 같다.



부처님 말씀 읽기 - 《법구경》에서

광 진 불 사

- 위치 : 경기도
- 부지 : 700평
- 건평 : 150평 외
- 산 밑 차량진입, 주차가능
- 매가 : 25억

- 위치 : 부산포교원건물
- 면적 : 120평실평
- 3층/5층, ev유
- 공원옆 건물, 주차가능
- 매가 : 13억

※40년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상담 받습니다.
※사찰관련 컨설팅, 채권상담 등 상담받습니다
※전국 사찰, 땅, 다량 보유 *부전, 공양주, 처사 소개합니다.
신행상담, 사찰순례, 채권상담, 종교법인 상담받습니다.

010-4586-4525

제주 (땅) 안내

- 전답 : 약 3천평 평당 50만원
- 팬션, 주택, 농장, 노후투자 확실 (도로접근최고) 일주도로 70m거리
- 현재 : 밀감 및 조경수 식재 300m 안에 (바닷가, 목욕탕, 마트, 면사무소, 우체국, 병원, 한의원, 소방서, 초 · 중학교)
- 주인직접전화

010-2104-2040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북부 지역
- 부지 : 약 1300평 대웅전 약사전 산신각 요사채2동
- 석등 포대화상 황토방
- 명혈 명당 경관수려함
- 납골당 · 봉안당 허가 가능
- 가액 : 8억 절충

010-4599-0103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고성
- 총평수 : 380평
- 대웅전, 산신, 용왕, 노천 해수관음상
- 요사채 30평(현대식 부엌)
- 매매 전세 가능

010-8409-8245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남 하동군 옥종면 궁항리 삼신봉 주산
- 면적 : 약 360평
- 법당 : 20평, 산신각, 요사채, 공양간, 창고, 화장실(2개)
- 해수관세음보살상 7m
- 즉시 법회 가능. 땅값만 받습니다.
- 매매가 : 8000만원(대출 2천만원 포함)
- 청정 기도도량 입니다

010-2807-0509

사 찰 안 내

도심 포교불사에 함께 동참 운영 하실 뜻있는 출가자 및 재가불자님을 정중히 모십니다.

- 위치 : 충남 부여
- 금강이 시원하게 내려다 보이는 8층 건물에 3층 154평의 넓은 법당
- 시설완비, 주차공간 확보
- 개원식 앞두고 (사정상) 전세 운영 가능
- 절충 협의

010-7174-1711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고령군 덕곡면 인곡1길33-12
- 대지 310평/법당, 산신각 20평/요사채 50평
- 창건 50년
- 가액 : 2억9000만원

010-2369-3382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금장리 127-1번지
- 총평수 470평(대지 340평, 평밭 130평)
- 대웅전 20평, 요사채 50평, 산신각 5평
- 칠포해수욕장 차로 7분 거리, 시내 10분, 죽도시장 30분
- 가액 : 3억 3천(대출 2억 천육백만원)
- 매매 · 월세 가능합니다.
- 물은 지하수입니다.

010-3741-3567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용문산 자연휴양림 초입 소재 (양평역 5분거리)
- 대지 : 300평 현대식 건물
- 건물 : 대웅전 30평 1동 / 카페, 공양간 30평 / 요사채 23평 2층 건물 1동 종무소, 객방 13평 1동
- 가액 : 12억원(답사 후 인연되는 분 절충)
- 법회 즉시 가능합니다.

010-4461-3825

사 찰 안 내

- 위 치 : 부산시 북구 구포시장 농협 옆
- 1층 법당 外 약 60평, 신축 빌라식 3층건물
- 보증금 : 6000만원
  월 세 : 70만원(1층 근린)
  (별도 각각 30평 2,3층 복층 가능/매매가능)

010-5511-7000

좋은인연 대출안내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최장30년
- 설정비,감정료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법인,단체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이사장 이강욱 ☎ 010-9842-4200
상 무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 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사찰 요양원 (급) 안내

- 위 치 : 경남 밀양시 부북면 퇴로로 171-8
- 사찰 요양원 일체 매매(명당터) / 주차장 포함 대지 900평 / 사찰 2층 총 54평, 황토방 포함 요사채 42평 / 요양원 2층 180평 (25명 정원 및 신도 많고, 요양원 베드 만석) / 인수시 원장, 부원장 바로 월급 받음
- 건강상 이유로 내놓습니다
- 앞 저수지 뒤 황학산 배산임수
- 가 액 : 13억원(절충 가능)

010-9234-0811

사찰(급)안내

- 위치 : 서울시 세검정 (광화문까지 자동차 10분)
- 대지 84평/국유지 50평(사용가) 법당/요사채 76평
- 양도시 모든 기물포함 (불상, 불화 등)
- 가액 : 9억5천만원

010-6325-5112

사찰(급)안내

- 위치 : 전남 화순 군청 종합민원실 맞은편 능인선원 3층 건물 전체
- 3층 대웅전, 2층 아미타전
- 법당 및 고가 불교용품 포함
- 금액 : 7억 5천

010-2967-0879
"문자주시면 전화드리겠습니다"

사찰(급)안내

- 위치 : 충남 논산시
- 가액 : 7억
- 대지 780평, 실사용 1000여 평
- 사찰 정리후 주지스님은 원하는 만큼 동주 할수있음
- 모든 시설 완벽함

사 두실분이나 좋은절 갖고져 하시는 불자님 연락 주시면 자세한 안내드리겠습니다

010-9477-0375

포교당(급) 안내

- 위치 : 경기 시흥시 정왕동(정왕역 차로5분)
- 주변 : 정왕동아파트 대단지, 대형마트, 대형병원 월곶, 배곧, 아파트 신도시
- 규모 : 4층 전체, 옥상 사용 엘리베이터, (총: 110평) 사용.
- 법당: 삼존불, 신중단, 산신단, 약사여래불, 영단 큰방 3개, 사무실, 창고방, 에어컨법당 2개, 각방마다
- 보증금: 1000, 월세 150(보증금, 월세조정)
- 권리금 일체시설. (법당, 각방, 일체 집기시설) 5500만원 (바로 법회 가능)

※통화 안될때 문자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010-8599-9468

포교원 안내

- 경남 밀양시, 5층 중에 2층, 70평
- 삼존불, 인등, 원불, 영가위패인등, 산신인등, 각방 에어컨, 방 4개, 냉장고, 세탁기 등 시설완비 (시설비 1억 7천만원)
- 무료 주차장 약 50대, 병원, 은행, 마트 1분 거리, 사주 하시는 분 강력 추천, 비품대 확실히 잘 해드리겠습니다.
- 보 5백만원, 월 43만원, 시설비 2천 5백만원

010-9424-4777

포교당 안내

- 위치 : 서울시 노원구 덕릉로
- 67평 동불 삼존불
- 보증금 : 5000/월세 : 180만원
- 시설물 : 2500만원 상당
- 지하철 4호선 당고개역 1번 출구 300m
-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 남녀화장실

010-3102-5102

사 찰 안 내

- 위치 : 세종시
- 부지 : 405평
- 대웅전 : 20평, 외5포, 내7포 일주문 주3포, 창건 50년
- 가액 : 13억

010-4600-7084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갓바위 뒷길 근처
- 총 평수 453평, 현대식 건물 3동
  1층 요사30평, 14평, 산신각 2평
  2층 법당28평
- 건물 대지 종교건물
- 가액 : 4억5천(절충가능)

010-5804-5100

포교원 안내

- 위치 : 울산 태화강 부근 2층 법당포함 35평
- 도시가스 사용
- 보증금 1천, 월세 44만원
- 시설비 : 600만원
- 즉시 법회 가능

010-9416-1046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젠 인터넷 뉴스사이트 현불뉴스 hyunbulnews.com에서도

불자정보·생활안내를 생활안내

찾아보실 수 있어요

NAVER 불자정보·생활안내 검색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찍어보세요

'생활안내' '불자정보' 를 보실 수 있습니다

2025년 2월 26일 수요일 | 불기 2569년

접 수 문자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이메일 hyunbul1994@naver.com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10-4648-8200

가 격 ◆가로 6㎝: 5만원/회 ◆가로 12㎝: 10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생활안내

1520호 | 16 | 전면광고

너희 비구여, 만일 지혜가 있으면
곧 탐착이 없어지는 것이니, 항상 스스로
자세히 살피어 그것을 잃지 말도록 하라.



부처님 말씀 읽기 - 《불유교경》에서

부산광역시 지정 무형문화재 제9호 부산영산재 학인모집

1. 부산영산재의 각 전승 교육사 의식 염불, 사물
2. 천수바라 · 오공양작법
3. 다게작법 · 운심게작법

- 특별반 3개월과정모집
- 사) 대한불교문화 전통불교조계종
※ 사찰등록 및 승려증 발급

부산영산재 (전수장학생 한시적 등록추천)
사무국 총무원 010-5511-7000

관상(손금) 성철사주비법 전수

- 얼굴만 보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 송사 재판, 암, 질병, 산소물찬곳, 유산낙태, 이혼수, 부도, 사업실패, 배우가 일찍 죽는 관상, 귀신 붙은 관상,결혼 못하는 관상, 자식이 일찍 죽거나 질병관상, 중풍, 뇌졸중 관상
- 출장개인지도 관상학, 성명학, 사주명리, 손금, 상술비법
- 스님,무속인,법사,무당,일반인,공무원 특별 개인지도
- 신을 받았어도 제대로 못하시는 분. 작명 아기이름, 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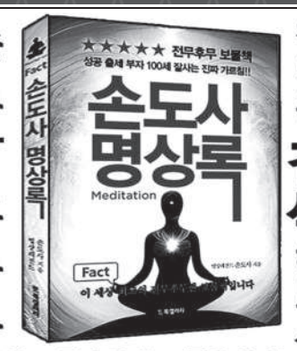
상담문의 010-4014-8822 타로특별비법지도
365일 무료 숙식제공 교육장. 상술, 언변 비법 전문지도

사찰행사(불교의식)

49재, 천도재, 점안식
바라, 나비무, 전통살풀이
정성껏 해드립니다

연암당 스님
010-6219-4757

손도사 유튜브



책이름 검색해보세요
010-5105-5000 요

의식은 불교의 꽃 (행사대행)

49재, 점안, 기타, 바라, 살풀이
30년 수행 공덕으로 귀사찰에 불사를 성취해 드리겠습니다.

문의 010-5270-8260 / 010-6785-1130

양 도 공 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개인사암, 단독법인 가능함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법인, 불교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함

010-5412-8040 법광

불교 의식 학인 모집

- 영남 범음 범패
- 49재 · 천도재 · 사시불공 등
- 북 · 징 · 경쇠 · 요령 · 목탁
- 매주 화요일 · 금요일 3시~5시
- 일반불자 수강가능

조은사 (경산역 부근)

010-5315-3589

불공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49제,점안,살풀이,바라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승가 유품정리 안내

스님 일반인 유품정리
사찰 법당 철거 해드립니다
최대한 정성껏 최소의 비용으로 부담없이 해드립니다
주소:부산시 동래구 동래로 159번길 58-7 동호(A) 309호

010-5507-7080 이주현

최고급 암컷흑염소 전문 염소명가

식품안전관리인증 HACCP 식품의약품안전처

해썹(HACCP) 인 증 업 체

현대해상 식품배상책임보험 3억원

국내산 암컷흑염소와 30가지의 전통원료로 소화잘되는 진액

흑염소진액 골드





할인행사
2박스 (60포)
240,000원

농업회사 (주)미성팜 택배가능
충주시 주덕읍 충청대로 2236-1 나동
043)845-5596 / 010-2136-9889

향로용 유리알 향운정주(수정모사)



▣ 상품명 향운정주 (수정모사)
▣ 재 질 크리스탈 유리알
▣ 용 도 법당향로, 개인향로, 법당 조화용 화병, 크리스탈 꽃병 등 다양한 곳에 반영구적으로 사용가능
▣ 규 격 1kg 13 x 15 x 3.5cm (종이박스) / 5kg 14 x 15.5 x 18.5cm (종이박스)
▣ 특별공급가격 1kg 10,000원 (배송비 별도)
5kg 1BOX (1kg X 5ea) 50,000원/세트 (배송비 포함)

▣ 구입처 전화 02-732-1520 , 팩스 02-737-0696
▣ 계 좌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 판매원 마하몰 (www.mahamall.co.kr) / 제조원 ㈜바이넥스 / 원산지 대한민국

상품특성

- 향운정주(수정모사)는 맑고 투명한 작은 구슬로 향로에 사용하던 쌀 등 곡식이나 모래, 흙 등을 대체한 제품입니다.
- 모양과 빛이 아름다워 보는 이로 하여금 정결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을 갖게 합니다.
- 향운정주(수정모사)는 향이 잘 꽂아지고 부러지지 않으며, 물로 씻어 정갈하게 대를 물려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일정 온도에서 원적외선이 방출되어 인체에도 유익합니다.
- 조화용 화병이나 크리스탈 꽃병에 사용하시면 투명한 빛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 향로에 들어가는 향로용 유리알 수량 (스텐 향로 기준)

종류		크기			수량
향로(스텐)	特大	지름 20cm	높이 18.5cm	내부 13cm	5kg
향로(스텐)	大	지름 17.5cm	높이 18.5cm	내부 11.5cm	3kg
향로(스텐)	中	지름 13.5cm	높이 16cm	내부 10cm	1.5kg
향로(스텐)	小	지름 12cm	높이 12.5cm	내부 8.5cm	1kg

이조불교 재활용센터

- 대불, 소불, 동불, 탱화, 법당 제작 (수미단, 닷집, 운각)
- 법당 철거, 오래된 불서 고가 매입

*사찰 사고팝니다.

010-9177-7842

스님을 구합니다

오래 계시면서 조용한 절 찾으시는 스님 모십니다.
대구 동구 백안삼거리 인근 사찰

010-9363-2292
010-3805-2778

한국불교태고종 경남교구 염불교육원 제2기 수강생 모집공고

1.모집대상
- 한국불교태고종 스님. 전법사. 교임
- 타종단 승려(참여가능)
- 불교신자 및 부처님의 교법을 배우고자 하는 일반인

2. 모집학과 및 교육내용
- 경전반 : 천수경, 반야심경, 예불제반의식
- 의식반 : 영남범패 전통의식, 다비식, 재의식(시다림,49재), 점안의식, 불교사물 등

3. 교육일정
- 경전반 : 2025년 3월 17일(월) 개강/ 2025년 7월 22일(화) 수료
- 의식반 : 2025년 3월 11일(화) 개강/ 2025년 7월 22일(화) 수료

4. 교육장소 : 한국불교태고종 경남교구 종무원사 3층 태고사 (창원시 마산합포구 남성로 93)
5. 접수 및 문의처 : 한국불교태고종 경남교구 종무원(☎298-3634)
한국불교태고종 경남교구 교무국장 법륜스님(010-9233-8371)

한국불교태고종 경남교구 염불교육원

육임 정확도 효과성 착목도 속도성 보장

익명성 지피(知被:감추는 상대의 비밀 · 고민사 판단됨-생년월일시 불필요함)

1. 상대(방문 전화)가 누구든, 언제 어디서든, 무슨 문제이든 실시간으로 미리, 또는 즉시 판단됩니다.
2. 오늘 몇 시, 내일 몇 시, 방문, 내방, 전화이든, 지난 또는 다가올 당시의 연월일시든, 상대 속마음, 용건, 사안의 대소, 가부 호악 진퇴 희비 및 감추는 비밀사까지 미리 또는 즉시 화면에 나타납니다.
3. 상대가(전화포함) 해당 사안에 대한 이익 될 人 인지, 피해줄 人 인지, 손해나게 할 人 인지, 무력 人 (지위고하세력 막론, 해당사안 위주) 인지가 미리 또는 즉시 화면에 나타납니다.
4. 동일한 시간에 여러 사람이 오거나 찾아가거나 전화통화를 하더라도 '다음사람' 버튼만 누르면 자동으로 해당인의 여러 내용이 즉시 나타납니다.

- 왜 왔는가?
- 상대의 신뢰심(진위고집불성등) 여부
- 주요상담성취 안좌방위 및 회의 안건 반대자 여부
- 교섭 전후난이 상대진위 여부
- 소송 승패(구속 불구속) 여부
- 주식 이익종목 선택 및매도 매입 시기
- 상대 충성배신 여부
- 남여 성력(性力) 및 선호 태위 여부
- 주요 공사책임자 선정 및 무사고 개시 일시여부
- 깃발 착복색 선택 당선 승진 취직시 험사 여부
- 생업가정흥쇠여부
- 남녀 독신 고독 생사별자 여부
- 부부 동시 색정 1남2녀 1녀2남 삼각관계 여부
- 사안의 대소규모 여부
- (상대 현재실정)
- (상대구체 사안)
- (상대적확성)
- 상대 계획 도모사 측정 여부
- 전화 친견 상담용
- 면접사 여부
- 모망사 여부
- 구재사 여부



50일간 특별할인가격 90만원(업데이트 완성)
카드 3개월 결제 – 결제 즉시 소지 휴대폰에 실행파일 전송



50일간 특별할인가격 200만원(완결판) 교환 30만원
육임 USB 프로그램 – 인터넷 없이 영구 사용
02-567-3850 / 010-7596-5146
한국육임학회(육임쇼핑)

- 귀신침해 부정 침범 산소탈(묘지속水蛇)여부 및 해소 방편
- 수법(천도 시식기도) 효과 유무
- 효과기도 분류
- 이혼 승패(유리 불리 여부) 운세 명암 지점 여부
- 임대 임차 이해친소 가옥 사옥 이전 길방여부
- 상대 신분(대통령, 장관급, 차관, 고위급, 지방관서장, 사계실력인, 우고인) 여부
- 목적 성취기도 일시 지정
- 금융재 금액 대소여부
- 선출직 성격 실적 사전 판단
- 뇌물 증여 가납 효과 여부
- 질병치유 여부
- 가출 귀가사 여부
- 혼인사(용모 가문 시기)
- 연년세세 1년 월별 신수
- 친화 구해 자녀 여부
- 혼인 부부 성격-궁합 여부 등등
- 우고사 해소되는 방문(전화) 시간 명시
- 무성(無聲:헛소리)에 불과한 방문(전화)시간 명시
- 임신사 여부
- 출산 길일 길시 선택 지정

육임AI 순회 효능 설명회
서울지역 월요일 14시 대전지역 화요일 14시 전주지역 수요일 14시 광주지역 목요일 14시 부산지역 금요일 14시 대구지역 토요일 14시 강원지역 일요일 14시

❖ 본 지면의 생활안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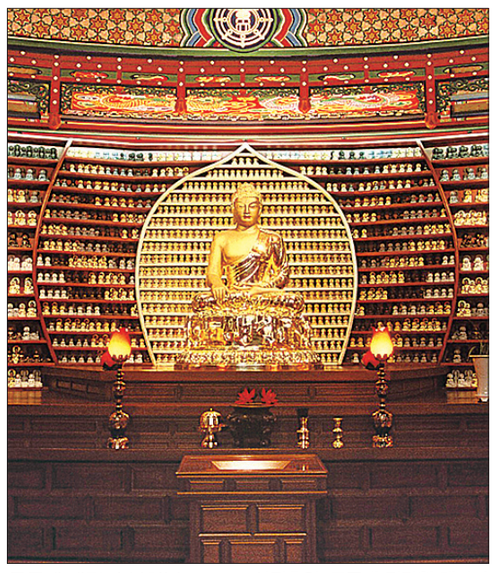


서정원의
불교미학산책

④ 대각전 1 – 〈화엄경〉 불화엄의 의미

대각, 만불이 장엄하다
〈大覺〉

동국대학교 혜화문에서 약간 밑으로 돌아가면 학교 초입건물인 이해랑 예술극장이 나온다. 이 이해랑 예술극장이 있는 건물이 동국대학교 개교 90주년 기념관이고, 이 기념관의 아래에는 이해랑 예술극장, 위로는 동국대학교 개교 100주년 기념법당인 대각전이 있다. 그런데 요즘은 이 건물을 90주년 기념관이라고 부르지는 않는 것 같다. 아무튼 오늘 우리가 산책 중에 들릴 곳이 이 기념관에 위치한 대각전이다. 대각전은 원형법당으로 사각형의 구조를 탈피한 것만으로도 새로운 느낌을 주는 법당이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주존으로 계시며 다른 좌우보처가 없이 작은 부처님 만 분이 봉안된 만불봉안의 법당이기도 하다. 그런데 원래 보살, 부처님은 너무나 희유한 존재이시기에 이 삼천대천세계에 단 한 분만이 존재하실 수 있다고 하는데 도대체 이 많은 부처님은 누구실까?



동국대 대각전 부처님. 사진출처=동국대 정각원 갤러리

부처님은 중생·성문·연각 달리 대각 가져
대각 얻어 장엄 장면 담은 경전이 '화엄경'
'불화엄'이여야 '부처님 장엄' 뜻 명확해져

소승불교와 대승불교를 나누는 사상적 기준 중에 일세계-일불설과 다세계-다불설이 있다. 소승에서는 부처님과 부처님이 되기로 결정된 보살은 너무나 위대하고 희유한 존재이기에 한 세계에 두 분이 계실 수 없고 오로지 한 분만이 계신다는 의미에서 일세계-일불설을 주장한다고 한다. 반대로 대승에서는 지금도 현재설법 하시는 아미타 부처님 등의 타방불이 계시기에 다세계-다불설이라고 주장한다고 한다.

복잡하게 불교의 다양한 우주론을 펼칠 이유는 없지만, 사실 일세계-일불설도 여러 세계에 각각의 부처님이 계신다고 한다면 다세계-다불설과 다르다고 할 건 없다. 우리가 아미타불 염불을 하면 아미타 부처님께서는 반드시 임종시에 염불행자를 거두시러 내영하신다고 하는데 이 때 열두 분의 부처님과 스물다섯 분의 보살께서 함께 오신다고 한다. 그렇다면 극락세계라는 하나의 세계에 아미타불과 열두 부처님, 도합 열세 분의 부처님이 계시는 걸까 라고 한다면 그건 또 아니다. 다만 아미타 부처님의 이명(異名)에 열두 개가 있을 뿐이다. 우리가 사는 사바세계의 교주로 계신 석가모니 부처님,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극락세계의 교주로 계신 아미타 부처님, 사실 대승의 세계관에서도 일세계-일불설은 잘 지켜지고 있다.

그렇다면 도대체 한 분의 주존 부처님과 만 분의 부처님이 한 세계에 자리하신 이 대각전은 무엇일까? 이는 대각(大覺)이 무슨 뜻인지부터 생각해 보아야 한다. 대각전은 말 그대로 대각을 모신 곳으로, 대각은 곧 부처님을 말한다. 세상에는 수많은 깨달음이 있다. 외도의 전도된 깨달음도 있고, 성문의 사성제를 깨달음, 연각의 연기를 깨달음도 있다. 다만 이런 여러 깨달음 중 가장 크며, 가장 위대하여 더 이상 위가 없는 깨달음으로 부처님의 깨달음이 있다. 이를 대각이라고 한다. 부처님이 중생, 성문, 연각과 다른 것은 이 대각을 가지셨기 때문임으로 곧 대각을 부처님의 이명으로 부르게 된 것이다.

이 대각을 얻은 순간, 바로 보리수 아래에서 부처님이 빛나는 샛별을 보시고 삼명이 밝아지셨을 때를 말하는 경전이 〈대방광불화엄경〉, 줄여서 〈화엄경〉이다. 우리에게는 〈화엄경〉의 등장인물과 줄거리를 간략하게 정리한 '화엄경약찬게'로도 잘 알려져있고, 의상 스님의 대표작인 '법성게' 또한 〈화엄경〉의 대의를 노래한 작품이다. 그런데 익숙한 '약찬게'도 '법성게'도 〈화엄경〉의 내용만을 말하지 경전제목의 뜻이 무엇인지 말하지 않는데, 원래 동아시아불교에서 경전제목은 가장 먼저 밝혀야 하는 주제이다. 그렇다면 〈화엄경〉의 제목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점은 무엇일까? 바로 '불화엄(佛華嚴, Buddhāvataṃsaka)'이다.

우리는 간단하게 〈대방광불화엄경〉을 화엄이라고 줄이지만, 사실 절대로 제외해서는 안되는 말이 바로 '불'이다. 화엄이라고 하면 '장식하다'라는 말밖에 안된다. 강아지도 옷을 입히면 장엄이고, 나무가 얼지 말라고 짚단을 메어도 장엄이다. 그냥 장엄이라는 동사만으로는 아무것도 설명할 수 없기에 반드시 붓다를 장엄한 불화엄이라고 해야 한다. 그렇다면 불화엄의 경전에서는 부처님을 어떻게 장엄해야 한다고 할까? 바로 부처님은 부처님으로 장엄해야 한다고 한다. 이것이 바로 불화엄이고 연화장세계이다. 실지로 경전 상에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시자 다른 세계의 신들과 보살들, 그리고 부처님들이 이를 장엄하러 모이시는 이 장엄의 장면을 말하는 경전이 〈화엄경〉이다.

부처님이라는 너무 위대하여 그 위가 없는 분, 그렇기에 한 세계에 두 분이 계실 수 없는 그 분을 우리는 대각이라고 부르는데, 이 대각을 장엄하는 것은 다시 복수의 부처님이라는 이 이중적 상황이 나에게는 대각전의 이미지로 굳어진다. 이 굳어진 이미지는 다시 나에게 〈묘법연화경〉에서 말해지는 '부처님과 부처님만이 알 수 있는(유불여불, 唯佛與佛)'의 경지로 이어지며 일승, 불승의 개념들이 대각전의 부처님을 장엄하게 된다.

물론 내가 이중적이라고 생각하는 개념들을 논사와 조사님들이 자상하게 풀어 논증하셨고 그 나름으로 의단을 풀어나간 분들도 많으리라 생각한다. 법계, 법신이든, 유심이든, 무애(無碍)이든 해결을 위한 여러 실마리도 이미 제시되어 있다. 그럼에도 나는 '부처님과 부처님만이 알 수 있는' 경계에 대해서 이를 이해하는 것이 불교도로서 반드시 필요한 일인가에 회의감이 느껴진다.

첫 번째로 경전 상에서 제시되지도 않은 추가적인 개념을 가지고 그 경전을 이해하는 것에 대한 회의감이다. 〈화엄경〉이 오직 마음이 모든 것을 짓는다는 일체유심조의 경전이라 말할 때, 우리는 이 일체유심조의 사구게 앞뒤의 문맥을 궁금해한 적이 있었을까? 이 일체유심조가 유심의 법계, 무애의 세계관으로 확장되는 것은 경전의 문맥상 가능한 일일까? 아니 사실 그 진짜 경전 상의 내용이 아니라 토르소로 뚝 짤린 이 게송에서 새로운 내용을 일구어낸 건 아닐까? 우리는 〈화엄경〉을 정말 자신의 손으로 읽고 있는걸까?

두 번째로 회의감은 이해 자체에 대한 회의감이다. 그런데 만불의 부처님께서 자리하신 대각전에서 나도 덩달아 말이 많아져 버려 허락된 지면이 다해버렸다. 그런데 우리의 걸음이 만약 어떤 목적이 있어 도착지가 결정되었다면 여기서 말을 멈추어야겠지만 산책자는 머물고 싶은 곳에 얼마든지 머물 특권이 있음으로 다음 호에서 대각전의 얘기를 더 이어가 보고자 한다.

〈동국대 박사〉

모든 부처와 법을 수용한 '삼계교' 아미타부처님 믿고 따르는 '정토교'



법공 스님의
〈지장십륜경〉 강의

⑧ 삼계교와 정토교

지난 강의에서는 삼계교의 철저한 수행 규칙과 벌칙에 대해 살폈습니다. 삼계교가 엄격한 규율을 제시하고 운영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점을 살펴보자면, 먼저 삼계교의 '삼계'에 대한 의문점을 풀어야 합니다. 신행(信行, 540~594)이 창시한 삼계교에서는, 모든 불교의 시대를 셋으로 나눠 '삼계(三階, 시처인·時處人)이라 하고, 그 셋을 각각 일승·삼승·보귀보법(普歸普法)의 불법(佛法)이라고 합니다.

즉, 시(時)라는 것은, 부처님이 열반한 후 처음 500년은 '제 일계(第一階)', 다음의 500년은 '제 이계(第二階)', 1000년내지 1500년 이후는 '제 삼계(第三階)'라고 합니다. 거주하는 장소(처, 處)는, 정토 연화장세계 및 오탁 제악(五濁諸惡)의 예토(穢土)입니다.

그곳에 해당하는 사람(人)은 '제일계'는, 최상이근(利根)의 일승 근기로서, 지계(持戒)나 파계 모두 늘 정견은 지니며, '제이계', 이근정견(利根正見) 성취의 삼승(三乘)으로서, 계(戒)와 견(見)을 함께 파하지 않은 것과 또는 계를 파하고 견을 파하지 않은 것의 구별은 있으나 어느 쪽이나 안목이 있는 무리로서, 별진별정(別眞別正)의 불법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제삼계' 즉 말법 때의 일체 공견·유견·파계중생인 우리들, 즉 예토에 의한 계견구파전도(戒見俱破轉倒)의 중생인 우리들은 그것이 전혀 효과가 없고, 오로지 보진보정의 생맹불법(生盲佛法)만이 타당한 것이라 주장합니다.

삼계교는 제3계인의 근기는 공견(空見, 공에 사로잡힌 잘못된 생각)·유견(有見, 모든 것이 있다고 주장함)·사견(邪見, 잘못된 견해 및 사상) 중생으로 보기 때문에 아견(我見)과 여래장·불성을 부정하는 견해에 사로잡혀, 정확한 견해를 스스로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가지의 별다른 정해진 불법(別眞別法)으로는 맞지를 않고, 폭 넓은 보진보정(普眞普正)의 불법이여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정토교에서는 오직 아미타불에 의해서만 구제될 수 있다고 하여, 별다로 정해진 것(別眞別正)의 주장을 하는데 반하여, 삼계교에서는 일체의 삼세제불, 25불, 35불 등등의 모든 부처에게 귀의하는 것이, '보불보법의 사상'인 것입니다.

이는 결코 제1계, 제2계의 불법만이 옳다는 것이 아닙니다. 즉, 그것들을 자기와 비교하여 그 가치에 의하여, 저열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며, 단계(段階)로서 자기의 밑에 두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말법이 도래한 현재에 있어서는, 교(教)로서의 효력이 상실하여 오히려 교법으로서는 저열(低劣)한 위치에 있는 제3계의 불법이 당시의 민중들에게 실효성에 있어서 우월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교법의 평가를 그 내용에 두지 않고, 시대적 기능에 비추어 판정하려고 했던 것을 의미합니다.

삼계교의 신행 선사는 부처님 가르침을 당시 사회적 인식을 접목해 민중들에게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삼계교의 교리가 모든 면에서 찬양받고 원했던 것은 아닙니다. 특히 정토교와의 교리 상 대립이 이뤄졌습니다. 정토교와의 유사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양자 모두 말법(末法) 불교에서 탄생한 점 ② 탁악(濁惡) 세계의 득도를 난사(難事)라고 한 점 ③ 심심(甚深)한 죄악의 지각에 입각한 점 ④ 사악(邪惡)의 하기(下機)는 특수한 불법(정토교는 상법, 삼계교는 하법)을 필수로 하는 것 ⑤ 정토의 인과를 설명하여 왕생정토를 권장한 것 ⑥ 성인이 가신지가 오래됨과 이치는 깊고 해독함은 엷고(去聖遙遠理深解微), 별다른 행동과 별다른 견해(別行 異見)를 사폐(捨閉)하여 대근기행(對根機行)을 주안으로 한 것

반면 네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입니다.

①삼계교는 보불보법(모든 부처와 모든 법을 수용)을, 정토교는 아미타 한 부처를 믿음. ②사기(邪機)를 이유로 전념(專念)을 부정, 정토는 악기(惡機)를 이유로 보념(普念)을 거부 ③차토입성(此土入聖) 직도성불(直導成佛)을 허용, 정토는 피토입성(彼土入聖;서방의 극락세계)을 흔쾌히 여김. ④구심(求心)에 기울어 지관(只管), 원(圓)의 중심을 두려워하고, 정토는 원심을 좇아 전심으로 원의 주위를 방황하는 것 등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송림사 주지〉

민속죽염 30년 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 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좋은 소금" 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①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②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③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④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 9번 구운 민속죽염 ◈
가루자죽염 125g 45,000원
가루자죽염 230g 82,000원
알갱이자죽염 125g 50,000원
알갱이자죽염 230g 90,000원
휴대용 알갱이자죽염 20g 9,000원

◈ 2번 구운 민속죽염 ◈
◆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보급형 민속죽염 500g 20,000원
250g 10,000원

※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주문 및 상담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길381-4 www.msjy.co.kr

체질 개선과 건강 회복을 위한 합리적 조건
당신의 날씬한 건강이 시작되는 곳
'초록원웰빙'
since 1984
프리미엄 효소 제품과 다이어트 제품을 만나보세요
02-578-1708
010-7384-1708
강남점 (도곡동 467-24)
김영숙 대표



NAVER 초록원웰빙 검색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만나요

장보배의 24번의 계절 ④ 우수 _ 여주 길을 걷다



▶한줄 요약
우수(雨水)의 한자를 풀면 글자 그대로 '빗물'을 뜻한다. 비록 꽃샘추위가 막바지 기승을 부린다 해도, 기온이 서서히 오르며 눈과 얼음이 녹고 온 대지에 수기(水氣)가 차오르기 때문이다.

'강의 절' 앞에서 우수를 맞이하다

〈雨水〉

어느 하나 쉬운 일이 아니다. 순리라고 하는 것, 이치대로 산다는 것.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는 것.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인 것 마냥 툭, 하고 내던져지는 것들이 실은 가장 어려운 일이라고 말이다.

해와 달이 번갈아 하늘을 오르고, 바람이 불고, 더위에 가쁜 숨을 내쉬다 보면 다시 새싹이 돋아나는. 그 별일 없는 세상이야말로 우주의 비범함이 빚어낸 선물인지 모른다. 그러니 또다시 비가 내린다는 것은 얼마나 큰 기쁨인가.

그 기쁨을 이름에 모두 담아낸 절기가 있다. 온 세상이 비의 이름으로 다가오는 계절, 우수(雨水)가 내린다.



이른 새벽 신륵사에 들어서자 저 멀리 강 건너 황학산 봉우리 사이로 태양이 솟아올랐다. 하늘도, 땅도, 강도 온통 붉게 물드는 것은 찰나의 순간이다.

두 번째 계절, 우수

입춘에 이어 올해의 두 번째 절기가 열렸다. 바로 우수(雨水)의 시간이다.

우수(雨水)의 한자를 풀면 글자 그대로 '빗물'을 뜻한다. 비록 꽃샘추위가 막바지 기승을 부린다 해도, 기온이 서서히 오르며 눈과 얼음이 녹고 온 대지에 수기(水氣)가 차오르기 때문이다.

"우수 경칩에 대동강 풀리더니 정든 님 말씀에 요 내 속 풀리누나." 서도민요를 대표하는 '수심가(愁心歌)'의 한 구절에도 우수의 풍경은 담겨있다. 서도는 평안도와 황해도를 말하는데, 남쪽보다 춥고 바람 찬 그곳에도 우수경칩이면 꽁꽁 얼어붙은 대동강이 녹아 흐르는 것이다.

옛 중국 사람들은 우수가 된 후 15일을 5일씩 나누어 그 특징을 전했다. 첫 5일은 수달(水獺)이 물고기를 잡아 제사를 지내고, 다음 5일간은 기러기가 북쪽으로 날아가며, 마지막 5일간은 초목에 싹이 튼다는 것.

얼었던 강이 흐르기 시작하면, 겨우내 굶주렸던 수달은 이때를 놓칠세라 물 위로 뛰어오르는 물고기를 한껏 잡아 바위 위에 펼쳐놓는다. 어쩌면 옛사람들은 누구보다 빨리 절기의 변화를 누리는 수달의 모습을 보며 자신들의 속내를 투영했는지 모를 일이다. 길고 혹독했던 겨울을 무사히 넘기고, 다시 새봄을 맞을 수 있다는 감사와 안도의 마음을.

이윽고 기러기들도 미묘한 대기의 변화를 감지하고, 다시 북쪽을 향해 긴 여행을 떠나는 시간. 이제 인간에게는 그만 지워져 버린, 자연과 하나 된 생명만이 누릴 수 있는 우주의 나침반이 그들을 가야 할 곳으로 무사히 안내해 줄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물기를 머금어 폭신해진 땅의 틈으로 새싹이 고개를 내밀면 절기는 그렇게 완성되어 간다.

백만 번의 기적

봄이 당당히 서기 시작하고(입춘), 개구리가 놀라 깨어나고(경칩), 곡식을 여물게 하는 비(곡우)가 내린다는 여느 절기의 이름과 달리, 우수의 뜻은 너무나 담백하고, 직접적이다.

'빗물'

그러나 이만큼 이 절기의 이치를 오롯이 담아낸 말이 또 있을까. 바다와 강, 호수, 인간, 식물의 잎까지. 지구상 뭇 생명 들이 뿜어내는 수분은 태양에 의해 증발하고, 이는 다시 작은 구름 알갱이들이 되어 구름을 이룬다. 이 구름 알갱이들은 분열과 결합을 반복하며 더 큰 물방울이 되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 무게가 되면 마침내 지상으로 회귀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비다. 지극히 당연한 자연 현상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실상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구름 알갱이의 크기는 약 0.02mm, 빗방울의 크기는 직경 2mm~4mm. 한 방울의 비를 만들기 위해선 최소 구름 알갱이 백만 개가 응결핵 주변에 달라붙어야만 한다. 바다의 염분과 연기, 토양의 온갖 미세 입자로 생겨난 응결핵. 그 크기가 0.0001mm 밖에 되지 않아 육안으로는 확인조차 불가능하지만, 이 자그마한 핵에 최소 백만 개의 구름 알갱이들이 힘을 더할 때 비로소 빗방울 하나가 완성되는 것이다.

> "꽃샘추위가 막바지 기승을 부린다 해도, 기온이 서서히 오르며 눈과 얼음이 녹고 온 대지에 수기가 차오른다"



남한강을 내려다 보고 있는 다층전탑. 물살 거센 절벽 위에 세워져 삼존의 터와 강을 지친 수호의 화신이다.

어디 그뿐이랴. 기온과 바람도 이 빗방울을 도와주어야만 한순간 눈이나, 우박으로 변하지 않고 무사히 '빗물'이 되어 대지를 적신다.

'한 방울의 물에도 천지의 은혜가 담겨있고, 한 알의 곡식에도 만인의 노고가 담겨 있다'는 오관게의 한 구절. 한 그릇 공양 앞에서 되뇌는 저 경구에 기적 같은 우주의 이치가 머문다.

강의 절을 찾아서

우수에 앞서 여주 신륵사를 찾은 것은 가득히 넘실대는 물의 기운을 미리 느끼고 싶었기 때문이다. 겨울의 냉기가 채 가시지 않은 이른 새벽이면, 저 여강(남한강 여주 구간)의 물안개가 온 세상에 피어오른다는 강의 힘을.

강을 지키고, 강이 지키는 천년고찰. 거대한 남한강 물줄기 곁에 자리한 신륵사는 그 어느 사찰보다 낮은 문턱으로 오가는 이들을 반긴다. 남한강 수변 산책로를 자분자분 걷다 보면 어느새 경내로 스며드는 이곳. 산중 사찰이 지닌 폐쇄적인 신비함 대신, 숲에서 강 자락까지 이어지는 완만한 대지와 드넓은 강의 풍광이 이곳의 아름다움을 만든다. 하지만 들어서는 문턱이 낮다 해서 이 천년고찰의 유구한 역사와 보물들마저 쉬이 생각해선 안 될 일이다.

'청산은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 하고, 창공은 나를 보고 티없이 살라 하네'라는 청산가를 남긴 나옹선사의 입적 사찰로 알려진 신륵사. 억불 정책이 만연하던 조선 시대에도 이곳은 가치 높은 사적과 빼어난 경관으로 몇 번이나 훼손의 위기를 넘기곤 했다.

여강을 마주한 채, 9마리 용이 물을 뿌려 부처님을 씻겨 드렸다는 전설이 담긴 저 구룡루의 담대함, 담박하지만 기품 어린 조사당(보물 제180호)과 도량의 중심을 지키는 극락보전의 목조아미타여래삼존상(보물 1791호). 그 앞에 선 백색 다층석탑(보물 제255호)의 섬세한 연화문양과 현존하는 유일한 고려 시대 벽돌탑인 다층전탑(보물 제 226호)까지.

특히 도량의 동쪽, 물살 거센 절벽 위에 세워진 저 다층전탑은 천년이 넘는 세월을 한 자리에 머물며 삼존의 터와 강을 지킨 수호의 화신이다. 그러므로 사람도, 강도 거친 생의 물살에 지칠 때면 이 탑을 보며 저마다의 길을 찾곤 하는 것이다.

희망으로 돌아오라

마침 신륵사를 찾은 전날은 여주시의 정월대보름 축제가 있던 날. 커다란 달빛 아래 거대한 달집이 타오르며 내뿜던 열기가 여강을 가득 메운 밤이었다. 세상을 향해 퍼져나간 그 온기가 어서 저 지난한 얼음의 시간을 녹여 주기를.

이른 새벽 신륵사에 들어서자 마침 저 멀리 강 건너 황학산 봉우리 사이로 태양이 솟아올랐다. 하늘도, 땅도, 강도 온통 붉게 물드는 것은 찰나의 순간이다.

강은 어느새 녹아 있었다. 입춘을 지나 우수로, 절기는 흐르고 어느새 강도 그렇게 흐르기 시작했을 것이다. 첫 번째 얼음이 녹기 시작한 이래, 강은 기다렸다는 듯이 가속도를 붙여 제 몸을 녹이며 흘렀을 터다. 피어오르던 물안개가 우우, 하고. 또 휴우우 휴우우 숨을 내쉬며 강변을 올라 자신들의 오랜 쉼터로, 탑의 땅으로 돌아온다.

이제 강물은 다시 하늘로 오를 것이다. 제 품에 숨겨놓은 뭇 생명의 웃음과 눈물, 기원과 함께. 그리고 마침내 봄비라는 가피가 되어 돌아오는 것이다. 그러니 저 그늘진 응달의 자그마한 새싹 하나도 희망이라는 이름을 더하지 않는가.

〈작가〉

연말연시에 어울리는 토종꿀 선물 세트!

지친 일상 속에서 자연의 달콤함을 선물하세요

- 전통 산사의 자연 조건에서 생산된 토종꿀로 연말연시를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보세요!
- 청정한 공기와 맑은 물이 흐르는 괴산의 낙영산, 보개산에서 얻은 신선한 꿀입니다.
- 지금 구매하시면 10% 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 가 격 : 100,000원/ 600그램, (대량주문협의가능)
- 주 문 : 043) 297-2514
- 입금계좌 : 농협 351-05485375-13 대한불교조계종 지장사



윤인수 원장 연구개발

겨우살이환
재료명: 겨우살이, 느릅나무뿌리껍질, 도라지, 더덕, 모과, 천문동, 맥문동, 비파잎, 삼백초, 뽕나무뿌리껍질, 둥굴레뿌리, 무화과, 탱자, 대추, 산사나무열매, 맥아
비염이 있습니까? 숨이 차십니까? 기침,가래가 힘드십니까? 천식에 힘드십니까?

여주환
재료명: 여주, 돼지감자, 바나바잎, 민들레, 복분자, 옥수수수염, 오미자, 구기자, 천문동, 창출, 뽕나무뿌리껍질, 음나무줄기, 독활, 작약, 칡뿌리, 감초, 산사나무열매, 맥아
당뇨 있으신 분 혈당수치관리에 좋습니다. 다이어트가 필요하신 분은 꼭 드세요

전복껍데기환[석결명 스틱]
재료명: 전복껍데기, 마리골드, 국화, 민들레, 엉겅퀴, 백작약, 다시마, 톳, 산사나무열매, 맥아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 당뇨망막병증 등 눈에 문제가 생기면 석결명환으로 해결하세요.
세종대왕께서도 드셨다고 세종실록에 나와 있습니다. 추사 김정희 선생도 애주도 유배시 석결명환을 드셨다고 방송되었습니다.

폐청소법, 치매·중풍 예방법 등 성인병에는
윤인수 원장의 경혈자극요법을 활용하세요.
기침, 가래, 기관지염, 비염, 폐렴, 기관지폐렴, 폐 화농증, 편도선염, 축농증, 천식, 불면증, 수면장애, 어지럼증, 두통, 이명(귀울림), 구안와사, 조현병, 협심증, 위염, 위경련, 변비, 어깨·관절통증, 발목관절통증, 오십견, 목이 쉬었을때, 전립선 질환, 요실금, 콩팥위축, 방광염, 신장염, 황달, 간경화, 피부가려움증, 다이어트, 생리불순, 백내장, 각막염, 결막염, 녹내장, 황반변성, 야맹증, 원형탈모증, 삼차신경통(상지, 중지, 하지) 등

골담초환
재료명: 골담초분말, 쇠무릎뿌리, 황칠나무, 두충, 가시오가피, 참당귀, 울금, 덩이뿌리, 쇠비름, 독활뿌리, 개다래열매, 천마뿌리, 율무, 질경이, 음나무줄기, 왕느릅나무껍질, 엉겅퀴, 산사나무열매, 맥아
허리, 다리가 불편하십니까? 오래 걷기 힘드십니까? 계단 오르기 힘드십니까?

산수유환
재료명: 산수유, 호박씨앗, 옥수수수염, 복분자, 사상자, 토사자, 구기자, 오미자, 천궁, 우슬, 복령, 산청목, 질경이, 뽕나무뿌리껍질, 두충, 산사열매, 맥아
소변때문에 밤에 몇번씩 일어나십니까?

어성초환
재료명: 어성초, 적하수오, 자소엽, 측백나무잎, 서목태, 원지, 우슬, 천문동, 마가목열매, 복분자, 솔잎, 뽕나무뿌리껍질, 녹차잎, 창출, 구기자, 산사나무열매, 맥아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십니까?

하지·아이케어센터 | 구입문의 : 02-969-9007 / HP.010-3245-0118
농협 : 301-0234-9633-61 / 예금주 : 윤제하



대행 스님

남이 잘하는 거 끌어오려 말고 못났으면 못난 대로 사세요

지난 호에 이어서

재차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아프면 나도 아파요. 여러분이 괴로우면 나도 괴롭고. 정말이지 이거는 거짓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갈 때, 어디를 쳐다보면 딴 데 쳐다봐지지가 않습니다. 무심코 그냥, 그냥 쳐다보면 한 시간도 좋고 두 시간도 좋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아무 생각 없이 여러분의 그것이 그냥 뜻으로다가 떠올라서 그냥 여기에 감응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그냥 내 눈에서는, 때에 따라서는 싱긋이 웃음이 나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아주 뼈저린 눈물이 흐르기도 합니다. 아무 생각이 없는데도 뜻으로 이렇게 항상 가설이 돼 있기 때문입니다.

진짜 가설이 돼 있는 그 자체를 아시려면 우리가 진짜 이렇게 열심히 일심으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그 들이고 내는 그것에 달려 있습니다. 아휴, 내가 이거 둘을 놓고 '이걸 먹을까, 저걸 먹을까?' 하고 망설이지 말고 내가 진짜 먹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냥 집어 먹을 수 있는 겁니다. 학교도 그래요. 학교도 '요리로 갈까, 조리로 갈까? 요거는 좀 높고 요건 얕은데.' 이렇게 하지 말고 자기가 마음 내키는 대로 가는 것이 옳은 일이 아닐까 이렇게 봅니다.

모든 것을 부모가 "네겐 거기가 높다. 가지 마라." 뭐, 어째라. 이렇게 해서 망가지는 일들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본인에게 모든 것이 달려 있다는 얘깁니다. 죽을 때도 그냥 혼자 가고 나올 때도 혼자 나옵니다. 그러니까 할 때도 혼자 해야죠. 남의 소리 듣고, 이 소리 듣고 저 소리 들어서 망가지는 일들이 한두 건이 아니거든요.

아까 얘기한 뜻을 어떻게 알아들으셨습니까? 간이 나쁘다, 또는 어떤 괴로움이 있다, 어떠한 문제가 있다 이러는 것도 용도에 따라서 여기다 맡겨 놓고, 맡겨 놓으면 바로 자동적으로 그게 컴퓨터 눌러지듯 자동적으로 눌러져서 가설이 된 거기에 그 액이 딱 온다. 그러니까 모든 일체 만물 만생이 무정물까지도, 풀 한 포기까지도, 산에 있는 모든 무정물도 일치돼서 가설이 돼 있다는 얘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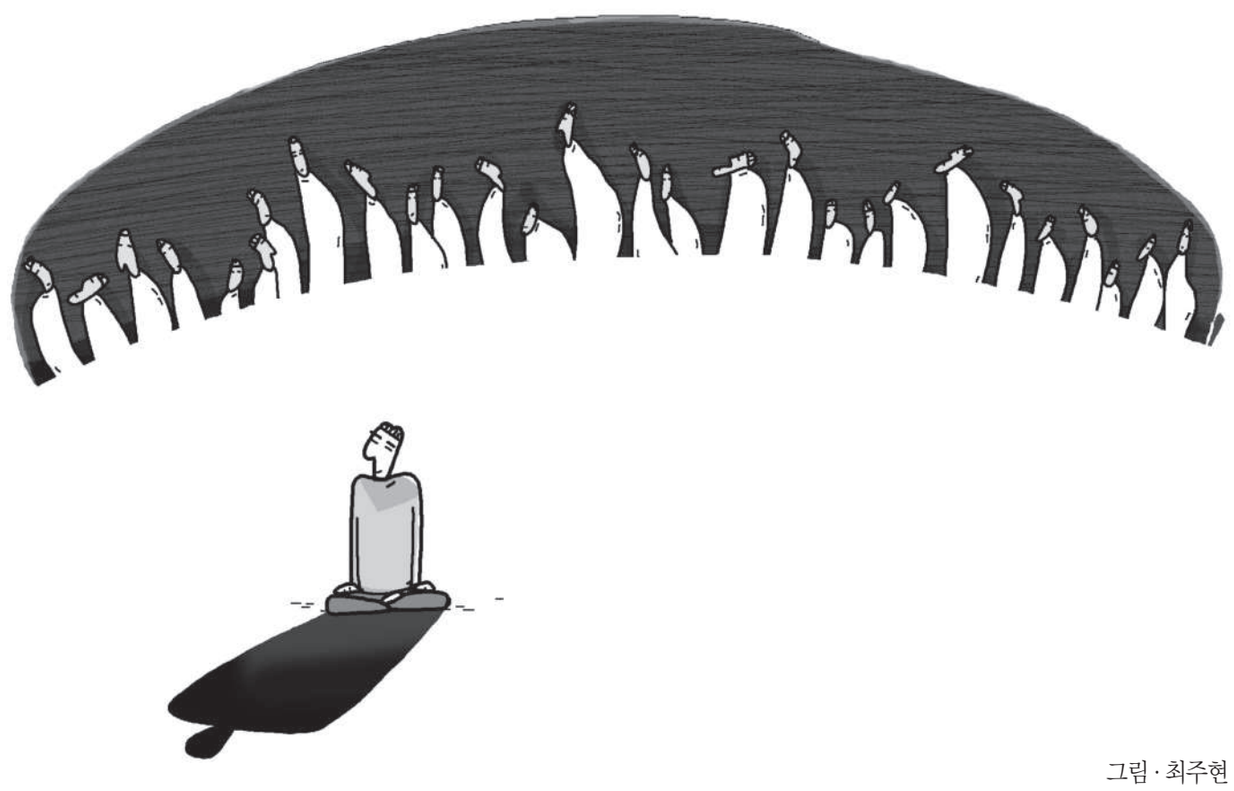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예전에 중국의 어느 사람이, 다른 거는 하나도 몰라. 무식쟈야, 나처럼. 그런데도 한번 그 사람이 봐서 어떠한 약초를 갖다 쓰기만 하면 나아. 그런데 그 약초 이름도 모르고 그러면서도 그냥 갖다 써. 왜 그랬느냐. 그런데 과학적으로 증명을 하려면 안 돼, 그게. 딴 사람이 그걸 갖다 쓰면 안 돼. 그게 참 이상하죠. 바로 그겁니다. 불가사의한 법! 인간의 마음이 통해서 서로 피를 좀 나누어서 주듯이, 이렇게 양면이 다 살게….

지금 시대의 연구는, 과학적이든지 뭐든지 의학적으로도 연구하는 건 꼭 하나를 죽이고 연구하고, 꼭 하나를 죽여야만 하나 살리고 이런 연구들을 합니다. 우리가 전부 같이 살 수 있는 그러한 연구들을 하면 인과에 걸리지도 않습니다. 법계에 걸리지 않는다. 그러면 인과에 걸리지 않죠. 왜? 인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이런 예가 있죠.

벌써 작년 일인가? 몇 달 됐죠, 아마. 여기 계실지도 모릅니다. 이 선원의 어린이 법회에 나오던 애가 죽었답니다. 죽어 가지고, 이 애를 도로 돌려 달라는 겁니다. 부부가 말입니다, 울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럴 때 나는 한편 당황하기도 하고, 한편 저걸 위로를 어떻게 해 줘야 될까 하는 생각에서 그냥 무참히 입을 딱 다물고선 가만히 있었죠. 있다가, 무뜩 그저 위로해 준다는 말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그래요. 당신이 또 낳으면 되잖아. 그 애가 죽었으니까, 그 애가 바로 당신한테 또 태어나면 되잖아." 그렇게 해서 위로를 했단 말입니다. 그랬는데 그 집은 그 딸이 아들로 변해서, 화해서 나왔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에, 여러분은 지금 현재에 사는 이 진리가 그러하다는 걸 생각하지도 않죠? 누구든지 그것이 불가사의한 일인데, 어렵다면 어렵고 돈을 억만금을 줘도 그렇게는 못 하는 일이고, 또 억만금을 들여서 할 수도 없는 일이죠, 그것은. 불가사의한 일이죠. 그래 순간순간 만나서 그럭할 때에 '이걸 어떻게 위로를 해야 할까?' 하는 당황한 마음에서 탁 한마디 그냥 해 버리는 게 자기가 그걸 다 짊어지는 거죠. 말할 때는 쉬워도 그 뒤를 감당하는 거는 참으로 회향이 어렵다는 문제가 뒤따르죠. 그래서 말이 문제가 아니라, 대답해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뒷감당하는 게 문제다. 여러분!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공부할 때도 열심히 해야 하는데, 이런 게 있죠, 또. 여러분이 무 자 화두나 화두를 가지고서 하는 분들도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엇갈리죠. 그러면 "야, 그냥 우리가 사는 생활이 참선이며 바로 당신이 있기 때문에 당신이 화두다." 이러죠, 나는. 그렇게 쉬운 말로 그냥 하죠.

그런데 딴 사람이 만약에 화두를 줬다 이런다면 그게 끊어질까 봐요, '이 뭣고?' 하고 하여튼 끊어질까 봐 애씁니다, 밤이나 낮이나 일할 때나. 그래 하루 종일 일하다가 끊어졌으면 '아이고, 오늘도 그거를 또 놓쳤었구나.' 이러거든요. 그러면, 놓쳤다고 생각을 한다면 진리는 지금 쉴 사이 없이 돌아가는데 만날 도로아미타불이거든요. 그리고 또 바깥에서 받은 거기 때문에 이게 끊어질까 봐 애를 쓰니 자기는 생각해 볼 여지가 없고요. 마음으로 이것만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것도 헛것이다 이겁니다.

우리가 어딜 지나가다가 묘한 나무 한 그루가 있어. 그리고 가을에 단풍이 들었어. 그리고 단풍잎이 우수수하게 떨어졌어. 그럴 때 지나가다가 한번 딛고 '부스럭' 할 때 생각해 보는 마음. '그 돌이 묘하게 생겼다.' 그럴 때 한번 생각해 보는 마음. '말없이 지켜볼 수 있는 너. 누가 너를 깨트려 간대도 말이 없고, 잘나간대도 말이 없고, 두고 본대도 말이 없고, 너는 그냥그냥 이렇게 잠자코 서 있구나.' 하는 거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그 의정. 응? 그런 의정을 낸다면, 물이 흘러가는 걸 보고도 의정을 내는데, 그렇게 내는 거는 그냥 생각하고 의정을 내고 그냥 이렇게 돌아가는데, 이 화두 받은 거는 절대로 그냥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항상 붙어 있습니다. 이거 끊어질까 봐 말입니다. 이러니 이게 돌아갑니까? 이러니 참 어렵다 이겁니다.

인제는 시대가 달라져서 우리가 예전에 생각했던 거하고 지금 생각하는 거하곤 천지 차이로 다릅니다. 그렇게 달랐기 때문에 역사도 그렇게 가져왔지만 앞으로는 좀 더 우리가 시대가 변천하는 대로, 지금은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알고 있는 게 너무 많아서 남한테 화두 받아 가지고 될 일은 아닙니다. 지금 시대가 바뀌졌다는 얘기죠. 알고 있는 게 많은데 '이게 뭣고?' 할 때는 헛돌아간다 이거죠. 예전에는 그런 걸 모르고, 과학도 발전이 안 되고 모든 것이 안 됐을 때, 침체됐을 때 그때는 '이거

☞ 20면으로 계속



삶의 고해(苦海)를 건너가는 지혜의 가르침

삶은 苦고가 아니다(개정판)

세상 모든 생명들에게 바치는 대행스님의 생활속 불법이야기

"살아있는 탑에는
개개인의 살림살이와
보이지 않는 곳의 마음이
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탑은, 거꾸로 세워놓아도 바로 세워놓아도
모로 세워놓아도 뒤집어서 세워놓아도
세상을 모두 하나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2009년 4월 9일, 책 표지에 탑을 형상화하여 넣으라시며
탑의 의미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행 스님의 법문입니다.

대행스님 법어집 '삶은 苦가 아니다' 오디오북 출시

대행스님의 법어집인 '삶은 고가 아니다'를 오디오북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전문 성우의 목소리가 아니라 대행스님의 가르침을 따라 마음공부 하는
이들이 수개월간의 정성과 노력을 담아 완성한 이 오디오북을 통해
불교를 더욱 편안한 마음으로 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오디오북 소개 |

제1장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 내가 누구인지 모른대서야 00:03:13
• 누구나 부처 될 자격이 있으니 00:33:47
• 통하는 길은 오직 마음뿐 00:51:17
• 마음의 안테나를 세워라 1:26:20

제2장 누구에게나 똑같이 부여된 능력
• 생명의 에너지와 주인공 01:37:30
• 자신의 뿌리를 굳게 믿고 01:54:07

제3장 다 놓고 얻는 도리
• 놓고 가는 생활선 02:11:58
• 고정관념부터 깨라 03:03:44
• 삶은 고가 아니다 03:36:59

제4장 서로 돕고 사는 세계
• 공생 공용의 이치 04:23:15
• 생활 속의 마음 도리 05:00:41

제5장 가르침의 바른 이해
• 마음 밖에는 부처가 없다 05:43:54
• 불법의 바른 이해 06:05:10
• 실참 수행 06:49:56

제6장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07:23:00

정가 ~~14,000~~원 → 특판가 12,600원 / 신국판 / 314쪽 (배송비 별도)

『삶은 고苦가 아니다』는 1996년 9월에 처음 발행되어 초판 22쇄라는 기록을 남기고 스테디셀러로 자리매김한 대행스님 법어집 입니다.
2015년의 3판 개정판에 이어 2022년 4월에 개정 제4판을 내놓으며 읽기에 좀 더 편하도록 글자 크기를 키우고 잘못된 부분들을 수정하여 페이지 수를 추가하였습니다.

주문은 마하몰! 02)732-1520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생활이 참선이며 바로 당신이 화두다

☞ 19면에서 계속

뭣고?' 하면 그래도 들어갔는데 지금은 안 됩니다. 너무 아는 게 많은 걸요.

아, 그런데 배운 게 많고 아는 게 많고, 들은 게 많고 보는 게 많은데 아니 글쎄, '이게 뭣고?' 하면 됩니까? 그리고 돌아가지를 않는다면 지금 어떻게 이 쉴 사이 없이 돌아가는, 이 지금 지구에 관한 것도 그렇지마는 우주 전체의 진리에, 여기에 어떻게 순응하고 돌아갑니까? 부처님께서도 이 끝없는 진리에는 순응하셨습니다. 즉 말하자면 "인연으로 인한 거는 어찌할 수가 없고, 또 인연이 없는 중생은 건질 수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다면 우리가 이 소용돌이 속 아무데라도, 그냥 불바퀴가 막 돌아가는 이 소용돌이 속에도 우리는 그냥, 거기 들어가도 같이 순응이 되고 나와도 같이 순응이 되고, 들어가고 나옴이 없기 때문에 켜졌다 꺼졌다는 언어가 붙지 않는 자리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 내가 차라리 무식한 게 낫지, 내가 만약에 학문을 많이 배웠다면 지금 얼마나 남한테 거짓말을 하고, 얼마나 행을 갖다가 거짓으로 했겠습니까? 나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걸,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 양심은 내가 더 잘 알고 내 잘못은 내가 더 잘 압니다. 이것은 마음이 넓고 지혜롭게, 모두 남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하는 것도 나를 위해섭니다.

지난번에 이런 일이 있었죠. "스님은 왜 돈을 갖다 누구를 그냥, 못산다고 그냥 털컥 주십니까? 지금 집에도, 이 절에도 돈이 없습니다." 그러거든요. 정말 딴은 보니까, 이번에 사무장님 가시고 난 뒤에 우리 재무 스님을 이렇게 내면서 보니까 딴은 돈이 없어요. 그럴 때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 '총무 스님도 나같이 무지렁이가 돼서 주먹구구로 이거 살림하느라고 너무나 애를 썼구나.' 하는 거를 생각하면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눈물이 정말 났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만 했던가?' 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럴 때에 참, 이렇게 주면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괴롭지 않으려고 그런다." 이럽니다. 여러분! 그 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괴롭지 않기 위해서지 남을,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다." 이러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간 생각이 났을 때, 그 사람으로 인해서 저거 할 땐 이 모든 것을 줘도 아깝지 않으리만큼 천 원도 안 남기고 다 그냥 주거든요. 그래서 "스님은 이렇게 가지고 다니질 않으셔야 되는데…." 하는데 나는 내가 편안하려고 그저 조금이라도 넣어 가지고 다니죠. 만약을 생각해서요. 내가 무슨 국수를 사 먹습니까, 떡을 사 먹습니까? 뭐, 먹고 싶은 게 있어야 먹고 싶은 걸 사 먹죠. 먹고 싶은 것도 없습니다. 이번에는요, 아주 정나미가 뚝 떨어졌는지 그냥 입에다 하나도 넣기가 싫은 거예요. 약으로 정말 이렇게 좀 먹고는, 눌은밥이라도 끓여서 이렇게 먹죠. 이런 말 하는 건 안됐지만.

우리 지금 실생활을 그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 실천의, 실 진리의 삶에 대한, 그대로 우리 모두의 얘깁니다. 지금 사실을 그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불가사의한 법도 여기 있고 물질 세상도 여기 있고, 죽어 가는 것도 이 자리에서 죽어 가고 살아 나오는 자리도 이 자리고, 인연에 따라서 모든 게 벌어지고 이렇게 생기는 일인데, 얼크러지는데 인연, 인연이 무엇인가? 우리가 지나가다가 말만 서로 통해도 인연이요, 모두가 이렇게 인연입니다. 우리가 아는 집에 들어가지, 다짜고짜 아주 모르는 집에 들어가서 뭐, 나 배고프니 밥 좀 달라고 할 수는 없죠. 그와 같이 우리는 알기 때문에 인연이 되는 겁니다. 그 알기 때문에 인연이 되는데 인연이 돼 가지고 그 사람을 해(害)하게 만드느냐, 이(利)하게 만드느냐? 서로 이하지도 않고 해하지도 않게 그냥 똑바로 사느냐. 이런 것도 문제죠? 그래서 '좋은 인연을 맺는다, 언짢은 인연을 맺는다' 이런 거는 금방 옵니다.

옛날에 친구 둘이 정답게 공부를 하고 살다가, 하나는 아주 부잣집 아들입니다. 부잣집 아들인데 어느 승려가 말입니다, 거기를 갔죠. 예전에 탁발을 할 때니까요. 집집마다 이렇게 공양을 얻으러 갔는데 그 부잣집에서 밥을 상당히 대접을 잘하고 또 공양을 바리때에다 담아서 이렇게 해서 드렸습니다. 그 인연으로 인해서 그 부잣집 아들이 바로 산으로 올라가게 됐습니다. 올라가서 수행을 하는데 아, 이거는 천야만야한 데로 떨어져서 그냥 이 팔이 다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두 팔을 갖다가 엇메고선 이러고 다녔죠.

그렇게 고생을 하다가 보니까, 그 은사가 하시는 말씀이 "얘야, 너 수행을 하는데 팔 없이 참 괴롭겠구나." "예, 참 괴롭습니다. 이렇게 팔로 할 거를 발로 하고 이러니까 참 어렵습니다." 하니까 "얘야, 네가 너 자체를 진정 안다면 너의 과거를 현실에 볼 수 있느니라. 너를 색경으로 봐라. 네가 예전에 어느 나라의 정승으로 있을 때 사냥을 나갔느니라. 사냥을 하다가 길을 잃어버려서 어느 두 팔을 못 쓰는 수행자한테 길을 물었더니 이 팔로 가리킬 수가 없어서 다릴 들어서 저리로 가시라고 이렇게 일렀더란다. 그랬는데 그 정승은 감히 나한테 발로다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고 하면서 그 팔을 그냥 아주 못 쓰게 잘라 버렸단다. 쓰지도 못할 팔은 있어서 뭘 하느냐고 그냥 팔을 잘라 버렸단다. 네가 그때 그 정승이니라. 너도 그만큼 어렵지? 네 두 팔이 그것이 그냥 다친 게 아니니라. 그것이 인과응보니라. 네가 한 대로 받는 거니라." 하시더랍니다.

아까도 내가 얘기했듯이, 여기도 계실지 모르겠지마는 그렇게 내외가 되돌려 달라고 울면서, "뒷사정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도 모릅니다. 또 어떻게 해야만이 되돌려 받을지도 모릅니다." 하면서 애원을 했습니다. 그것은 어린애가 사탕 사 달라고 우는 거나 똑같았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 거기를 건너서라도, 이 세상 아닌 저 세상, 이것도 여기와 둘이 아니지만 그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어떠한 언덕의 어려움, 어떠한 물의 어려움, 어떠한 불의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거길 넘어서 그것을 해결을 해야만 되는 심부름꾼에 불과하죠.

여러분이 자녀들을 길러 보면 아버지라는 이름만 가졌지, 상표만 가졌지 심부름꾼 아니십니까? 올바로 이끌어 가고 올바로 그냥 해 주고, 올바로 벌어다가 먹여 주고 올바로 입혀 주고, 어떡하면 잘 입히고 어떡하면 잘 먹이고, 어떡하면 잘 공부를 시키고 어떡하면 앞으로 잘되게 해서 저희들을 편안하게 살게 해 주나 하는 그런 심부름꾼 말입니다. 아마 저하고도 같을는지 모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까 그거를 똑바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괴로움을 좀 덜고, 하여튼 십분의 칠이나 팔은 좀 편안하게 사실 겁니다. 아까 말했듯이 전부 가설이 돼 있다, 일체 만물하고.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용도에 따라서도 거기에 맡겨 놓으면 자동적으로 거기에 기나 모든 것이 부합된다, 모든 병 증세에도. 그것은 보이지 않는 데서 약을 쓰고 그러는데도 보이지 않는 데를 모르고, 약이 스스로 오는데도 모르고 그냥 병원으로 간다. 그래 가지고 그냥 어디 다리도 자르고 말이야, 별짓 다 하는데, 뭐, 창자가 꼬여도 그냥 가서 자르고 잇고 그러는데 그냥 둔 것만 하겠습니까? 허허허. 그냥 자연 그대로, 내 생긴 대로 그냥 둔 것만은 못할 겁니다. 그걸로 인해서 딴 게 또 생긴다면 그건 또 어떡하시렵니까?

> 이 색신이 나와서 이 도리를 알고,
> 또는 자기 위로는 은혜를 갚을 줄 알고,
> 아래로는 제도할 줄 아는
> 그러한 사람으로서 옷을 벗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더 침착하게 생각하셔서…. 내가 지금 50%만 말을 하지, 50%는 말을 못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 그걸 잘 생각하셔서, 여러분이 그냥 생활에서 그대로 할 수 있는 보살이 되시고, 부처라는 것도 상표가 부처입니다. 진짜 부처는 자유자재하는 게 부처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그렇게 하고, 옛날에도 이런 예가 있었죠. 달마 대사는 왜 수염이 없느냐고요. 만약에 그렇게 여러분한테 질문을 하셨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예? 달마 대사는 왜 수염이 없는고? (중략)

그래서 이것을 이론으로만 이렇게 하실 생각 마시고 이 마음으로 진짜 이해하고 들어가신다면, 우리가 앞으로 스스로서 느끼고 스스로서 알게 됨으로써 그것은 어느 누구가 뭐래도…. 못났든 잘났든 글쎄, 부처님이 여기 계시다 하더라도 여러분 대신 가 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대신 먹어 줄 수도 없고, 자 줄 수도 없고, 똥 누어 줄 수도 없고, 아파 줄 수도 없죠? 그러니 부처님인들 어떡하겠습니까? 예? 그러니 인연 없는 중생은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은 나처럼, 무지렁이처럼 몰랐든 알았든, 모자라든 자라든, 남이 잘하는 거 끌어오려고 하지도 말고 못났으면 못난 대로 그냥 사세요. 그냥 살 수 있는, 그냥 그대로 사세요. '그대로 사세요'가 아니라 그대로 마음을 그렇게 편안하게 가지세요. 못났으면 못난 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나 이번에요, 사무장님이 그렇게 되시고 어떤 잘하는 사람을 데려오려고 생각을 해도 좋을 텐데 그저 못났으면 못난 대로, 그저 이대로, 그저 스님네들이 이렇게 하면서 가면…, 줄창 남한테 기대고만 있을 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모르면 모르는 대로 해 보면 또 알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저 엉겁결에 잘난 거 찾으려고 껑충 뛰고, 또 엉겁결에 그냥 물불 가리지 않고 돈 벌려고 뛰어가서 펑덩 빠지지 마시고, 남한테 거짓말하지 마시고, 그저 마음을 옳게 쓰면 옳은 말도 나가고 옳은 뜻도 생기고, 지혜도 생기고 옳은 행을 하게 되고 이럽니다. 요걸 잘 생각하셔서 앞으로 우리 살아나가는 길에 어떠한 착오가 없이, 우리가 죽고 사는 거야 다 죽고 살지마는 그래도 이 색신이 나와서 이 도리를 알고, 또는 자기 위로는 은혜를 갚을 줄 알고, 아래로는 제도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옷을 벗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갈 때 되면 그냥 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하십시오. 내가 가고 싶다 하면 그냥 갈 수 있게끔요, 예? 그리고 요만치는 내가 있어야 되겠다 하면 있을 수 있게끔요. 이렇게 하세요. 그것이 인간의 큰 도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오늘 자세히 말한 거, '가설됐다는 거, 그리고 가져올 수 있다는 거, 자동적으로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래야만이 내 가슴을 좀 덜, 내 눈물을 좀 덜 나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하겠습니다.

※위 법문은 대행 선사 법문집 《허공을 걷는 길》 중 1990년 2월 4일 일반법회 법문을 정리한 것입니다.

대행 스님 법어집

다만 그윽한 마음을 내라

대행스님 초창기 법문의 정수가 담긴 결정판

"얕은 물도 깊은 물도 갈 수 있는 자유로운 배가 되어라."

마음의 길, 주인의 삶으로 이끄는
대행 선사의 가르침

스님께서 30여 년에 걸쳐 설하신 방대한 법문을
근간으로 하여 그동안 여러 형태의 책들이 나왔습니다.
생생한 육성 그대로 담아 낸 법문집들은 마음공부를 하는 이들에게
든든한 길잡이이자 무한량의 자원이 되어 줍니다.
그러나 스님은 알음알음에 빠지는 것을 늘 경계하셨습니다.
경을 보되 누가 보는가를 바로 알아야 하고, 목마를 때 스스로
물 한 컵 들이킬 수 있는 그런 공부를 해야 한다고 하셨지요.
또 한권의 책을 세상에 내놓으며 그 말씀에 담긴 깊고 간곡한 뜻을 다시 새겨보게 됩니다.

〈책을 펴내며〉 중에서

정가 18,000원 / 375쪽 / 출판사 (재)한마음선원 출판부



주문은 마하몰! 02)732-1520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강소연의
수행 다이어리

④ 몸의 정화(1)

“삼매 위해선 몸의 ‘청정’ 회복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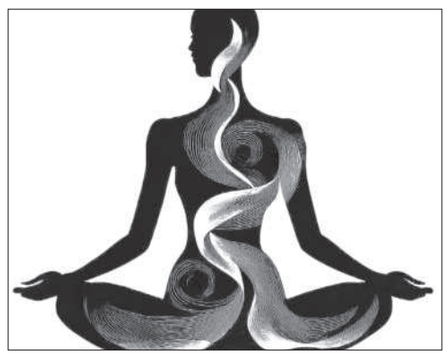
지난 연재에서 사마타 수행의 과정 중 ‘자연 호흡(또는 자연 상태)’에 대해 언급했다. 사마타 수행은 의식을 하나의 ‘집중 대상’에 계속 붙여 놓는 것이다. 이를 지속할 경우, 의식의 ‘나’로부터의 ‘분리’가 일어난다. 그래서 6근과 6경의 만남(촉觸-수受)으로 유발되는 6식(識)의 전개를 막을 수 있다. 그 결과 항상 출렁이던 파도 같은 마음이 멈추고 고요해진다.

그래서 ‘사마타’를 한문으로 번역하면 ‘지止(멈추다)’ 또는 ‘정定(마음이 그쳐 바르게 되다 또는 흔들림이 고정되다)’이 된다. 마음이 고요해지면 몸도 고요해진다. 번뇌가 차단되니 항상 헐떡이던 호흡이 자연 호흡으로 돌아가고 몸도 자연 상태가 된다. 몸이 자연 상태로 돌아가면, 다음으로 일어나는 현상이 ‘몸의 정화’이다. 몸의 정화는 삼매로 가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이러한 과정을 정리하면 ‘①대상에 집중 → ②의식의 분리 → ③몸의 이완(자연 상태) → ④몸의 정화 → ⑤삼매 체험’이다.

몸의 청소

몸이 마음에서 놓여나면 생명체 본래 상태로 주파수가 맞춰진다. 세월의 때로 휘고 굳어진 내 몸이 어릴 적 원활하고 유연한 상태를 지향한다. 그러면 아랫배 깊은 곳에서 갑자기 주먹만 한 크기의 불덩어리가 나타난다. 혜성과도 같은 빛 덩어리가 꼬리를 끌며 매우 빠른 속도로 온몸을 돌아다닌다. 섬광의 속도로 내부 구석구석을 휘감아 돌아다니며 아픈 곳을 치료해 준다. 빛 덩어리가 비강을 지날 때면 고질적으로 앓았던 비염이 한 순간 사라진다. 항상 부어서 막혀있던 부비동을 강렬하게 뚫어준다. 또 빛 덩어리가 왼쪽 다리를 지날 때는, 무릎이 갑자기 수 미터 쭉 길게 늘어났다가 다시 줄어들면서 뭉치고 뒤틀린 근육이 일순간에 풀린다.

마치 막혀있던 하수구를 ‘뻥’하고 뚫어주는 느낌이다. 수도 파이프 속에 차곡차곡 쌓여 덩어리진 오물이 청소되면서 콸콸 맑은 물이 흐른다. 우주의 청정한 에너지가 안팎으로 봇물처럼 흐르는데, 이는 난데없이 어디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본래 바탕 자리(허공)에 여여(如如)하게 있던 것이다. 그저 오물(자아의식과 그로 인한 번뇌)이 드러난 것뿐이다.



바른 집중(정정, 正定)을 하면, 청정한 에너지가 용솟음치게 된다. Copyright 강소연

자연 상태서 분출된 ‘에너지’
몸을 맑혀 삼매 세계로 인도

청정에너지의 폭발적으로 유입으로 육체적 정화가 일어나는 순간, 바로 삼매로 넘어가게 된다.

청정에너지와 관세음보살

강렬한 청정에너지는 자아의식과 번뇌로 더러워진 내 몸을 세탁기에 넣고 돌린 것처럼 다시 새하얗게 만들어 준다. 이때 ‘그분이 오셨구나!’라고 직감한다. ‘관세음보살’이다. 관세음보살은 중생을 맑혀주는 청정에너지(자비)를 말한다. 그리고 아미타불이 계신 극락으로 인도하는 안내자로 잘 알려져 있다. 자신이 맑아져야 맑은 세계로, 청정한 세계로 갈 수 있기 때문이다. ‘같은 에너지끼리 상통한다’라는 업의 원리이다.

관세음보살이라는 ‘나를 맑히는 생명 에너지’가 태동하면 고질적인 병이 낫고, 생전 느껴보지 못했던 천근이 빠져나간 듯한 가벼움(경안)을 느끼게 된다. 이러한 상태는 ‘심-사-희-락(석가모니 붓다께서 말씀하신 사마타의 단계)’ 중 ‘희(喜)’에 해당한다. ‘희’가 어떤 상태인지 대표적인 극락 경전인 〈관무량수경〉에서 찾을 수 있다. 이를 ‘팔공덕수(八功德水)’가 분출하는 것으로 표현한다. 팔공덕수는 감로수(甘露水)와도 같다.

현대 의학에서는 명상을 할 때 나오는 호르몬에 주목하고 있다. 이것이 면역력을 급상승시키고 획기적인 치유의 효과가 있음을 알고, 대체 의학으로 명상 프로그램을 활발히 도입하고 있다. 행복 호르몬이라고 하는 세로토닌, 엄마 품의 편안함을 느끼게 하는 옥시토신, 면역세포의 활성화를 시키는 도파민 등의 호르몬이 명상 도중에 갑자기 다량으로 분비되는데, 현대 의학에서 말하는 이들 호르몬이 팔공덕수에 해당한다. 물론, 중생 차원에서 명명한 호르몬이라는 단위로는 설명 불가능한 기적적인 효능까지 포함하므로, 본 연재에서는 경전의 ‘공덕수’라는 용어를 쓴다. ‘공덕수’라 하는 이유는, 선업(청정업)을 닦은 ‘공덕의 결과’로 나타난 청정수(청정에너지)이기 때문이다. 불교는 선업이든 악업이든 항상 ‘인과(因果)’의 진리를 말하고 있다. 이 인과를 ‘업(業, 카르마)’이라고 한다.

정리하면, 바른 집중(정정, 正定)을 하면 팔공덕수가 터지게 된다. 〈관무량수경〉에 따르면, 팔공덕수는 “청정하고, 향기롭고, 가볍고, 서늘(쾌적, 상쾌)하고, 유연(부드럽고)하고, 아름답고, 맛이 좋고, 병환을 낫게 한다”고 한다. 바로, ‘감로’의 맛이다.

〈중앙승가대 교수〉

동네약국 사용설명서

④ 약 종류가 왜 이렇게 많아요?

“‘딱’ 맞는 약, 약사와 상담하세요”

“이지엔 주세요.”

“음… 이지엔이 종류가 많아요. 어떤 이지엔을 찾으세요?”

“진통제요. 이지엔6 없어요? 종류가 많다구요? 1부터 6까지 있나요?“

“…그건 아니구요, 어디가 불편해서 이지엔을 찾으시는데요?”

“아니… 다른 약국은 이지엔 달라면 바로 주던데 여긴 왜 몰라? 딱 보면 알아야지.”

여러분들도 이러한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평소에 먹던 약을 달라고 하는데도 약사는 계속 무언가를 더 물어봅니다. 그냥 달라는 약을 주면 서로 편하고 좋을 텐데, 그들은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진통제로 흔히 알고 있는 이지엔6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지엔6애니, 이지엔6프로, 이지엔6이브, 이지엔6에이스, 이지엔6스트롱, 이지엔6나이트. 놀랍게도 이는 모두 서로 다른 성분과 조합의 진통제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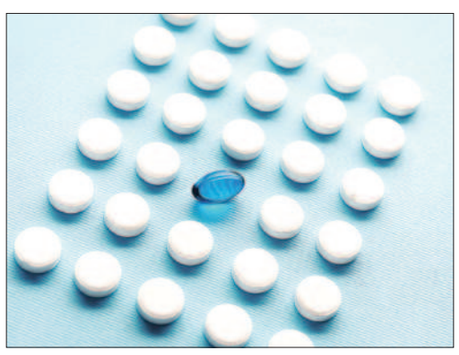
알기 쉽게 소개하자면 부루펜(이부프로펜) 성분의 애니, 맥시부펜(덱시부프로펜) 성분의 프로, 생리통에 알맞은 조합인 이브, 타이레놀(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에이스, 탁센(나프록센) 성분의 스트롱, 통증으로 잠 못 이룰 때 숙면에 도움이 되는 진통제인 나이트까지.

이렇게 ‘이지엔6’이라는 같은 이름을 가지고 각자 다른 많은 제품이 있습니다. 때문에, 그냥 이지엔6를 달라고 하면 어떤 제품이 고객에게 딱 맞을지 약사들은 고민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디가 불편한지 물어보기도 하고, 파란색이요? 분홍색이요? 빨간색이요? 색깔 맞추기 스무고개를 시작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같은 이름을 가지고 분류를 다르게 한 제품들을 시리즈 제품이라고도 하는데요, 각 제약사마다 유명한 시리즈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익숙한 피로회복제인 아로나민 시리즈가 그렇고, “설명은 약사님이 하신다”는 광고 멘트로 유명한 비맥스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비맥스는 비맥스 골드, 메타, 메타비, 액티브, 에버프리미엄, 엠지플러스, 제트, 비비 등 8가지 제품군이 존재합니다. 도대체 뭐가 이렇게 많은 걸까요? 이제 슬슬 지루해지고 짜증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지? 진통제도 그렇고 피로회복제도 그렇고, 이렇게 고르기 어려우면, 도대체 뭘 골라야 하는 걸까요?



Copyright Freepik

약 이름 비슷해도 성분 달라
증상 파악 후 약사에게 문의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내 몸에 필요한 제품, 내 증상에 맞는 제품을 고르시면 됩니다. 어느 세월에 익숙하지 않은 꼬부랑 단어로 나열된 많은 제품의 이름과 성분을 일일이 조사하여 분류하는 수고로움을 감수해야 할까요?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지척에는 이미 그 모든 공부를 끝내고 해당 지식을 머릿속에 넣어둔 사람들이 약국에서 흰 가운을 입고 당신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약에 대해 공부하실 필요가 없어요. 약국에 방문하여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고 그것을 자세히 설명해주시면 됩니다.

진통제를 찾으신다면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 얼마나 아팠는지, 피로회복제를 찾으신다면 요즘 왜 피곤한지, 어떤 점이 불편한지 자세히 말씀해 주신다면, 여러분은 비슷한 이름의 수많은 시리즈물 중에 딱 맞는 제품을 손에 넣으실 수 있습니다.

“어르신 드실 영양제 하나 주세요” 보다는 “저희 아버님이 60대이신데, 한 달 전에 교통사고가 나서 일주일 입원하신 뒤로 살도 많이 빠지시고 눈도 평소보다 침침하다 하시고 영기운을 못 차리시네요. 아직 어깨랑 목이 불편하다 하시고요. 혈압약과 고지혈증약을 복용중이시고 술을 즐기시는 편이세요. 약 많이 드시는 걸 싫어하셔서 한 알로 간단히 드실 수 있는 영양제를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살도 좀 찌고 덜 피곤하셨으면 좋겠어요”고 상세히 알려주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주어진 정보가 많으면 여러 가지 영양제 중에 고객에게 딱 맞는 조합의 영양제를 추천해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피로회복에 도움이 되는 비타민B군, 병후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로얄젤리, 눈의 피로에 도움되는 비타민A 등이 함유되어 있고 근육과 신경의 긴장을 풀어주는 마그네슘과 간의 부담을 덜어주는 우루사(UDCA) 성분이 한 알에 포함되어있는 영양제를 추천할 수 있겠습니다.

또 약국 문이 열리고 고객분이 들어옵니다.

“약사님. 저 아파요..”

“어디가 어떻게 아프세요?”

“가슴이.. 가슴이 아파요.”

“협심증일 수도 있고, 역류성 식도염일 수도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여자 친구랑 헤어져서.. 가슴이 너무 아파요...”

그럴 때는 약사를 찾기보다는 청양 장곡사의 약사여래불(국보 제58호)을 찾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마음의 번뇌를 다스리는 데는 약국의 타이레놀보다는 종교의 따뜻한 타이름이 더 효과적일지도 모르니.



임종섭
울산희망약국 대표약사

“세상에 단 하나뿐인 특별한 이야기, 바로 당신의 삶입니다”

삶은 스쳐 가는 순간들의 연속이지만, 그 안에는 잊혀서는 안 될 소중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법보신문은 스님과 불자들의 수행 여정, 지혜의 말씀, 사찰의 역사와 전통을 한 권의 책으로 담아냅니다.
당신의 삶은 누군가에게 울림이 되고, 또 다른 이에게 길이 됩니다. 기록되지 않은 기억은 사라지지만, 글로 남긴 이야기는 세대를 넘어 살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스님과 불자들의 삶은 현대 불교사의 소중하고 생생한 기록입니다.
법보신문은 깊은 존경과 정성으로 당신의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그것이 잊히지 않고, 누군가의 마음에 깊이 머물도록. 지금, 당신의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세요. 당신의 삶이 곧 가장 빛나는 가르침입니다.



법보신문 다르마기록문화연구소

- 스님과 불자를 잘 아는 전문 기획사
- 불교 이해가 깊은 전문 필진 확보
- 기획부터 책자 제작까지 원스톱 시스템
- 종이·전자출판 올인원(all in one) 서비스
- 고객 수요와 주문에 맞춘 제작 시스템

법보신문 다르마기록문화연구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19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A동 1501호 | 문의 ☎ 070-4707-4965

전법 일기

남한산성 장경사서 마음을 내려놓았다

20222년 8월 하안거 해제일, 제2교구본사 용주사 문화국장 3년 소임을 회향했다. 은사스님의 부름과 큰 뜻이 있었기에 부득이 소임을 내려놓게 됐다.

은사스님의 부름을 받고 대구 팔공산 파계사 대비암에 걸망을 풀었다. 사실 1년 전부터 중앙종회의원 선거 출마를 준비하고 있었다.

하지만, 문중 내에서는 다른 입후보자스님을 돕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오랜 준비가 물거품이 됐다는 안타까움과 서운함이 밀려왔다. 하지만, 은사스님께서 힘들어 하는 모습에 문중의 뜻을 따르기로 했다.

모두 다 내려놓는 마음으로 대비암에서 운력 수행을 시작했지만, 쉽게 마음이 추슬러지지 않았다. 결국 은사스님께 전후 사정을 말씀드리고, 오로지 기도하기 위한 곳을 찾아 팔공산을 내려왔다.

우선, 사찰넷(불교 구인 광고)에서 기도스님 구인을 검색했다. 잠시 모든 인연을 끊고 조용히 100일기도를 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러다 눈에 들어온 곳이 남한산성 장경사였다. 사찰에 전화해서 기도스님 면접 일정을 잡고 장경사로 갔다. 장경사에 도착해서 가사 장삼을 수하고 대웅전 부처님께 인사부터 드리고 종무소로 갔다. 그곳에서 총무스님에게 면접을 봤다. 스님께서는 별말 없이 "기도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했다.

후에 들은 이야기지만, 총무스님이 별 말씀이 없던 것은 앞선 부전 소임을 위해 오는 스님들이 가사 장삼도 수하지 않고, 부처님께 인사도 없이 면접을 보는 스님이 많았는데, 필자는 달랐다는 것이다. "승려의 법도에 맞게 가사, 장삼 수하고 대웅전 부처님께 인사드리는 모습을 보고 바로 합격이라고 생각했다"고 했다.

2022년 11월부터 남한산성 장경사에서 부전 소임을 시작했다. 새벽4시 새벽예불, 가사 장삼을 수하고 대웅전 법당으로 가는 길은 고요했다. 오랜만에 새벽하늘을 빛내는 별도 볼 수가 있었다. 도량석 목탁소리는 남한산성 일체 만물들을 일깨우며, 목탁소리에 담은 염불은 왜 그리 구슬픈지 마음이 메어왔다.

장경사에서 정말로 열심히 기도 수행하면서 스스로 운력에도 몸을 아끼지 않았다. 1년 4개월 부전 소임을 보면서 목탁 4개를 깨뜨렸다. 일부 신도들은 필자의 힘 있는 염불소리를 듣고 하는 말이 있었다. "그 스님 오셨나 보다"라고.

필자는 2024년 2월 동안거 해제와 함께 장경사 기도 소임을 회향했다. 소임을 회향하는 날 신도들의 작별 인사와 배웅을 받았다. "더 오래 계시라"고 붙잡는 신도, "그동안 감사했습니다"라고 인사하는 신도 등등. 신도들의 감사인사에 마음이 행복해졌다. 다시 한번 장경사 사부대중과 신도들께 지면을 통해 인사드린다.



"1년 4개월 동안 장경사 부처님 품안에서 머물 수 있었던 인연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장경사 신도 여러분! 항상 복 짓는 하루 보내시고, 모두 건강하세요!"

명진 스님
파계사 총무



김형중의 깨달음의 노래 ⑬ 신찬 선사의 오도송

닫친 문 두드리는 어리석은 벌 되지 말라

열린 문은 마다하고 닫힌 문만 두드린다

벌아, 활짝 열린 공문(空門)을 마다하고
(空門不肯出)
굳게 막힌 창문만 두드리는구나
(投窓也大痴)
백 년 동안 옛 종이를 뚫으려 한들
(百年鑽古紙)
어느 때 벗어나길 기약하겠는가
(何日出頭期)

이 선시의 유래와 내용이 산사의 벽화에 더러 그려져 있는데, 서울 삼룡사 법화삼매당의 벽화 그림이 유명하다.

신찬(神贊) 선사의 오도송과 일화는 고려 때 백운(白雲) 선사가 저술한 〈직지심경(直指心經)〉(세계 최초의 금속활자본)에 수록되어 있다. 신찬 선사는 백장(百丈) 선사(720~814, 중국 선종 9대조사)의 제자이다. 그는 일찍이 중국 복주 고령사(古靈寺)에서 계현(戒賢) 스님의 제자가 되어 경전을 배우다가 당시에 최고 선지식인 백장 선사를 찾아가 참선 공부에 열심히 정진하여 "자신의 본래 마음이 부처(見性成佛)"인 것을 깨달았다.

오도(悟道) 후 다시 은사인 계현 스님에게 돌아와 시중을 들었다. 어느 날 은사스님이 창문을 반쯤 열어 놓고 경전을 보고 있는데, 밖에서 벌 한 마리가 들어와서 열려있는 문으로 나가지 않고 닫힌 창문에만 가서 부딪치는 모습을 보고 신찬 선사가 스승을 위하여 게송을 지어 읊은 것이 이 오도송이다.

1구의 '공문(空門)'은 현실세계에 나타난 물질 현상이 여러 가지 요소들이 인연화합으로 잠시 모여서 이루다가 사라지는 실체가 없는 무아(無我) 즉, 공의 세계임을 밝힌 진리의 세계이다. 영원한 것은 없으니 집착하는 일은 부질없다.

3구의 '옛 종이(古紙)'는 불교경전을 뜻한다. 원래 경전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과 같은 것이다. 부처님의 말씀인 경전을 통해서 깨달음의 세계에 이르는 종파가 교종(教宗)이고, 경전(손가락)을 부정하고 직접 명상 수행을 통해서 달(깨달음) 즉, 신령스런 마음의 본체를 발견하는 종파가 선종이다.

이 시는 자신의 마음을 직접 찾는 참선 수행을 해야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전형적인 선종시이다. 평생 경전만 보는 교학승(教學僧: 경전을 전문으로 공부하는 승려)인 스승의 잘못된 수행 방법을 "열린 문은 마다하고 닫친 문만 두드리는" 어리석고 고집스런 벌의 모습을 비유하여 일깨워주고 있다.

이 게송을 들은 계현 스님은 제자에게 자초지종을 묻고, 깨달음을 얻은 제자에게 대중을 모아 법문을 청하였다. 은사스님은 제자의 오도(悟道) 설법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내가 늙어서 상좌에게 최상의 법문을 들으니 부처님의 은혜로구나"라고 하였다. 제자의 수행 경지가 스승을 앞서는 청출어람(靑出於藍)하고, 지혜가 밝은 제자에게 불치하문(不恥下問)하고 가르침을 청하는 선가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이야기다.

부처님 말씀을 기록한 경전은 높은 산을 오르는 지도와 같다. 아무리 좋은 지도가 있어도 직접 산을 오르지 않으면 지도가 소용이 없다. 서산 대사는 〈선가귀감〉에서 "부처님 말씀은 교(教)이고, 부처님 마음은 선(禪)이다.(教是佛語 禪是佛心) 그러니 교와 선은 똑같은 것이니, 함께 수행하라(禪教一致)"고 하였다.

불교는 참된 마음과 올바른 진리를 찾아서 부처로 사는 것을 목표로 하는 종교이다. 〈유마경〉에 "올바른 마음이 수행의 장소인 도량(直心是道場)"이라고 하였다. 임제 선사는 직심(直心)을 갖기 위해서는 편견과 우상을 버리라고 하였다. 올바른 마음과 투철한 수행만이 혼탁하고 나아갈 방향을 잃어버린 사회와 대중을 바르게 이끌 수 있다.

〈문화평론가〉

기자칼럼

눈 밝은 선지식, 어디에 계신가요

최근 자주 들르는 사찰에서 한 새내기 불자와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다. 어쩌다 보니 신행 상담처럼 진행된 대화 속에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나 듣게 됐다.

바로 '불교'와 '사이비 무속신앙'을 혼동한 것이다. 원인에는 평소 즐겨 찾았던 불교용품점 사장에게 있었다. 불교용품점 사장은 자신을 '법사'라고 소개하며 본인도 불자라고 주장했다. 같은 불자라는 말에 안심한 새내기 불자는 불교용품점을 들릴 때마다 그와 종종 불교 이야기를 나눴다고 한다.

새내기 불자는 처음 만난 도반에 기뻤다. 하지만 "'영(靈)'을 맑게 해야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부터 "나는 법사니, 눈을 쳐다보면 기운을 살필 수 있다" 등 점점 불교와 맞지 않는 말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어느 날 사장은 무속에서 쓰는 오방기를 꺼내더니, 그를 향해 "부처님이 너를 이뻐하니 과일을 사서 기도를 해야한다"며 사이비 무속 행위를 강권하기까지 했다. 다행히 이상함을 느낀 새내기 불자는 사장과 결별했고, 지금은 여법한 도량에서 신행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여기서 불교를 바르게 이끌어줄 선지식의 중요성을 다시 일깨우게 된다. 〈법구경〉에서는 "바른 법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에게 생사의 밤은 길고 멀어라"는 구절이 있다. 스승의 바른 인도 없이 불법의 길을 걷는 사람은 무명의 어두움에 헤맬 수밖에 없다는 말이다. 근현대 고승 만공 스님도 깨달음을 이루기 위해서는 스승, 장소, 친구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다. 그만큼 스승의 중요성은 몇 번을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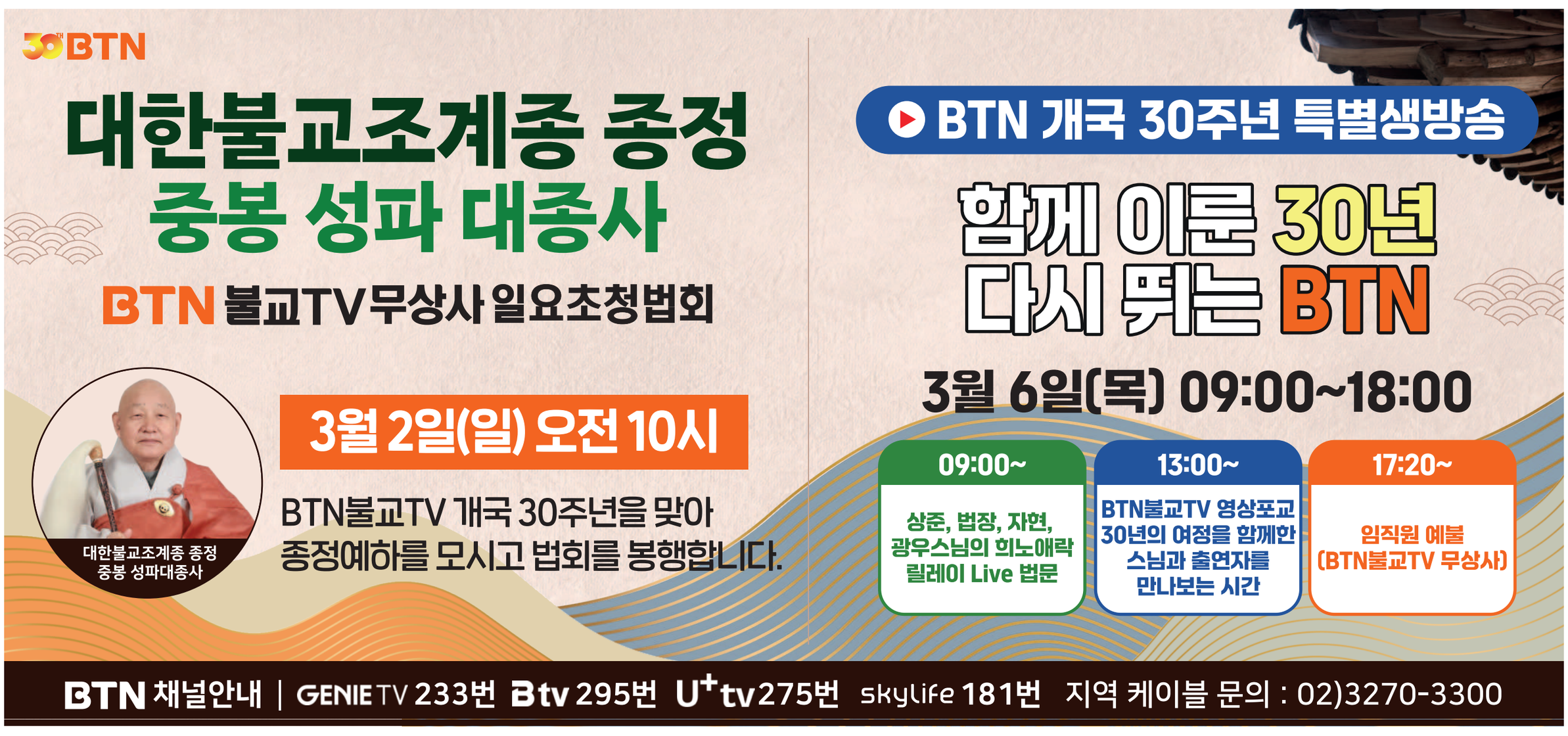
불교는 드넓은 바다와도 같아, 초보 불자들이 길을 잃기 십상이다. 그렇다고 이제 불교라는 바다에서 항해를 시작한 그들에게 직접 선지식을 찾아내라고 다그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진정 '눈 밝은 선지식'이라면, 길 잃고 헤매는 불자들을 위해 수고로움을 감수하고 먼저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야 한다. 누군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면, 언제 어디서나 그 모습을 나투시는 대자비의 '관세음보살'처럼 말이다.



김민재 편집국 기자

현밀 스님의 뭉밀이 佛스타툰





모든 존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

현불논단



정운 스님
前 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장

생명이 있는 모든 존재는 생태별로 구별할 수 있지만, 사람은 구별[태어나면서부터 바라문계급·천민계급이라는 결정]할 수 없다. 인간들 사이의 구별은 다만 명칭에 불과할 뿐이다.

–〈숫타니파타〉 #611

불교에서는 세상의 모든 존재를 4생, 태란습화(胎卵濕化)로 구별한다. 앞 게송에서 세상에 태어나는 중생은 이렇게 구별하지만,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든 흙수저를 물고 태어나든 차별받을 수 없다는 것이요, 인간은 존재 그 자체로서 존중받아야 한다는 뜻이다.

인도에서는 지금으로부터 4000여년 전, 아리안족에 의해 계급(Caste·四姓)이 만들어졌다. 즉 브라만(제사장 계급)/ 크샤트리아(왕족)/ 바이샤(평민)/ 수드라(천민)로 나뉜다. 그런데 이 계급에도 포함되지 못하는 불가촉천민(不可觸賤民, Out-caste)이 있다. 불가촉천민이란 더러운 존재이므로 자신보다 높은 계급 사람들과 접촉해서는 안된다는 뜻이다.

불가촉천민은 사원에 들어갈 수도 없으며, 마을 공동 우물도 마실 수가 없다. 또한 상층계급 사람들이 자신들의 존재를 멀리서 알아보고 고개를 돌릴 수 있도록 목에 방울을 달고 다니거나 밤에만 외출을 해야 했다(지금은 금지). 신분이 낮은 사람은 자신보다 높은 신분 사람에게 폭행을 당해도 항의할 곳이 없을 정도다.

이렇게 수천년 흘러온 불가촉천민의 부당함에

인도 최하위 계급인 '불가촉천민'
암베르카르 노력으로 제도 폐지
차별 존재… 부처님 현현 바란다

이의 제기한 사람이 나타났다. 인도가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뒤, '불가촉천민의 아버지'라 불리는 암베드카르(1891~1956)다. 그는 영국에서 법학 박사학위를 받았고, 인도 독립 후 최초 법무부장관을 역임했다. 그의 노력으로 1947년 법적으로 카스트 제도가 폐지되었다.

암베드카르는 1949년 인도 사회의 신분차별 제도가 힌두교라는 잘못된 종교에서 기인한다고 보고, 힌두교 이념을 거부했다. 그런 뒤 불교로 개종하면서 현대 인도에 새로운 불교 운동을 일으켰는데, 인도에서 탄생한 종교 가운데 불교만이 계급을 부정하기 때문이요, 인간이 평등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암베드카르가 개종할 때, 수천여 명의 불가촉천민이 함께 동참했다. 그가 주장한 불교는 관념적 불교가 아니라, 가난하고 억압받는 천민들을 해방시키는 실천적 해방의 불교였다. 그는 이런 말을 하였다.

"힌두사회는 불평등의 또 다른 이름인 카스트 제도 위에 서 있습니다. 힌두교는 억압받는 계층들에게 노예·농노와 같은 삶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불가촉천민)의 소원하는 바는 오로지 평등한 인권입니다. 이런 사상을 주장하는 종교는 석가모니 불교뿐입니다."

안타깝게도 암베드카르는 일찍 사망했다. 그가 조금만 더 장수했더라면, 불가촉천민들의 인권을 한층 더 끌어올렸을 것이다. 그의 사상을 본받아 불가촉천민에 대한 인권 운동이 꾸준히 이어졌다. 불가촉천민들은 자신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달리뜨 팬서(Dalit Panther)'라는 조직을 만들었고, 꾸준히 평등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2016년에도 수도 뉴델리에서 카스트 시위가 벌어져 최소 28명이 숨졌다. 반만년 지속되어온 계급제도! 앞으로 또 어떤 일이 발생해 이들의 발목을 잡을지 모를 일이다.

언제쯤 이들에게 봄이 올까? 다시 부처님이 사바세계에 오셔야 할 것 같다.

아프리카 어부와 나의 식탁

세간과 출세간



최원형
환경생태작가

수산시장이나 해산물을 파는 대형식당에 넘쳐나도록 많은 해산물을 보면 어디서 온 걸까 궁금할 때가 많다. 무분별한 남획에다 해수온 상승으로 어족 자원이 고갈돼가고 있다 보니 떠오른 대안이 양식이다. 양식장에서 물고기를 기른다는 기발한 생각은 고갈되는 바다의 진정한 대안 같았다. 그런데 양식장에서 물고기는 무얼 먹이며 기를까?

서아프리카 기니만을 돌아 북쪽으로 올라오다 보면 세네갈 안에 가로로 가늘고 길게 생긴 '감비아'라는 나라가 있다. 감비아의 대서양 연안 사람들은 쪽배를 타고 나가 손 그물로 물고기를 낚아 생계를 꾸려간다. 나무로 만든 쪽배로는 바닥까지 싹싹 긁어 올릴 그물은 꿈도 꾸지 못한다. 아프리카 서해안에 사는 사람들에게 봉가는 청어과 물고기로 이 지역 사람들에게 단백질 공급원으로 아주 요긴한 생선이었다. 너무 흔해서 공짜로 나눠주기도 했던 봉가가 더 이상 흔하지 않다. 귀한 생선이 되다 보니 가격도 치솟았다. 연안에는 이제 물고기 씨가 말라 지역 사람들이 물고기를 잡으려면 먼바다까지 나가야 한다. 쪽배로는 너무나 힘들고 위험천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중국이 일대일로 프로젝트의 하나로 아프리카의 가난한 나라에 도로, 발전소, 공장 등 인프라를 건설하며 경제적인 혜택을 제공해오고 있다. 아프리카 인근 바다는 엘도라도라고 표현할 정도로 어장이 풍부하다. 중국이 생선 가공공장을 여러 개 지으면서 세계적인 어분(fish meal)시장을 형성했다.

아프리카에 中생선 가공공장 확대
인근 수산자원 싹쓸이…오염 심각
내 식탁과 아프리카는 연결돼 있다

어분은 말 그대로 생선가루다. 양식산업에 단백질 보충제로 쓰이면서 황금 가루가 되었다. 단백질 보충제를 먹인 물고기는 빨리 자라 빨리 내다 팔 수 있어 더 많은 이윤을 가져다준다. 황금 가루라 불리는 이유다. 참치 한 마리를 양식하는데 참치 몸무게의 15배에 해당하는 해양 동물을 먹인다고 한다. 황금 가루가 얼마나 많은 수요처를 갖고 있을지 짐작 가는 대목이다.

감비아 남서해안에는 군주르라는 작은 마을이 있는데 이곳에 '볼롱페뇨'라 불리는 석호가 있다.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자연보호구역이다. 2017년 5월 볼롱페뇨 석호의 물이 붉게 변하고 수천 마리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한 채 수면 위로 떠올랐다. 석호 주변에 둥지를 틀었던 새들도 대부분 사라졌다. 석호 물을 분석한 결과 허용치를 몇 배나 초과하는 비소, 인산염, 질산염 등으로 오염돼 있었다.

오염의 원인은 석호 가장자리에 들어선 중국 생선 가공공장에서 흘러나온 폐기물이었다. 연안에서 물고기 씨를 마르게 하는 걸로 부족해서 가공공장에서 폐수를 불법으로 방류하는 일까지 벌이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수산물을 파는 가게 앞에서 저 물고기가 어디서 건져 올린 것인지 궁금하지 않을 도리가 없다. 내 식탁과 서아프리카 가난한 어부의 삶은 이토록 가깝게 연결돼있다.

社 說

선명상 대중화 운동, 전국민에 확산을

조계종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선명상 대중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한다. 조계종 미래본부는 2월 17일 서울 진관사 한문화체험관에서 '선명상위원회 제2차 회의 및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2025년 선명상 대중화 사업 계획 발표와 프로그램 개발 관련 제언들이 이어졌다.

올해 선명상 대중화 사업 중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2025국제선명상대회'다. 국제선명상대회는 4월 1~6일 서울 봉은사 일대에서 열리며, 다양한 명상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다. 국내 및 해외 명상지도자 초청 특강 및 대담, 토크쇼 등이 진행되며 서울불교박람회(4월 3~6일)와 연계될 예정이다.

특히 조계종은 부처님오신날로 이어지는 4월과 5월을 '불교의 달' '마음 평화의 달'로 만든다는 계획이어서 두 행사간 시너지도 기대를 모은다.

지난해 연말 시작된 비상계엄과 탄핵 사태로 한국사회는 혼란의 한가운데 있다. 그런 의미에서 선명상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정신문화 진흥을 도모하는 '선명상 대중화' 운동은 대승불교의 자리이타(自利利他) 정신과 맞닿는다.

워크숍에서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선명상이 포교·전법의 마지막 길이라는 사명감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포교·전법은 한국불교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키워드다. 선명상은 현대사회에서 포교·전법을 이끌 중요한 방편이다. 선명상 대중화를 위해 종단적 역량을 모아야 한다.

중앙신도회 70주년 사업에 거는 기대

올해 창립 70돌을 맞은 조계종 중앙신도회가 국민 행복을 기원하고 한국불교 대중화를 견인할 '불자대회'를 연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조계종 중앙신도회는 2월 18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제28대 1차 대의원총회'를 열고 주요 안건들을 의결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70주년 기념사업 전반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다.

이날 보고에 따르면 기념사업의 백미는 오는 9, 10월 중에 열릴 예정인 '창립 70주년 불자대회(이하 불자대회)'다. 사회공헌사업인 행복바라미 문화대축전과 연계한 불자대회는 전국에서 모인 불자들을 결집해 한국불교 전법 역량을 끌어 올리기 위해 기획됐다. 대회에서는 선명상 수행 실천, 108배 정진, 금강경 독송 정진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창립 70주년 기념식'은 오는 5월 12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다. 기념식에서는 중앙신도회 비전선포식과 국민통합 실천 퍼포먼스 등이 진행된다.

1955년 전국신도회로 출발한 '조계종 중앙신도회'는 70년 동안 불교를 외호·홍법하며 교육화된 신도들의 조직체로 성장했다.

저출산 고령화와 탈종교화 등 한국불교가 넘어야 할 파고는 많다. 이 파고를 넘기 위해서는 승가와 재가가 튼튼한 연대를 이뤄야 한다. 특히 재가불자는 한국불교의 큰 버팀목이기도 하다. 조계종 중앙신도회가 창립 70주년 기념사업을 통해 재가불자의 전법역량을 집중시키길 기대해 본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 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스님 대표 겸 편집인 : 한명우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광고국 (02)2004-8204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FAX (02)737-0698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충 청 지 사 : 010-8341-0560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종 단 공 고

재)대한불교일붕선교종

종도 모집 안내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붕선교종은 1988년 일붕 서경보 스님을 개조로 서울 일붕선원에서 창종된 한국불교 대표 종단입니다. 재단법인으로서 일붕선교종은 국태안민과 남북 평화통일 기원 만등불사, 국군장병 및 사회복지시설 위문 및 지원사업, 종도단합 및 국운 융창기원법회 등 각종 법회와 사회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사회 곳곳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함께 전할 종도를 모집합니다. 02-991-8175

불기 2569년(2025) 2월 26일

일붕선교종 총무원장 혜일 스님

대한불교삼론종

종도 모집 안내

대한불교삼론종은 고구려 삼론종의 맥을 이어가고 있는 한국불교 대표 종단입니다. 제6세 종정 혜승 스님과 제10대 총무원장 해불 스님을 중심으로 2023년 삼론불교대학을 개교하고 전법 포교에 나설 승단 양성에 역주하고 있으며, 중국 삼론종 발원지 및 사찰들과 결연을 맺고 자비실천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전법 포교에 함께 나설 종도를 모집합니다.

불기 2569년(2025) 2월 26일

대한불교삼론종 총무원장 남륜 스님

사)여래불교조계종

종도 모집 안내

사단법인 여래불교조계종은 시대가 요구하는 올바른 불교 모습을 정립하고자 공익법인 여래불교조계종을 창종하고 활발한 활동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불법홍포에 앞장설 전국 종도 스님을 모집하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010-6219-4757

불기 2569년(2025) 2월 26일

여래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덕평 스님

2025 신상 어싱 Earthing 슈즈 특별전

어싱, "지구 표면 존재 에너지에 우리 몸을 연결하는 것!"

어싱이란? 어싱은 야외에서 맨발로 걷거나 앉아 있고 누워 있으며 대지의 자연적인 치유 에너지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어싱의 창시자 'Clinton Ober'는 맨발로 땅을 밟고 걷는 것에 인체를 회복시키는 무언가가 있음을 깨닫고
10여 년 관찰과 실험 끝에 '어싱'(Earthing) 프로그램을 만들어 미국서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어싱의 가장 쉬운 방법은 '맨발걷기'입니다.
하지만 아파트 주거문화가 보편화된 현대인들은 나무가 자라는 높이(4층) 이상에 살기에 대지의 자연에너지를 받기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더욱 맨발로 땅을 밟는 것이 필요합니다. 황톳길, 숲길, 모래사장길을 맨발로 걷는 것이 어싱입니다.
어싱은 최소 30분 이상 하여야 하며 건강한 사람은 주 4회, 건강을 위해서는 3시간 이상 꾸준히 맨발걷기를 하셔야 합니다.
어싱 제품은 이러한 어싱을 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돕는 제품입니다.
땅의 음이온이 전달되는 접지기능을 넣고 맨발걷기와 비슷한 효과를 주는 신발, 그리고 매트는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어싱을 하게 합니다.

"방한 부츠로 겨울 어싱을 편하게 즐기자~"

어싱 '겨울용' 방한 부츠

어싱 방한 부츠는
어싱슈즈의 특징인 걷는 느낌을 최대한 살리면서,
보온 소재를 사용하여 따스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부드러운 소재의 천, 가죽 그리고 고무 밑창입니다.
한 겨울에도 따뜻하게 걸으면서 어싱할 수 있습니다.

소재 : 가죽+천+도전특수 고무밑창

~~120,000원~~ ▶ 판매가 80,000원
※ 사은품 : 어싱 양말



좋은 신발은 자연을 맨발로 걷는
인간 본연의 권리를 지켜주는 것~!

1. 비바미 신발은 밑창이 발바닥 전체에 균등하게 체중이 배분되어 발의 압박을 분산,
2. 발바닥 혈관을 자극해 피가 하체에 쏠리는 것을 줄여주면서 혈액 순환을 개선,
3. 이를 통하여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4. 발바닥 근육을 모두 사용하고, 발가락 뼈의 정형화를 촉진합니다.

이처럼 최대한 신발의 기능을 제거하여 신발로 인한 고통을 없애는 것이 비바미 신발의 특징입니다.

"산양 가죽신발로 겨울철 맨발 걷기를"

어싱 샤모아 슈즈

비바미에서 맨발 걷기 신발에 이어 접지신발을 개발하였습니다.

어싱 샤모아를 새로 출시합니다.

샤모아 (chamois) 는 다공성 가죽의 일종으로, 유럽의 샤모아 산양의 가죽에서 유래된 것.
오늘날에는 지역 구별없이 산양의 가죽을 일반적으로 말합니다. 매우 유연하고, 의복용, 장갑용 사용되기도 하며, 세탁해도 유연성이 변화되지 않고 더운 여름에도 땀이 덜 차는 장점이 있다.



판매가 80,000원

어싱슈즈
특판가 65,000원 (무료배송)
※ 사은품 : 어싱 양말


베이지 블랙

어싱 트레킹화
특판가 65,000원 (무료배송)
※ 사은품 : 어싱 양말
※ 소재 : 도전특수고무 밑창 + 네오프렌(잠수복 재질)



"길과 내가 하나가 된다!"
行禪 전문 신발

New
캔바스 수행화
특판가 : 45,000원 (무료배송)
(사은품 : 무압박 양말 증정)

수행화



- 발을 통해 자연이 온몸으로 느껴져 행선에 적합합니다.
- 천연 지압 효과를 통해 건강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 발 볼이 넓어 다른 신발 대비 발가락 움직임이 편합니다.
- 승복과 일치하는 색상으로 언제 어디서나 부담이 없습니다.

· **색 상** : 멜란지그레이 · **사이즈** : 233~280mm
· **특 징** : 발 볼과 발등이 넓은 편안한 맨발같은 신발
밑창은 짙은 회색으로하여 위, 아래 조화를 추구하여 제작한 수행화
· **소 재** : 캔바스(내부에 고무로 내피를 덧되 방풍, 방수가 되는 4계절용)

주문은 마하몰! 1688-9099 / (02)732-1520 인터넷 주문 www.mahamall.co.kr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